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월 30일) 2019년 3월 6일 수요일



100년 전 함성, 이젠 우리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뿌리 내린 어둠을 걷어내고, 민족자주정신을 만방에 떨친 기미년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다. 100년 전 그 함성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이 됐으며, 후손들의 자존을 바로세운 사자후였다. 사진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3월 1일 조계사에서 개최한 기념법회서 스님들이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그린 손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3.1정신 실천하자”

3.1운동 100주년, 불교계 등 전 국민적 기념행사

종단협, 조계사서 100주년 법회
‘평화번영 위한 불교선언문’ 발표
중도 · 화쟁 강조한 실천강령 담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19년 3월 1일 조선자주독립을 부르짖는 거국적인 평화만세시위가 열린지 정확히 100년이 지난 오늘, 종교인을 비롯한 전 국민이 선조의 민족정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특히 한국불교계는 종교와 이념을 가리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독립선언문을 잇는 3.1운동 100주년 불교계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 순국선열들에 대한 헌화와 추모묵념을 올리고 3.1절로부터 100년이 지난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교계 선언’을 공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 태고종 · 천태종 · 진각종 · 관음종 · 총지종 · 대각종 등 종단협 회장단 종단을 비롯한 20여개 한국불교 종단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에 참석한 불교지도자들은 조국독립을 이끌어낸 선조들의 3.1정신과 독립선언문이 당시 민중을 감싸 안은 미륵보살의 하생(下生)과 같다고 상찬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의 희망을 보여준 적극적인 외침이었음에 공감했다.

불교지도자들은 대표로 회장 원행 스님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조선인이 본래 지닌 독립권과 자유권의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 삼일정신이다. 나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사해의 동포들에게 주지시킨 성스러운 선언이었다”고 3.1정신의 의미를 되새긴 뒤 “삼일정신은 무력이 아니라 도덕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선언했다. 비폭력 평화운동이라는 삼일정신은 옳은 방향성을 지녔기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불교지도자들은 이어 “이제 삼일정신이라는 씨앗의 과거 백년을 이어받아 미래 백년의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옛것을 통해 현재를 새롭게 만드는 지혜의 수레바퀴가 되어 거듭 우리들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교지도자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과거 조선만민의 독립자주정신을 오늘날 되살리기 위한 실천강령 4가지를 선언했다. 불교지도자들은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편가름의 언동과 행위 일체 배격 △양극단의 주장 대립 시 중도와 화쟁 사상으로 해결 △일체의 무력과 폭력적 행위 용납지 않을 것 △적극적인 남북교류 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 · 조국통일에 노력 등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불교계 선언문을 발표한 불교지도자들은 이어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전 국민에게 배포된 민족대표 33인의 3.1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3.1정신을 재차 기렸다. 이후 대웅전을 나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를 그린 손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했다. 또한 전국 1만 5000여 사찰은 낮 12시 33번 타종을 하며 민족 번영과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3.1운동 100주년 특집 섹션 B면

동국대학교 제19대 총장 취임

존중과 소통을 통해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속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제19대 총장 윤성이

dongguk UNIVERSITY

덕숭총림 방장 후보 우송 스님 선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후보에 조계종 원로의원 우송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2월 23일 황하정루에서 방장 후보자 선출 산중총회를 열고, 우송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산중총회에는 157명의 구성원 중 100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방장 후보자로 선출된 우송 스님은 오는 3월 말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 추대를 거쳐 방장 소임을 맡게 된다.

우송 스님은 방장 후보를 수락하면서 "경허 · 만공 스님과 역대 방장스님들의 뜻을 이어 일체중생을 어떻게 성불하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겠다"며 "신심 나고 환희심 나는 총림 분위기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송 스님은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정혜사서 인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대 중앙종회의원,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덕숭총림 선원장 및 유나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어린이청소년 기획위 첫 발족

조계종 포교원, 위원장에 동련 사무부총장 능후 스님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청소년 종책 개발을 위한 첫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어린이청소년 종책 발전에 역주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가섭 스님, 이하 어청위)는 2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어청위 기획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위원장 능후 스님을 비롯해 기획위원을 위촉했다.

포교원 내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전법을 위한 종책 개발과 각급 어린이청소년 단체 지원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다.

어청위원장 가섭 스님은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그동안의 지원 기구 역할에서 의제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도 해나가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위가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위는 이날 동련 사무부총장 능후 스님을 기획위원장으로, 금륜사 어린이청소년법회 지도법사 효욱 스님과 김화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사무총장, 설영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위원, 이대성 한국인성문화원 교수, 김용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장 등 6명을 기획위원으로 구성했다.

기획위원회는 향후 포교콘텐츠 개발 및 각종 어린이청소년 교재의 불교 매뉴얼 정립, 어린이청소년 재단 설립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어청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선운사 주지 후보에 경우 스님 재당선

2월 23일 산중총회서 85표 받아… 재안 스님 34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후보에 경우 스님<사진>이 재당선됐다. 선운사는 2월 23일 오후 1시 지장보궁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주지 선출을 진행했다. 이날 산중총회서 경우 스님은 132명 중 12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85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상대 후보로 나온 재안스님은 34표를 받았으며, 무효표는 6표가 나왔다.

당선 직후 경우 스님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준 재안 스님께도 위로의 말을 전하다"며 "지난 4년의 종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어른스님과 대중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교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우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입산해 같은 해 범어사 지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9년 범어사 지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만일사 주지, 총무원 사서국장 · 호법국장 · 감사국장 · 사서실장을 거쳐, 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선운사=조동제 전북지사장

'나눔 템플스테이' 탈북민까지 확대

불교문화사업단, 올해 나눔 템플스테이 지원 강화

1만 명 이상 참여로 각광
공공기관 MOU도 늘어나
포교원-하나원 협약 따라
템플스테이로 정착 지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최근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공익적 목적의 '나눔 템플스테이'가 지원 계층의 폭을 넓혀 불교계 사회공헌의 한 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지난해까지 여성가족부 · 법무부 · 서울가정법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다양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MOU를 맺고 나눔 템플스테이를 실시해온 데 이어 올해 지원 계층을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나눔 템플스테이는 2017년 봄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가 잇달아 열리던 시기 발생한 사망사고 등 사회문제를 변화시키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이후 대학생을 비롯해 한부모가정, 소방대원, 도박중독자, 보호관찰 청소년 등 각종 문화소외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돼 각광받았다. 지난해에만 1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나눔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올해에는 광주 증심사가 3월 15일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형 템플스테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서 공주 갑사는 2월 26일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나눔 템플스테이 확산에 앞장서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문화사업단은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추진한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과 하나원이 MOU를 논의하고 있어 문화사업단이 이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나눔 템플스테이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호평을 받았다.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역할을 잘 담아낸 덕분"이라며 "포교원과 하나원의 협의가 끝나면 문화사업단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이외에도 관광통역안내사들을 위한 사찰문화 심화교육을 3월 중 서울경기권과 부산경상권으로 나눠 실시, 관광종사원들의 불교 소양을 높인다. 또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기차-버스를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개발하고, 외국인 개별여행객 대상 문화해설과 통역 · 버스제공 등의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외국인 참가자 10만 명을 목표로 템플스테이 외국인 전문사찰도 추가로 선정한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예년보다 많은 해외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3월 27~30일 베트남 하노이 국제관광박람회, 6월 13~16일 홍콩 국제여행박람회 참가를 준비 중이며, 사찰음식 해외 홍보를 위해 이탈리아와 홍콩서 각각 50~100명 수준의 홍보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4~5개국을 대상으로 시장전략을 수립해 템플스테이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한편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인원 5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내국인 43만8000여 명, 외국인 7만7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각각 5~8%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한 템플스테이 홍보관 프로그램 체험자와 한국사찰음식체험관 외국인 참가자,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고급반 수강인원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승의 조계선풍 그립습니다"

조계총림 방장 범일당 보성 대종사 영결식

22일 송광사서 2천여 대중 참석
"계율 · 수행 확립한 수행자" 추모
후학들 '정진' 유훈 새기길 다짐



보성 대종사의 영결식이 끝난 뒤 후학들이 대종사 법구를 다비장 연화대로 이운하고 있다.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오직 이것뿐이다."

후학들에게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유훈을 남기고 원적에 든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2월 22일 송광사에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수됐다.

오전 10시 명종 5타로 시작한 영결식은 삼귀의례에 이어 영결법요, 행장소개, 육성법문과 함께 추도입정, 영결사, 법어가 진행됐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대종사께서는 조계산을 지혜와 덕행으로써 원융화합을 이루어 내고, 효봉 노사와 구산 선사의 선풍이 오롯이 살아있는 출격장부(出格丈夫)의 조계산문으로 확립했다"며 "보성 대종사의 아흔 둘의 성상(星霜)은 오직 종단의 계율체계와 수행가풍의 정립과 애민중생을 위한 올곧은 이정이었다"라고 추모했다.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도사에서 "보성 대종사는 종단 초대 종정 효봉 스님과 은사인 구산 스님,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모두 이은 올곧은 수행자로 살아오셨다. 스님은 종단 초대 법계위원장으로 법계 제도를 안착하시고 전계대화상으로 후학들의 수계를 주관했으며, 송광사 방장으로 청정한 발심과 수행의 목우가풍 전통을 이어 대중들을 산실에서 경책해 오셨다"고 대종사의 생애를 추모하며 "우리 종도들은 오직 화합하고 혁신하며 종문을 일신하여 미래불교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결식 직후 보성 대종사의 법구는 500m 떨어진 연화대로 이운됐다. 2,000여 대중은 법구를 따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뒤따랐다. 다비장에 도착한 법구는 연화대에 안치돼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외침 속에 거화의식과 함께 세속의 인연을 다했다.

보성 대종사는 1928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8세에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0년 해인사 창섭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상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1950년 범어사 수선안거 이후 해인사, 송광사, 파계사 등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했으며, 구산 · 동산 · 효봉 스님을 시봉하고 정진하면서 종단 정화불사에 동참했다.

1962년 통합종단 발족이후 총무원 총무국장, 해인사 교무국장, 송광사 율주, 송광사 주지, 종회의원 등 종단의 소임을 두루 역임하고, 조계종 초대 법계위원장으로 추대돼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초대 대종사 품서, 조계종 행자교육원 초대 유나, 원로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1997년 송광사 조계총림방장에 추대된 후 송광사의 승풍진작을 위해 헌신했다. 인연을 따라 수행을 지도하고 선정을 즐기며 정진하던 중 지난 2월 18일 삼일암에서 세수 92세 법납 75년에 원적에 들었다.

한편, 보성 대종사의 49재는 4월 7일 7재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송광사에서 열린다. 3월 10일에 열리는 3재만 부산 관음사에서 봉행한다.

송광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찬불가 취미가 재능기부로…”

조계종복지재단 찬불가동아리, 정식봉사단 승격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서로 각기 다른 분야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불자들이 찬불가를 배워 또 다른 봉사분야를 개척해 귀감이 되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취미생활이 재능기부로 이어진 이들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직할자원봉사단 상반기 연합행사를 열고 ‘찬불가 마음치유 봉사단 발대식’을 봉행했다. 찬불가 봉사단(단장 김순옥) 34명은 무대에 올라 ‘관세음의 노래’ 등을 부르며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이들은 60여 팀에 소속된 선배 봉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봉사단 합류를 알렸다.

찬불가봉사단은 조계종복지재단 직할봉사단 내 찬불가를 배우는 합창동아리인 ‘울림’에서 시작됐다. 울림은 도영 스님(인천 우리선원 주지)을 지도법사로 2012년 조직됐다.

도영 스님은 “봉사자들도 분명 소진되는 순간이 있다. 찬불가 합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출가 전 가톨릭계에서 합창단을 창단하고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울림에는 각기 다른 팀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 80여 명이 포함돼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선운당에 30명 이상의 동아리원들이 모여 연습한다. 2년 전부터는 피아노 반주를 맡아줄 불자 봉사자도 생겼다.

울림 측에 재능기부 봉사를 제안한 건 복지재단이었다. 재단은 봉사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원 중 약 40명 규모로 봉사단을 구성했다. 종단 봉사자 친목모임이 자원봉사단으로 승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취미로 시작한 찬불가
재단 내 봉사자들에 인기 끌어
40여 명 규모 봉사단으로 발전
치매어르신 정기 지원할 예정


지도법사 도영 스님의 지휘에 맞춰 발대식서 찬불가를 합창하는 봉사단원들 모습.

이주미 자원봉사팀 팀장은 “그동안 울림은 난치병어린이지원 행사 등 재단 주요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해왔다. 충분히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실력이라 생각했다”며 “아픈 분들이 계신 곳을 찾아가 재능을 나누며 그분들 마음을 위로하면 어떨지 제안했는데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림 봉사자 25명은 지난해 9~10월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로 2차례 시범봉사를 나갔다. 찬불가와 함께 따라하기 쉬운 동요를 부르며 손동작을 가미한 음악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해갔다. 치매 어르신들 반응은 좋았다.

찬불가봉사단은 향후 대상자들의 근기에 따른 집단 프로그램, 개인 의뢰를 받아 소규모 조별 파견 등 ‘찾아가는 찬불가 봉사’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봉사단은 매달 셋째주 금요일 오전 11시 송파요양센터로 월 1회 정기봉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친목활동에서 봉사활동으로 변화를 경험한 동아리원들 반응도 뜨거웠다. 4년째 울림서 찬불가를 배운 황규학(74) 봉사자는 “불자라면 일반 노래교실보다 울림과 찬불가봉사단에서 노래하는 게 좋지 않나”라며 “앞으로도 봉사단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부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싶다. 불자들을 향한 울림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순옥 단장은 “좋아하는 찬불가를 부르면서 지금껏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재단이 이를 인정해주고 승격시켜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며 “재정 지원 없이 동아리를 꾸려오면서 울림에 대한 애정이 깊다. 앞으로는 후배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찬불가를 통해 울적함을 달래길 원하는 곳 어디든 찾아가는 봉사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화합 힘으로 세계 100대 대학 실현할 것“

2월 28일 동국대 제19대 윤성이 총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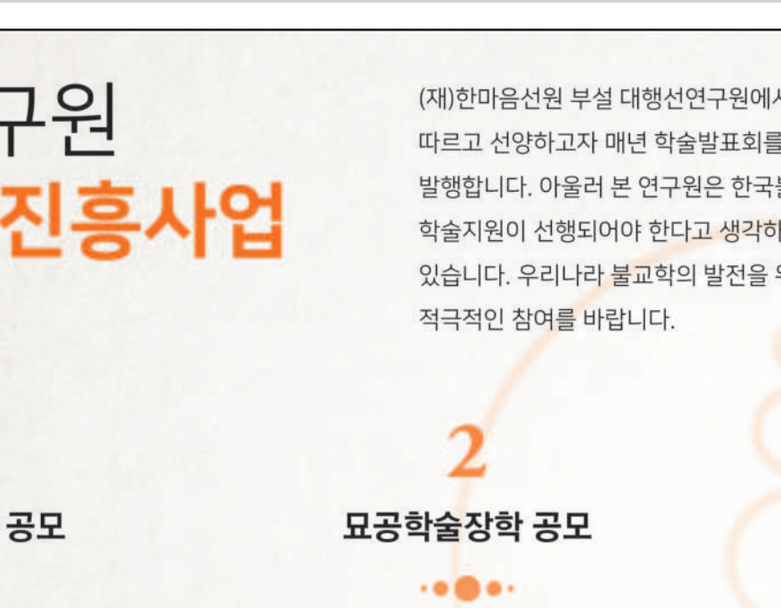
동국대가 제19대 윤성이 총장 취임식을 계기로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2월 2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8대 총장 보광 스님 이임 및 제19대 윤성이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원로의원 일면, 법타 스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성이 총장은 “동국대는 불교계 선각자가 세운 종립대이자 민족 사학”이라며 “큰 사명감을 느낀다. 세계 100대 대학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현재 학교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경쟁 심화 등과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소통과 존중, 배려로 화합을 이끌겠다. 불교유산을 DNA로 가진 종립대학답게 자비와 지혜 정진을 실천 덕목으로 삼고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이 제19대 동국대 총장(사진 오른쪽)이 제18대 총장 보광 스님으로부터 교기를 받아 힘차게 흔들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또 윤 총장은 “학생교육과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방식을 고집하기 보다 근본인 학생들 장래나 교수들에게 도움되는 해법을 찾아가는 자비실천을 해가겠다”며 “여러 사람과 지혜를 모으는 통합과 연계로 시스템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이번 총장 선출에 대해 “19대 총장 선거는 매우 민주적으로 열렸다”고 평하며 “신임총장은 하심으로 화합하고, 신심으로 뛰는 분으로 학교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학문과 신행활동을 병행해온 신심 깊은 불자로 사찰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동국대 건학이념을 잘 수호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사회 충분한 대비를 통해 앞으로 4년간 동국대 변화를 잘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임기를 원만히 마친 제18대 총장 보광 스님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가 전해졌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보광 스님의 경우 취임부터 임기 내 큰 수술을 할 정도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임기 동안 각종 부채를 청산하고 학교 발전의 토대를 든든히 이뤄냈다”고 치하했다.

한편 윤성이 신임총장은 2000년부터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미래인재개발원장,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일반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경주 분황사지’ 사적 지정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군위 인각사에서 출토된 공양구가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또한 경주 분황사지는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와 조선 금속활자본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을 2월 26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또한 한국 청자 제작의 시원(始原)이라 일컬어지는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를 국보 승격예고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은 지난 2008년 인각사 1호 건물지 동쪽 유구서 발견된 유물로서 금속공예품과 도자류로 구성된 총 18점의 일괄 출토품이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18점의 일괄 출토품 중 ‘금속공예품’은 총 11점으로 금동사자형 병향로, 향합, 정병, 청동북 등으로 구성됐고, 사찰에서 사용하는 청동제 의례용품들로서 조형성이 뛰어나고 섬세한 기법이 돋보인다. 특히 불교에서 천상의 새를 상징하는 금동가릉빈가상(金銅迦陵頻伽像)은 그동안 출토 사례가 거의 없어 도상적으로 희귀하다.

함께 나온 ‘청자’ 7점은 모두 당나라 월주(越州)에서 생산된 중국 도자로 추정된다. 발굴 당시 포개진 채 한꺼번에 발견됐다. 청자는 8세기 말~10세기 전반 사이에 조성됐으며, 국내 출토 중국 도자의 편년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산 청자 기법을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신성민 기자

“신도조직화 통한 역량 강화에 역주”

중앙신도회 2월 26일 대의원 총회서 신년계획 밝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신도가 희망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신도역량 강화 3개년 사업을 시작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2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6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결의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어느덧 26대 집행부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가는 해가 됐다. 올 한해 더 많은 지역에 행복바라미의 울림이 퍼져나가고 특히 직능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각 지역내 불자 공동체 근간이 구축, 신도조직 역량을 이끌어 가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신도회는 △신도역량강화 △종단신도조직화 △사회공동선 구현 △연대사업 △안정적 기관운영을 세부 주제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와 사찰신도회, 신도단체, 지역직장직능단체가 신도조직으로서 함께 유기적인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중앙신도회는 ‘세상의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중앙신도회’란 모토에 걸 맞게 특화사업을 통해 불교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서 불교로 ‘녹색’ 확산”

불교환경연대 2019년 사업계획… 상임대표 법만 스님



불교환경연대는 2월 27일 서울 종로구 교육장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9년 3대 핵심사업 및 새 임원진을 발표했다. 이들은 녹색불교 만들기, 숲교육, 조직화를 핵심사업으로 “녹색사찰 프로젝트 등 사업을 체계화하고 운영 재정을 안정화 하겠다”고 밝혔다.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신임 상임대표 법만 스님(참당암 선원장 · 사진), 공동대표 혜경 · 능인 · 효진 스님이 선출됐다.

불교환경연대는 10개 사찰 또는 단체와 녹색불교 협약체결을 목표로 환경법회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원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공모 안내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행화를 따르고 선양하고자 매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논문집《한마음연구》를 발행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에 대한 학술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학의 발전을 위하여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daehaeng.org
이메일 ds7788@hanmaum.org
전화 031) 470-3276, 3277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 제2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모든 분야
• 응모 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 공모 기간 | 3월 1일 ~ 4월 30일
• 선정 분야
대상 1명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2 묘공학술장학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불교문화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 응모 자격 | 대학원 재학 또는 수료자로서 불교학 또는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 내지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 공모 기간 | 3월 1일 ~ 4월 30일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3 제3회 계절발표회
• 시간 | 2019.03.16.(토) 13:30 ~ 17:3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논 제	발 표	논 평
대행선사의 수행관에 관한 고찰	황금연(경희대)	김응철(중앙승가대), 서재영(동국대)
대행선 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	이상호 (대행선연구원)	혜원스님(동국대), 혜선스님(대행선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4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
• 투고 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모든 분야
• 투고 시기 | 연 중 어느 때나 투고 가능
• 투고 자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원고료 | 400만원(《한마음연구》 게재 확정시)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佛心으로 국민 이익 되게”

공무원불자연합회, 화엄사서 신년법회 봉행



전국 공무원불자들이 사찰에서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2월 23일 구례 화엄사를 찾아 1박2일 일정으로 신년법회와 함께 철야정진 기도를 봉행하고 창립 19주년을 축하했다.

전국 300여 공무원불자들이 참여한 행사는 사찰탐방에 이어 입재법회, 특별강연, 문화공연, 다라니 철야기도, 새벽예불, 암자 순례 등이 진행됐다.

김상규 회장은 입재식<사진>에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양극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불심(佛心)은 이를 치유하는 좋은 가르침”이라며 “화엄사에서 불심을 키워 국민들에게 이익 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말했다.

前화엄사승가대학장 종곡 스님은 법문에서 “눈에 보이는 경계는 내가 만든 것으로, 불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자유이며 모든 착각으로부터의 자유가 해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김해 봉화산 정토원장 선진규 법사의 특별강연과 부산 대운사의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서 펼쳐지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케냐 학생들 도운 스님의 원력

군포 만수사 시운 스님, 지구촌공생회 기금 기탁



새 교복을 입고 미소 짓는 올로레라 태공초등학교 학생들.

군포 만수사 주지 시운 스님이 케냐 학생들을 위해 교복값을 지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에 따르면 시운 스님은 케냐 2개 초등학교와 3개 중고등학교 총 12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교복값을 지원했다. 특히 시운 스님은 지난해 9월 지구촌공생회 케냐 지부 시찰에 동행하면서 낡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고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운 스님은 “아이들 가슴 속에 꿈이라는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기금 기탁 취지를 밝혔다.

군포 만수사는 교복지원 외에도 2015년부터 매년 케냐 학생들을 돕고자 수학여행을 지원하고,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2명의 초등학생과 아동결연을 맺어 생활환경 개선, 학업 증진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공부, 보현행원 이어지길”

전주 화엄불교대학, 졸업생 47명 배출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 금산사 주지)이 졸업생 47명을 배출했다.

화엄불교대학은 2월 24일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에서 졸업식<사진>을 개최하고, 화엄불교대학 30기 24명, 학림원 25기 23명의 졸업을 축하했다.

학장 성우 스님은 졸업사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불교의 이론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1년간 공부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한종석 · 박두섭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재학기간 성실히 학업에 임한 불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화엄불교대학은 지난 1989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30년 동안 2,25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대학원 과정 학림원은 24회 동안 960명이 졸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고창신 자세로 창원불교 중흥을”

제5대 창원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 추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창원시불교연합회가 이끌어온 부처님오신날 행사와 산해원문화상 시상식 그리고 설맞이 이웃나눔 등 아름다운 활동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 · 적용해 미래 창원 불교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창원시불교연합회가 지난 2월 22일 창원 불곡사에서 총회를 열고 제5대 회장에 천태종 마산 삼학자 주지 월도 스님<사진>을 추대했다. 월도 스님은 창원시불교연합회가 이어온 나눔 및 포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 더욱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는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지면서 통합 연합회로 출범해 활동을 이어왔다. 월도 스님은 무엇보다 “창원시불교연합회가 더 높은 참여율로 확대 발전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통합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역에 사찰은 많지만 아직 연합회 활동 참여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화합이 부족해서입니다. 종단과 지역 간 나눔은 편 가르기란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공동체적 마음으로 화합하고 서로를 높여주며 차별하지 않고 소중하게 서로를 대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찰 참여율 확대방안 모색
합리적인 소비로 기금 모아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기여
공익법인 마련해 문화행사도

월도 스님은 지역사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활동 분담금을 줄이고, 별도 기금을 마련해 포교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연합회 활동을 위해선 기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찰에서 활동비를 지원 받는 방식은 각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 대여료 등 불필요한 활동 경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로 예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스님은 매년 창원시불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설맞이 자비나눔 한마당’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는 매년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 가족과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설 명절에는 5000만원이 넘는 기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내년에 30회를 맞는 창원시불교연합회의 대표 나눔 활동 중 하나다.

“뜻 깊은 나눔 활동이지만 주축이 되는 금강자비회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강자비회의 활동은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를 젊은 회원이 있어 인연이 이어져야 희망적인데 현재로썬 연결고리를 만들긴 힘들어 보입니다. 적은 성금이라도 신도들이 동참하고 십시일반 후원 나눔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덧붙여 스님은 “공익 법인을 창립해 창원시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불교문화 행사를 주도하면 더욱 발전될 방향으로 나아갈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도 스님은 춘천 삼운사 주지, 춘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경기도 분당 대광사 주지, 천태종 총무부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마산 삼학사와 김해 해성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창원시불교연합회장 취임식은 3월 17일 오전 11시 삼학사에서 열린다.

부산불교 재가 화합 여전히 ‘안갯속’

부산불교신도회, 독자노선
제25 · 26대 회장 이취임식

부산불교신도회 행사 안 알려
연합신도회 “참석 자제” 문자
대화 제안 서로 기다리는 자세



정정복 부산불교신도회 신임회장이 2월 25일 취임식에서 회기를 흔들며 공식 취임을 알리고 있다.

부산불교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통합을 위해 지난해 7월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출범했지만 통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길 기다리는 데다 부산불교신도회는 독자노선을 걷고, 총연합신도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월 25일 부산불교신도회가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5 · 26대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산불교신도회는 함께 통합을 논의해야 할 총연합신도회 측에 행사 개최 사실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총연합신도회 사무국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및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관련 없는 단체이오니 참석하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소식은 무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본래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재가단체는 1967년 5월 창립된 부산불교신도회였으나 2008년 11월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양분된 형태를 유지해왔다. 당시 연합신도회는 부산불교계 대화주였던 故하도명화 보살이 부산불교신도회에 기부한 해운대구 소재 토지 기금 사용처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연합회 출범의 원인이 됐다. 당시 기금은 부산불교신도회관 건립을 위해 사용하려 했으나 재정 집행 부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는 부산불교신도회 측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이 화합을 위해 힘쓰면서 양측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출범을 제안해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출범식에 부산불교신도회가 참여하진 않았지만 통합의 가치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양측의 통합 가능성이 총연합신도회 출범 때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신임 부산불교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정정복 회장은 “통합을 논하기에 앞서 부산불교신도회 역대 회장이 불교발전에 끼친 활동과 공적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춰야 한다”며 총연합신도회 측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어 정 회장은 “화합을 위해서 소통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말했지만 먼저 대화를 제안하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총연합신도회 측 역시 “공식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 언제든 소통하고 통합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수동적인 표현이어서 양측의 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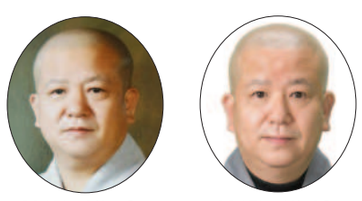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 · 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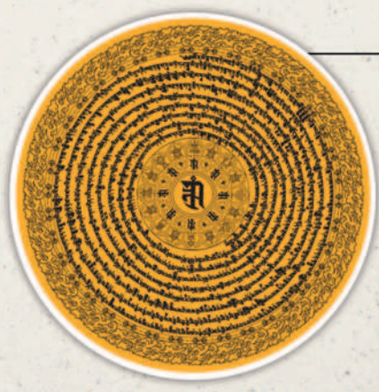
천도되길 원하십니까? 장수를 원하십니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다라니를 지니거나, 보거나, 듣거나, 염송하면 “모든 악업이 닦이고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는 위신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33도리천에서 제석천에게 천자가 죽은 후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에서 벗어나고, 수명이 연장되고, 모든 업에서 벗어나는 법을 말씀하시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을 제석천은 음성이 아닌 정수리의 육계를 통해 말씀을 전해 들었다. 이 다라니가 남갤마다라니입니다.

액 자
100,000원
액자를 구매하신 분은 남갤마다라니 21일 기도 축원해 드리며, 차량스티커 2매를 드립니다.
크기 37×37㎝





차량스티커
10,000원
남갤마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차량 운행 중 미물살생에 대한 과보에서 벗어나고 사고방지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붓다평화위원회 032)522-5554 / 010-6272-1655

서울 길상사 일요특강

입체적 서양미술 스며든 간다라


첫 선정에 든 싯타르타, 페샤와르박물관, 파키스탄


출가, 꼴카타 인도박물관, 인도


첫 설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미국


열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미국


고행상, 라호르박물관, 파키스탄

서울 길상사(주지 덕일)는 2월 24일 유근자 교수를 초청해 일요특강을 진행했다. 유 교수는 "간다라미술은 인도 고유의 전통을 따른 인접 지역과 달리 고행상, 열반상 등 사실적으로 시각화한 표현이 시도되거나 서양 신화 속 이미지가 차용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유근자 교수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간다라에서 성행한 석가여래 일대기에 관한 불전미술 등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주요 저서는 〈지유하는 붓다〉 등이다.

주제 : 간다라미술로 본 부처님 생애

유근자 동국대 교수

첫 선정 든 석가보살

법당에 있는 여러 보살상은 남성의 모습처럼 보이나요? 팔찌, 귀걸이, 목걸이를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모습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처음 보살상이 조성됐을 때는 남성을 모델로 했어요. 이 석상에서도 싯다르타 태자는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보살상은 부처님께서 염부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드신 모습인데요. 부처님이 앉아있는 대좌 아래에 이에피소드를 담은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봄이 되자 싯다르타 태자의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과 함께 직접 농경지들을 살펴보러 나갔어요. 농부가 소 두 마리를 몰고 밭을 가니까 벌레가 나왔어요. 작은 새가 그 벌레를 쪼아먹고, 더 큰 새가 작은 새를 다시 잡아먹는 것을 태자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모습을 본 태자는 '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염부수 나무 아래서 깊은 선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무엇일까' 하며 선정에 든 태자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태자를 가렸던 그늘도 당연히 움직였겠죠. 그런데 태자 위의 그늘은 일정하게 유지됐다고 해요. 신령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버지 정반왕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아들인 태자에게 절을 했다는 장면이 조각돼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은 부처님 출가 이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법신장이 도운 出家

농경지를 돌아보고 온 뒤에 정반왕은 아들 싯다르타 태자가 혹시 출가하면 어쩌나 하고 늘 전전긍긍했죠. 인도의 관습은 아들이 태어나면 관상가를 불러서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관상을 보게 합니다. 관상가는 "이 분은 출가하면 부처가 세속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정반왕의 입장에선 태자가 대를 이어 전륜성왕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출가에 마음 기울지 않도록 무던히 노력했죠. 태자는 "아버지께서 불사의 문을 알려준다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반왕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문을 가르쳐 주지 않죠. 결국 태자는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간다라미술에서는 출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가가 수행의 길로 접어드는 제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사의 문을 열기 위해 길을 떠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야쇼다라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태자가 마부 찬나에게 말을 준비시키는 모습입니다. 출가 직전의 긴박함이 표현돼 있죠. 아무리 성문을 잠그고 경비병을 세워도 태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신들이 내려와서 말발굽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말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사천왕이 한 발씩 받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애마 칸타카를 탄 태자는 카스트 제도 하의 권리도 포기하고, 백성들을 보살필 의무로부터도 탈출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행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 부처님은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이라서 '석가보살'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이후에 '석가모니불' 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 시대, 서양문화 유입
'고행상' 등 사실적 표현 시도
부처님 삶 주요 장면 시각화해
초기불교 특징 이해에 큰 도움

깨달음 전 최후의 수행

간다라미술에서 최고의 걸작은 지금 보시는 고행상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가면 성인 남성이 앉아있는 등신대 크기로 이 고행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 부처님 한 분만 원불로 모신다면 고행상을 안 모시고 싶어할 겁니다. 원만한 상을 모시고 싶어 할 거예요. 선방에서 극한 수행하시는 스님이 가끔 찾을 뿐 우리 불교도들은 그다지 고행상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고행상은 인도적 전통이 덜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성행한 간다라 지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고행상의 모습처럼 부처님은 한 청년에게 공양받은 풀을 깔고 그 위에서 극한고행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하루 깨 한 톨로만 버티며 수행했지만 고행법은 깨달음의 길과는 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때 부처님은 첫 선정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 선정에 들었을 땐 마음이 고요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최고의 수행법이라는 고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고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녀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한 뒤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를 보고 부처님과 함께 수행한 다섯 수행자들은 "저 이는 타락자"라며 곁을 떠나죠. 그러나 그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은 성도 하게 됩니다.

첫 설법, 三寶 탄생의 순간

간다라미술에서는 성도 장면이 드라마틱합니다. 마왕은 끊임없이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합니다. 마왕과 부처님의 마지막 화두는 '누가 전생에 공덕을 더 많이 쌓았는가' 였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나 싯다르타는 당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공덕을 지었다"고 합니다. 마왕이 그 공덕을 누가 증명할 것인지 묻자, 지모신이 땅에서 솟아 증명하고 결국 마왕은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주변의 희한한 동물, 돌과 창을 든 인물들은 마왕의 군대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욕망을 대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녹야원에서 전법륜 즉,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슴 2마리는 장소가 녹야원임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첫 설법을 통해 5명의 아라한이 탄생하게 되는데, 앞서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는 순간 떠났던 이들이 녹야원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간다라미술에서는 법을 설하는 부처님은 오른손으로 직접 법륜을 굴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에게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고 그대들도 출가한 목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에 대한 법을 설하기를, 관능의 쾌락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데 열중하는 2가지 극단을 극복하는 일이 곧 성도하는 것이란 내용이었죠. 녹야원에서의 첫 설법 장면은 부처님, 가르침, 법을 따르는 수행자인 불법승 삼보가 탄생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후 마왕이 또 등장해 "불법승 삼보가 생겼으니 이제 열반에 들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나는 아직 완전한 교단을 형성하지 못했기에 더 머물러야 한다"면서 45년 동안 교화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누운 열반상

부처님도 결국 열반에 들게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의 열반을 조각이나 미술로 표현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꺼려했어요. 부처님을 시각적으로 죽은 자로서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서양 문물과 문화가 유입된 간다라 지역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사실주의적인 측면에서 죽음까지도 작품에서 드러나야 했으니까요.

이 사진은 횡와 부처님 열반상입니다. 부처님 곁을 지킨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와 마하가섭 존자가 등장하죠. 마하가섭 존자는 부처님 열반 뒤 뒤늦게 찾아온 모습입니다. 부처님을 수호하는 보디가드죠. 집금강신은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힘의 상징, 헤라클레스처럼 보이지 않나요? 간다라미술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집금강신 모습은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를 불교에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이교도는 나신으로 표현돼 있어요. 말라족 사람들은 곁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육신까지 다 사라진 열반을 완전한 열반으로 인지합니다. 반면 소승불교가 전해진 남방지역에는 열반상이 중요시됩니다. 간다라 사람들은 인도인들과 달리 열반한 부처님을 가로로 누운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이후 중국과 동남아로 전해져 열반상은 자리 잡게 됩니다. 열반상들을 보면 부처님은 모두 오른쪽으로 누워있습니다. 인도의 와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오른쪽이 성스러운 와법으로 제왕이나 부처님의 와법입니다. 왼쪽은 애욕의 와법을, 큰 대자로 눕는 것은 죽은 자의 와법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본 간다라미술에서의 부처님 일대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시각적인 소재로써 미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다라미술은 초기 불교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간다라미술을 통해 다가올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을 앞두고 부처님 일대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를 찾아라!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8기

•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
• 과학화된 역학, 현대사주명리학 마스터, 검증 가능한 작명법, 성명학 마스터
• 동양미래예측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 왕초보도 1년이면 OK,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성공을 위한 필살기!!
• 암기가 아닌 원리 위주 공부, 전 과정 마스터까지 추가비용 없이 무료 반복 수강
• 명리진로적성 상담자 자격증 취득(소정의 절차)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선천적성 및 성공시기 분석 용이
• 개강 : 3. 6(水) 부터 매주 수 18:30 ~21:00 (1년 과정)



주임교수 석하(奭廈)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KOFS) 회장
•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GFCA) 회장
•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및 풍수리지(+관상)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성공과 실패 시기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창시
• 재)하원정미래학회, 한국성명작명학회(KNS) 회장
•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및 국제미래학회 동양학 위원장
•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유튜브 채널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 02-585-0079

자연과학 풍수지리, 풍수도 논리로 푼다.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제5기

• 대한민국 풍수지리학계 큰 스승, 최고의 교수진 직강
주임교수 : 소재학 교수, 지도교수 : 최명우 교수, 정경연 교수
최병용 교수, 세준 교수, 지종학 교수, 노승우 교수
•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안나오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원리 위주 공부
• 개 강 : 3월 11(月)부터 월 18:30 ~21:00 (1년 과정)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다비식 보며 부처님 열반 떠올리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④ 미얀마 불교 선지식의 다비

지난 2011년 머물렀던 마하시 선원에서의 9번째 날(12월 22일)과 그 다음 날은 미얀마 선지식의 다비식을 볼 수 있었다. 점심 공양을 마친 후 나오는 길에 선원장 스님의 정인(淨人, 속인으로서 사찰에서 살며 승려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오후 큰스님 다비식이 있다고 알려준다. 선방에 올라가 좌선하다가 오후 3시 즈음에 내려와 기다리는 정인을 따라갔다.

도심지라지만 공원과 논밭을 통과하여 다비장에 도착하였다. 대략 40여분 가는 동안 다비식에 대해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았다. 큰스님 다비식은 7일장이라 한다. 일반 스님들의 경우는 보통 3일장이나 1일장도 행한다 한다. 마하시 스님도 이곳 다비장에서 의식을 거행했다고 알려준다. 이번에는 꾼달라 비왕사 스님의 다비식이다.

양곤 외곽 쪽의 다비장에 도착하니 많은 대중이 모여 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다비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출가 스님이 아닌 재가자였다. 스님들은 다만 식장의 의자에 앉아 참관하고 있을 뿐이다. 다비식을 엄수하는 사람들도 재가자들이다. 모두 왼쪽 가슴에 노란 둥근 리본을 착용하여 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스님들이 주관하는 다비식만 봐 온 나로서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다비식이 떠올랐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로를 담고 있는 경전에서 아난존자는 부처님에게 반열반 후의 여래의 유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질문한다. 여기서 부처님은 여래의 장례에 출가자 관여를 금하고 있다. 대신 재가자들이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임을 설한다. 마침내 세존이 반열반에 들자 사방의 제자들은 쿠시나가라로 몰려들었다. 다비 후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여덟 등분되어 각각 자신의 나라에 불사리탑을 건립한다. 마찬가지로 불사리를 봉안한 불탑의 관리 또한 재가자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장례의식이 인도 불교와 다른 지역으로 전해져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다비식과도 비교가 된다. 한국은 거의 스님이 주관하고 있다. 왜 부처님은 스님이 장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가를 이리저리 생각해 본다.

다비식장에는 입적한 스님의 진영이 모셔진 가운데 사부대중이 운집해 있다. 스님의 법구는 장작 위에 모셔져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의 화로 위에 모셔져 있다. 다비 화로는 가스가 분출하는 노즐이 앞 뒤 각각 하나와 긴 양쪽에 각각 두 개씩 모두 여섯 개의 노즐이 갖추어져 있다. 누구이든 가까이 가서 참배하고 사진까지 찍는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밤색 가사를 입은 채 누워 계신 스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마치 잠들어 계신 것과 같은 편안한 모습의 얼굴이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 한다. 이에 용기를 얻어 사진을 찍었다.



지난 2011년 마하시 선원서 수행 당시 미얀마 선지식 꾼달라 비왕사의 다비식에 참석했다. 스님들의 주도로 다비 의식이 진행되는 한국과는 달리 미얀마는 재가자들이 중심이 돼 엄수된다.

마하시 선원 머물던 9~10번째 날
선지식 비왕사 스님의 다비 참석
다비식 주관 · 엄수 재가자들 중심
부처님 장례도 출가자 관여 금지
탑 조성 없이 사리함 강에 띄워
스님 사리 신앙대상 경계한 의도



다비 이후 수습된 사리는 세 개의 사리함으로 나뉜다. 이후 이를 사리탑을 조성해 봉안하지 않고 강으로 흘려 보낸다. 사리탑을 조성하지 않는 이유는 스님의 사리를 신앙대상으로 삼는 것을 경계해서다.

스님의 법구가 있는 다비화로에는 4개의 긴 대나무가 세워져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다시 바깥 담장은 수많은 불교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숨죽여 바라보고 있는데 화로에 불이 당겨졌다. 갑자기 여섯 개의 화로 노즐에서 동시에 화염이 솟구쳤다. 또한 이를 신호로 거의 동시에 모든 대중이 합장한 채로 마치 소리를 길게 뽑아내듯이 큰 소리로 낭송을 시작한다. 후에 무엇을 이구동성으로 낭송하였는지 알아보니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신 스님께 지은 크고 작은 허물을 참회합니다. 사야도 스님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행복한 세계에서 저희들의 회향하는 것을 모두 받아 주십시오. 우리들이 지은 보시, 지계, 공덕 등을 모두 사야도 스님께 회향합니다."

중간 중간 다비 화로에 화염이 솟구치자 33번의 폭죽이 터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두 화들짝 환호하며 웃기까지 한다. 갑자기 초기경전인 〈열반경〉의 부처님 다비식이 떠오른다. 부처님 장례 절차에도 공양으로 춤과 노래가 행해진다. 이 대목을 처음 접했을 때 이해도 가지 않았고 조금 당혹스러웠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또한 부처님의 다비식에서도 슬피 우는 비구의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도 똑같은 장면이 재연되고 있다.

한 스님은 다비화로를 향해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연신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쳐내고 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재가자는 쉬지 않고 다비되는 스님의 법구를 향해 계속 절을 올렸다. 다비식이 진행되는 동안 대중들이 한국처럼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스님 법구가 타는 모습을 모두 숙연하게 지켜본다. 참석했던 대중들은 누구도 떠나지 않고 다비가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내가 외국인으로 보였는지 다비식 내내 비디오와 카메라를 자주 들이댄다.

혹시나 유명한 선지식이어서 운집한 많은 스님들 가운데에 아는 스님이 있지 않을까 궁금했다. 인도에서 같이 공부했던 미얀마 스님이 와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으로 살펴보아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사찰의 어느 스님 하면 대강 아는 경우가 많은데 미얀마에서는 스님들이 많아서인지 서로 잘 모른다. 이 점이 또한 의외여서 신기해 한 적이 있다. 대학에 재직하는 등의 여러 활동을 하는 스님일지라도 물어 보면 아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런 가운데 뜻밖에도 미얀마 승복을 입은 한국의 비구니 스님을 만났다. 미얀마에 한국사찰을 건립한 고려사 혜송 스님이었다. 스님은 내가 선방의 좌선도 빼먹고 왔다하니 바로 "사념(死念, maraṇa sati) 공부도 중요하다"라고 한다.

다비식이 화염을 뿜으며 두 시간을 넘는다. 스님의 육신이 완전 연소되었는지 가스불을 끄고 그물처럼 생긴 불 달은 철판을 차례차례 모래 위로 꺼낸다. 단 밖에 준비된 황금색 단지 세 개가 준비되어 있다. 연소된 스님의 유체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사라함 단지에는 머리 부분의 유골을 수집하여 담고, 두 번째 단지는 몸통 부분의 유골을 담고, 그리고 세 번째 단지에는 하체 부분의 유골을 수습하여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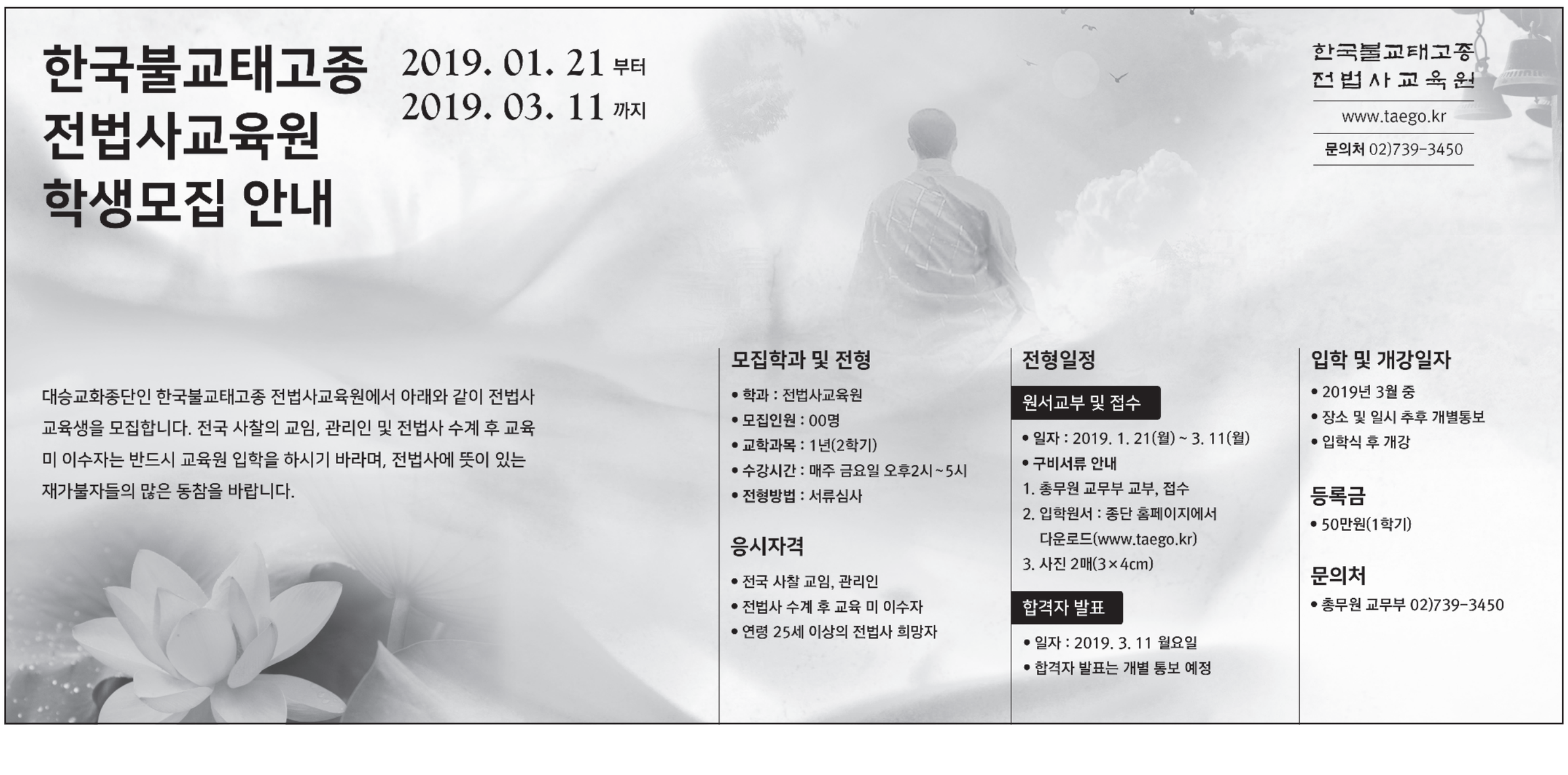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았다. 오랫동안 지켜보던 재가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비 화로로 달려들었다. 화로 바닥에 남은 재를 준비해 온 종이에 조금씩 수집한다. 이 또한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다비식이 떠오른다. 부처님 사리는 물론 마지막 남은 재까지도 재가자들이 모두 남김없이 가지고 갔다고 한다. 다비식은 저녁 6시 30분경에 끝났다.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돋기 시작했다. 운집한 사람들은 차츰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오후 4시경에 이곳에 도착하였으니 다비식은 약 2시간 30분가량 거행된 것이다.

내일 새벽에 다비식 다음의 행사가 있다고 한다. 내친 김에 장례의식의 전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마침 마하시 선원의 외국인 감독스님도 참관하고 있어 허락을 받고 정인과 헤어졌다. 혜송 스님을 따라 고려사로 갔다. 오늘 다비식을 치룬 스님은 삿담마란시 수행처를 일으켜 세운 유명한 스님이다. 스님은 1921년에 태어나 2012년 입적했고 마하시 선원 출신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고려사의 법당에 마하시 스님과 꾼달라 비왕사 스님의 커다란 진영이 함께 모셔져 있다. 미얀마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나 존경하는 스님의 진영을 어느 곳에서나 모시기를 좋아한다. 현재 고려사의 혜송 스님의 은사이기도 한 것이다.

새벽예불 후 어둑어둑한 아침에 고려사 선원장 스님과 혜송 스님을 따라 갔다. 대로에 스님의 커다란 영정과 사리함 3개를 이운하는 차량이 멈추어 있다. 길가는 사람들도 모두 합장 정례해 있다. 어떤 사람은 스님의 사리함을 실은 차량을 향해 반복적으로 절을 한다. 어떤 사람은 차량 안에서 시종일관 합장하며 사리함을 실은 차량을 천천히 뒤 따르고 있다. 거리의 청소부는 빗자루를 곁에 세워두고 눈을 감고 합장한 채 멈추어 서 있다.

다시 양곤강에 도착하자 큰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량으로부터 황금색 사리 단지를 배로 옮긴 후 포구로부터 멀리 강의 중심까지 물을 힘차게 가르며 나아갔다.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화, 장미 등 온갖 종류의 꽃들을 준비해 와 강에 흩뿌렸다. 여기에서는 재가자가 다비식을 주관했던 것과 달리 스님이 마지막으로 3개의 사라함을 차례대로 강물에 던졌다. 이 때 예기치 않게도 탑승한 모든 사람들은 환희로운 탄성을 질러 놀랐다.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온갖 꽃들 사이로 던져진 사리함은 유유하게 흘러간다. 이를 사진에 담으려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요란하다. 이로써 선지식의 장례식은 모두 끝났다.

이내 궁금했다. 한국처럼 따로 스님의 사리탑을 조성하지 않는 것일까? 이를 혜송 스님께 물었더니 "따로 사리탑을 조성하여 모시지는 않는다"고 답이 돌아왔다. 생각해보니 미얀마 사찰에서 스님들의 진영은 많이 봤지만 사리탑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의 사리를 모두 강물에 던지고 따로 남는 것은 없다. 다시 왜 그러한지를 묻자 "사람들이 스님의 사리를 신앙대상으로 간주하여 영험 유무를 따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는 덕 있는 스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봄날의 료안지. 석정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단순한 공간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상당수의 현대 작가들은 석정에서 동양적 서정성을 체험했고, 선불교의 정신적 특질을 그들의 작품 세계에 차용하기도 했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열려진 초대'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⑨ 석정의 미학

료안지를 찾아 나선 아침은 고요하고 심심했다. 요시다 겐코(吉田兼好, 1283~1352)가 쓴 수필집 〈도연초〉 2백44단의 절제된 표현과 함축적인 글 속에는, 칼날 번뜩이는 전국시대를 살았던 일본 중세인들의 인생무상 정신과 자연, 인생, 생활, 학문, 정치, 예능, 풍속 등 다채로운 모습들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첫 머리로 시작하는 '무료하고 쓸쓸한 나머지' 는 일본 고전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서두라고 알려져 있다. 료안지(용안사, 龍安寺)는 일본 불교 임제종의 사찰이다. 일본 임제종은 간화선 수행을 중시하는 점이 우리의 조계종과 같다. 료안지는 기요미즈데라(청수사, 清水寺)나 킨카쿠지(금각사, 金閣寺)에 비해 관광객이 적어 상대적으로 한적한 곳이다.

료안지 인근의 땅은 원래 명문 후지와라 가문 소유였다. 헤이안 시대 말기인 11세기에 후지와라 사네요시가 쿄요지(鏡容池) 연못을 조성하였고 그 옆에 다이주인(大珠院)이라는 사찰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후일 전국시대에 이르러 호소가와 가츠모토가 이 땅을 얻어 1450년 료안지를 건립하였는데 전란 중 소실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료안지는 그 아들인 마츠모토가 1488년에 중건한 건물이다.

료안지의 석정과 같은 정원을 흔히 가레산스이(枯山水)라고 부른다. 연못이나 개울처럼 물과 관련된 요소들을 배치하지 않고 바위, 돌, 모래 등을 사용하여 자연의 경치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정원 양식으로, 주로 선불교 사찰에서 조성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담양 소쇄원처럼 개울을 두고 형성한 원림이나 궁궐 건축에서 연못이 있는 정원을 볼 수 있듯, 일본 역시 세도가의 정원은 주로 물을 가운데 두고 주변을 돌면서 감상하는 치센카이유(池泉回遊) 형식의 정원이 흔하다. 그러나 일본의 미를 대표하는 정원으로는 가레산스이 정원, 특히 료안지의 석정이 유명하다. 가레산스이가 당초 선종 불교의 사찰에 기원을 둔 정원 양식이기에 서양에는 '선의 정원(Zen Garden)' 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방장 건물 주변에 만들어진 회랑을 돌아 석정에 이르면, 아담한 네모꼴의 뜰에 곱게 깔린 흰 자갈과 여기저기 무심히 놓여진 여러 개의 바위들을 볼 수 있다. 빗으로 머리를 빗은 듯 가지런하게 고무래질 된 흰 자갈은 마치 바다의 잔물결과 같고, 그 물결치는 흰 자갈 뜰에 놓인 바위들은 물위에 떠있는 섬들을 연상하게 한다. 뜰에는 물이 없고, 화초도 없다. 오래된 누런 흙담과 살짝 드러난 바위 밑 땅에 드문드문 이끼가 끼어 있을 뿐이다. 툇마루에 앉아서 보면 얼른 느끼기는 힘들지만 이 정원은 관찰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 이것은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다.

이 정원에 놓은 돌은 모두 열다섯 개다. 그러나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돌 하나는 다른 돌에 숨겨져 열네 개의 돌만 보이도록 놓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관람객 중에는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돌의 개수를 세는 사람도 있다. 왜 유독 열다섯 개인지, 왜 한 개는 안보이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으나 정설은 없는 듯하다. 음력을 주로 사용하였던 동양에서는 15는 보름 즉, 완전을 뜻하는 숫자인 반면, 14는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며 결핍 또는 부족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에서는 '사물의 완성 뒤에는 붕괴가 시작된다' 는 사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숫자인 14를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크기의 정원에 여기 저기 돌을 놓다보면 하나가 겹쳐서 안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라며 석정의 돌 배치는 순전히 우연의 산물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방장 건물의 뒷편에는 우리나라 사찰의 감로수 물확과 비슷한 지소쿠노 츠쿠바이(지족의 준거, 知足の準距)라는 것이 있다. 맷돌처럼 둥근 돌의 가운데를 네모꼴로 파서 대롱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두는 것인데, 다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입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 '지족의 준거' 는 네모꼴의 물받이를 입구(口)자로 하여 오유지족(吾唯知足)이라는 네 글자가 합자되어 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조선시대 엽전과 흡사한 형태이다. 오유지족은 '만족함을 알라' 는 의미이다. 또 이것은 바닥에 낮게 설치되어 있어 몸을 구부려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의적 정화의식의 형식과 아울러 자기를 낮추는 겸양의 의미도 있는 듯하다.

겸양과 배려의 아름다움
일본 미의식 함축 표현
선불교 특징 '지족' 반영

석정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지족의 준거' 를 비롯해서 료안지의 여러 모습을 살펴볼 때는, 석정의 돌에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함을 아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마음가짐으로 깨달음을 향해가기를 일러 주는 보다 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편으로 석정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상당수의 현대 작가들은 석정에서 동양적 서정성을 체험했고, 이를 통하여 선불교의 정신적 특질을 그들의 작품 세계에 차용하기도 했다. 전위음악가 존 케이지는 연주 활동을 목적으로 교토를 방문한 이후,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작업을 남겼다.

지나치게 정돈된 작품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어렵고, 반대로 자연스러움을 너무 강조한 예술 작품에서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렵다. 이 정원은 시각적으로는 정돈된 균제미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균제와 자연미의 개념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독특한 미적 특질 또한 지니고 있다.

문예, 극예술, 회화, 정원, 다도 등 예술미에 관련되는 많은 영역에서 일본의 미의식을 함축한 미적 개념으로 모노노아와레(物の哀れ)가 있다. 모노노아와레는 바로 옮기자면 사물에서 느껴지는 애상, 비애의 감정을 가리키지만, 모노(物)라는 말은 일본어에서는 단순히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물, 사건, 사실들을 함축하여 사용되는 어휘다. 18세기 일본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견해를 인용하자면, 모노(物)는 객관적 대상세계를 뜻하는 의미지만, 인간의 주관적 정념인 아와레(哀)를 매개로 상호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독특한 정취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예술적 대상과 그것을 향수하는 주체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전체로서 물심여일의 세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 미술계에서 한국 태생의 미술가로 주목받는 이우환 작가는 일본 현대미술의 중요한 사조 중의 하나인 모노하(物派) 그룹의 주요한 한 사람이기도 하다. 모노하 미술운동의 바탕에는 모노노아와레의 미적 사상이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미적개념으로 유겡(유현, 幽玄)이 있는데, 이를 최대한 한자의 원래 뜻에 가깝게 옮기자면 '그윽하고 어두운' 그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말의 '멋' 에 해당하는 개념을 외국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유겡의 개념도 일본의 문화, 예술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모노노아와레와 마찬가지로 유겡도 일본의 예술을 이해하는 주요한 개념 중 하나다.

"유겡은 사념에 잠긴 슬픔으로 물들어져 포착하기 어려우면서도 의미있는, 다시 말해서 절반이 드러나거나 암시된 미(美)라는 의미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오로지 돌과 자갈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원이 있다. 그 정원은 한 조각의 물질적 자연이지만 우리들을 정관적(靜觀的) 존재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비교미학연구〉, 엘리엇 도이치, 민주식 옮김, 미술문화)

정관(靜觀) 즉 '고요히 바라보기' 는 석정의 미적 특질이다. 응시하는 사람의 시선은 반짝이는 하얀 자갈과 켜켜이 세월이 쌓여 풍화된 몇 개의 돌들을 향하고 있으나,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내면세계를 관조하는 하나의 명상이 된다. 이것이 석정의 모노노아와레이다.

말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말을 넘어선 '포착하기 어려운 아름다움' 이것을 석정의 유겡이라고 할 수 있겠다. 료안지의 석정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열려진 초대' 와 같다. 어딘가에 있을 열다섯 개의 돌 중 보이지 않는 하나를 찾으려고 애썼으나 결국 나는 보지 못했다. 벚꽃 흐드러지게 지는 어느 봄날, 교토 료안지의 석정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지는 벚꽃 가지로 돌아간다 보았더니 나비로구나.
落花枝に歸ると見れば胡蝶かな。
아라키다 모리타케 (荒木田守武, 1473~1549)

〈미술학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진정한 제자가 있어 스승은 빛난다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④ 삼처전심(三處傳心)과 공문십철(孔門十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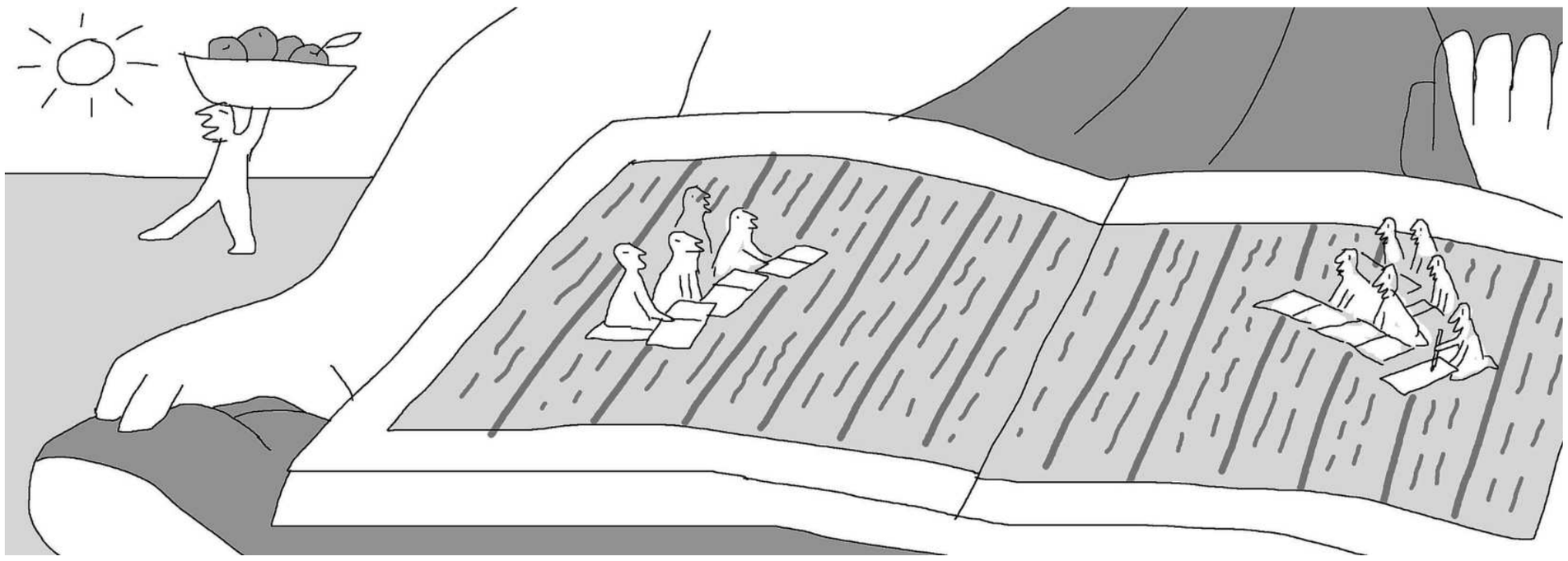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큰 스승이 부재하는 세상

큰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내가 사는 남해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오면 지신밟기 행사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풍물패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한 해의 안녕과 건강, 풍년과 풍어를 비는 굿마당이 열린다. 작년부터 나는 '고현집들이굿놀음보존회' 라는 모임에 들어가 풍물을 배우고 있다. 몇 달 동안 상모를 돌리고 상쇠의 꽹과리 소리에 맞춰 소고를 치면서 군무(群舞)를 펼치는 과정을 익혔다. 남해에서는 이런 일들을 '매구' 라 부르는데, '매귀(埋鬼)' 라는 한자어가 토박이말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나는 이 날 처음으로 복색을 갖추고 사흘 동안 남해 곳곳을 함께 돌면서 지신을 밟았다. 이제 막 가락을 뗀 처지니 어설프기 그지없었지만, 그래도 어르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흥겨움을 만끽했다. 매구 단원 분들은 내게 뭔가를 하나라도 더 익히게 해서 어엿한 고수(鼓手)로 만들려고 항상 애를 쓰셨다. 뒤늦게 풍물을 배우는 내게 매구패 여러분들은 모두 나의 소중한 스승이나 마찬가지다.

매구를 익히고 지신밟기를 하면서 나는 '용장밑에 약졸 없다' 는 명구를 실감했다.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기른다는 속뜻이겠는데, 잘못된 발 움직임이며 상모 돌리는 요령, 소고를 치는 위치 등 한 번 몸에 배면 쉽게 고치지 못할 버릇들을 좋은 스승들 덕분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 당나라 때의 문인 한유(韓愈)는 〈사설(師說)〉이란 글에서 스승이란 글자 읽는 법을 알려주는 이가 아니고, 도를 전하고 의혹을 풀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니 이 분들은 내가 만난 훌륭한 스승이다.

그러다 문득 이 세상에 이런 참다운 스승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있기나 한지 하는 의문이 일었다. 돌아보면 세상에는 한 가락 한다는 고수들이 너스레를 떨면서 스승 노릇을 자처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겪어 보니 위선이 가득 했고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바늘구멍만한 지식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 변변찮은 주장이나 내세우면서 대가 인척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좋은 스승도 만나기 어렵지만, 좋은 제자 구실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줄탁동시(啐啄同時)란 말이 있는 것처럼 원래 좋은 스승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시절인연이 닿아야 스승이든 제자든 빛이 난다고 나는 믿는다. "나귀를 강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못한다"는 속담처럼 스승이 아무리 기염을 토하며 가르쳐도 배우는 제자가 열의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나 열정적인 스승과 열의 넘치는 제자가 제대로 만나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놀라운 교학상장(敎學相長)의 효과가 일어나고야 만다. 스승이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스승을 만드는 것이다.

제자들로 더욱 빛나는 부처님과 공자

석가모니 부처님과 공자는 모두 인류가 낳은 위대한 스승이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깨우침과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이어받고자 한다. 세계 4대 성인이라는 부처님과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는 모두 훌륭한 교사였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파했다. 마른 샘물에서 물이 흘러 바다를 이룰 수 없듯이 스승이라는 샘물의 물을 모으고 흐르게 한 제자들이 있었기에 가르침의 바다가 이뤄진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은 많은 제자를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인도했지만, 그 중 10대 제자가 특히 손꼽힌다. 지혜제일(智慧第一) 사리불(舍利佛, Sariputra, 브라만 집안 출신), 신통제일(神通第一) 목건련(Maudgalyayana, 브라만 집안 출신), 두타제일(頭陀第一) 마하가섭(摩訶迦葉, Mahakasyapa, 계율과 금욕에 밝았음), 천안제일(天眼第一) 아나율(阿那律, Aniruddha, 석가모니의 사촌, 장님이 되었지만 심안(心眼)을 얻음), 다문제일(多聞第一) 아난다(阿難陀, Anandam, 석가모니의 사촌동생, 시자로 있어 부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음), 지계제일(持戒第一) 우바리(優婆離, Upali, 노예 이발사 출신, 계율에 정통했음), 설법제일 부루나(富樓那, Purnamaitrayaniputra, 변설이 뛰어나 포교에 힘씀),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須菩提, Subbuti, 브라만 집안 출신, 성질이 사나웠지만 공의 뜻을 가장 잘 이해했음), 논의제일(論議第一) 가전연(迦旃延, Katyayana, 서인도 아반티(Avanti)국 사람, 불교이론에 밝았음), 밀행제일(密行第一) 라후라(羅喉羅, Rahula, 석가모니의 맏아들, 남몰래 수행에 힘씀)가 그들이다.

이들은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나름이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부처님이 미처 못 밝힌 지혜와 마음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불교 교단이 완성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출신 · 신분 제각각 불제자
불교 교단 완성 밑거름
허물 털고 탁마해 대중 이익을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그 말씀을 경전으로 정리할 때 설법을 외워 전한 아난다도 대단하지만, 마하가섭만큼 부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은 제자도 드물 듯하다. 부처님과 가섭 사이의 비범한 전법의 실상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삼처전심' 이 있다.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자리 반을 내줌), 영산회상거염화(靈山會上擧拈花, 영취산에서 꽃비가 내리자 부처님이 꽃 하나를 드니 가섭이 미소를 지음), 사라쌍수곽시쌍부(沙羅雙樹槨示雙趺, 사라수 앞에서 열반에 드신 뒤 가섭이 늦게 오자 관에서 두 발을 내밀어 보임)라는 말로 축약되어 전하는데, 이런 연유로 부처님 마음의 종지인 선법(禪法)을 이어받아 선불교의 제1조가 되었다.

공자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다. 전하는 말로는 3천 제자가 있었다고 하고 이름을 남긴 제자만도 72명이라니, 역시 적지 않은 제자가 그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 중 열 명의 제자가 특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덕행(德行)과 언어(言語), 정사(政事), 문학(文學) 등 그 능력에 맞춰 사과(四科)에 각각 배정되었다. 숫자가 열 명이라 공문십철이라 불리는데, 〈논어〉 선진편(先進篇)에 실려 있다.

"옛날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문하에 있지 않구나. 덕행엔 안연과 민자건, 염백우와 중궁이요, 언어에는 재아와 자공이며, 정치엔 염유와 계로였고,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가 뛰어났다.(從我於陳蔡者 皆不及門也 德行 顔淵 · 閔子騫 · 冉伯牛 · 仲弓 言語 宰我 · 子貢 政事 冉有 · 季路 文學 子游 · 子夏)"

죽었을 때 대성통곡했다는 안연이 가장 공자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계로로 나오는 자로(子路)가 진정한 제자였다고 생각한다. 자로는 공자보다 9살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원래 이단을 섬기다 공자와 논쟁한 뒤 설복되어 문하에 들어왔다. 누구보다 실천을 중시하고 타협을 싫어했던 그는, 결국 위(衛)나라의 정변에 뛰어들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 온건하고 내면적이었던 안연이 공자우파의 전통을 이었다면, 적극적이고 의분이 강했던 자로는 공자좌파를 대표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가 무성하면 못된 그늘도 드리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다. 이처럼 많은 제자를 열성으로 키워 깨우침을 열고 지혜를 전했지만, 늘 좋은 제자만 있을 수 없는 게 교사의 숙명이기도 하다. 앞에 부처님의 십대제자에 들었던 아나율은 설법하는 부처님 앞에서 졸다가 크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십대제자가 이랬으니, 나머지 제자 가운데 이래저래 부족한 제자가 없을 리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포살(布薩)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 스님들이 매달 15일과 30일에 모여 계경(戒經) 외는 소리를 들으면서, 보름 동안 지은 죄를 참회해서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수행법(修行法)이다. 허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으면 그때그때 털어버리고 새로워지라는 가르침이었다.

공자에게는 더 큰 골칫거리 제자가 있었다. 재여(宰予)라는 제자인데, 역시 낮잠을 자다 된통 혼이 났다. 공자와 이런저런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여 눈 밖에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꼴을 본 공자가 "썩은 나무에는 무엇도 새길 수 없으며, 분뇨가 섞인 흙으로 만든 담에는 흙손질을 할 수 없으니, 재여에게 더 이상 무엇을 꾸짖겠는가(朽木 不可雕也 糞土之墻 不可杇也 於予與何誅)"라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 부었다. 공자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나 보다.

부처님이든 공자든 두 분 다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인격을 지녔고 덕행을 실천했다. 그 지혜와 지성을 세상에 펼치면서 제자들을 육성하는 일에도 심혈을 쏟았다. 그 덕에 우수한 제자들이 배출되어 오늘날의 불교와 유교가 성립되었다. 제자들을 가리지 않았고, 가르칠 때 최선을 다했다. 제자들 역시 스승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을 도울 때 남도 나를 돕는 법이다. 남을 도우면 남은 내게 양보한다. 내가 남을 훈계하고 훈육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할 때 나는 더욱 그릇이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소설가〉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 이지만 소리가 월등하고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사찰에 시설이 되었던 시스템을 차에 그대로 재현하였으니 염불 인생들은 이 소리에 내 염불을 한 번 실려 보시지요.

▣ 본품은 염불전용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A/S는 본사의 생명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청 락**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 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 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나인과 동고동락… 눈높이 중생제도

〈癩人 · 나병환자〉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④ 공감능력 선지식들: 지암 · 혜명

우두종 2세 윤주 지암은

"중생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무위(無爲) 세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중생의 고픔을 없애기 위해 유위(有爲) 세계를 저버리지 않는다."

–〈유마경〉 '보살행품'

타종교와 달리 스님들은 성직자가 아닌 수행자라는 타이틀을 걸머진다. 즉 출가하면서부터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발원이 아닌 자신의 생사해탈을 위해 출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초기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이 사바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최고 지향점으로 한다. 곧 '회신멸지(灰身滅智, 깨달은 성자는 당연히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열반론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늘 아픔과 고픔 속에 서성인다. 이로인해 대승불교에 와서는 해탈 열반 경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무한한 마음, 대비(大悲)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여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승불교에서 보살 사상이 강조되었다. 곧 적멸세계가 최고가 아니라 깨달은 뒤에는 다시 중생세계에 돌아와 중생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현 시대에 맞는 중생과 함께함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필자 입장에서 내리는 답변이 있다. 이 시대는 감정을 공유할 줄 아는 진정성과 공감능력을 가진 수행자, 바로 이런 공감이 깊은 수행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신라시대 원효와 동시대 인물인 대안 스님이 있다. 원효가 대안을 만나기 위해 굴로 찾아갔는데, 대안은 없고 너구리 한 마리가 죽어있고 그 옆에 새끼 너구리가 슬피 울었다. 원효는 너구리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아미타경〉을 염하였다. 이때 대안이 들어와 이렇게 말한다. " 새끼 너구리가 경을 알아듣겠소"하면서 대안은 동냥해서 얻어온 젖을 너구리에게 먹이며, 원효에게 말했다. "이것이 너구리가 알아듣는 〈아미타경〉입니다."

바로 이 점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진리를 설할 것이 아니라 빵을 주고, 자식 잃은 사람에게 법이 아니라 손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런 공감능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오래전 공감의 귀감이 되는 선사가 있다. 우두종의 윤주 지암이다.

윤주 지암(潤州智巖, 577~654)은 선종사에서 우두 법융(牛頭法融, 594~657, 4조 도신의 제자)의 법을 받은 우두종 2세라는 이름이 문헌에 전한다. 지암의 생애와 단편적인 사상은 〈경덕전등록〉 4권에 수록돼 전할 뿐이다.

지암은 강서성 단양 곡아(江蘇省 丹陽 曲阿) 출신으로 젊었을 때, 군인으로 지혜와 용맹이 매우 뛰어났다. 신장은 7척 6촌이었다.

그는 어릴 적,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상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과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는 수나라 대업년간(大業年間, 605~616), 20세 무렵에 무인(武人)이 되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전공을 세워 40세에 중랑장 지위까지 올랐다. 어느 날, 그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영광과 명예를 얻는 군인이 무슨 의미 있는 삶인가?'를 깊이 궁구했다. 지암은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훌륭한 군인이 된다는 것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덕년간(無德年間, 617~626) 나이 40세가 넘어 서주(舒州) 완공산(皖公山) 보월(寶月) 선사 문하에 출가하였다.

어느 날 선사가 좌선을 하고 있는데, 키가 10자가 넘는 승려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나이 40세가 넘어 출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열심히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후부터 지암은 더 열심히 정진했다. 그러다

속인 당시 武人이었던 윤주 지암
우두 법융 문하서 大悟 · 법맥받아
나인촌 머물며 법문… 78세 입적

깨달은 후 중생제도하는 '입전수수'
공감능력 가진 수행자 필요한 시대



우두 법융 문하에서 깨달음을 얻고 법을 이은 윤주 지암의 진영. 속인 시절 무인이었던 그는 출가해서 대오하고 우두종 2세가 된 후에는 나인촌에 들어가 평생 나병환자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법을 설했다. 이처럼 공감능력이 있는 수행자가 현대사회에는 필요하다.

깊은 산골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지암이 계곡 물에 잠기었다. 이런 와중에도 지암이 태연스럽게 선정에 들어 있자, 계곡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이때 지나던 사냥꾼이 이 모습을 보고, 지암에게 감동을 받아 엉겁결에 지암을 향해 합장하였다. 사냥꾼은 자신의 직업을 반성하고 참회하였다.

지암이 출가한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옛 지인들이 찾아왔다. 그 지인들은 옛 전장에서 함께 한 동료들로서 지암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쳤느냐, 자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산 속에서 고행을 한단 말인가? 그대가 다시 무인의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라."

지암은 오히려 옛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친 사람이었던 내가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정말 미쳐 있는 겁니다. 색(色)을 좋아하고, 소리에 현혹되며, 명예를 탐하고, 첩을 탐하는 것은 생사에 유전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대들은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가?"

옛 벗들은 감동을 받고 물러갔다. 이후 지암은 완공산 건업(建業, 현 강소성 남경)으로 돌아가 근교에 머물고 있던 우두산의 우두 법융 문하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법맥을 받았다. 법융은 지암에게 말했다.

"나는 4조 도신의 법을 받아 모든 번뇌를 끊었다. 깨달음도 꿈속의 환영과 같은 것이다. 너의 경계에는 하나의 티끌이 날아서 하늘을 덮는 일도, 하나의 먼지가 떨어져 땅을 감추는 일도 없어졌다. 이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이 우두산의 법문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후 지암은 우두종의 2세가 되었다. 후에 지암은 법을 혜방(慧方)에게 전하고, 석두성(石頭城, 남경 청량산)으로 들어갔다. 석두성은 나인들의 주거 집단인 '나인방(癩人坊)'이다. 이곳에서 지암은 나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진리를 설해주었다. 그렇게 머물다 78세에 그 곳에서 입적하였다. 입적한 뒤에 스님의 안색은 생전처럼 똑같았고, 스님이 머물던 방에는 기이한 향기가 풍겼다고 한다.

지암 스님처럼 나인들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나인들의 아픔을 안아준 선사가 있다. 소림사 불타선사의 제자인 승조(僧稠, 480~560)이다. 승조는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활동하던 무렵, 수행하고 있던 승려이다. 도선(道宣)은 〈속고승전〉에 승조(〈열반경〉 '성행품'의 사념처법에 의거)와 달마의 수행법을 비교해 기록하였다. 승조는 만년에 호남성(湖南省) 청라산(靑羅山)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나병환자들이 많은 곳이었다. 나병환자들은 승조를 신통력이 뛰어난 선승으로 여기고 매우 존경하였다. 나병환자들은 악취를 풍기고 짓무른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는 손으로 승조에게 음식을 공양 올렸다. 승조는 이들의 공양물을 흔쾌히 받아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승조는 지암처럼 나병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을 제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공양을 받아먹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지암의 제자, 혜명

지암은 무인으로서의 삶을 접고, 생사해탈의 절대 경지를 지향했다. 지암의 법을 받은 사람으로는 월주사문(越州沙門) 혜명(惠明)이 있다. 혜명이 깊은 산중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이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차단되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다. 그는 7일간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견딜 수 밖에 없었다. 7일이 지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예로부터 사람이 먹지 않기를 7일 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살아 있다." 그는 이런 고행을 겪은 뒤에 더 깊은 수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산골 절벽을 찾았다. 절벽 부근 새끼줄로 나무에 묶은 뒤 새끼줄에 의지해 몸을 매달았다. 말 그대로 떨어지면, 바로 삶을 마감한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깨달음이 절박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단련이 있었기 때문에 해탈을 얻는다. 또 혜명은 형주(荊州) 사망산(四望山)에서 두타를 할 때, 두 마리 호랑이가 싸우는 가운데 들어가 화해를 시켰다고 하며,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옷 한 벌로서 생활하였으며, 어느 곳에 머물든 자유로운 삶을 누리었다.

지암과 혜명으로 본 초기 선사상

우두종의 지암과 혜명을 통해 중국 초기 선사상의 단면을 살필 수 있다. 첫째는 선과 선종이 뿌리 내리기 이전이나 이후 중국에서는 선사들을 신이한 존재로 묘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혜명이나 승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스님이 호랑이를 타고 있거나 호랑이나 사자 등을 제도하는 모습의 그림이 대부분이다. 물론 보리달마에 관한 달마도도 대부분 신이한 모습이다. 곧 중국에서 선이 처음 발달하는 무렵, 선을 신통방술처럼 묘사하였다. 이 점은 승려가 신통력을 나타내서가 아니라 신통있는 승려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생을 보살펴준다는 일종의 요청에 의해서 선사들을 신이한 모습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둘째는 선을 지혜적인 측면으로 보지만, 자비(실천적인 측면)를 겸비한다. 이 사상이 바로 십우도에서 마지막 그림인 '입전수수(入纏垂手)'이다. 깨달음을 완전히 이룬 뒤 홀로 적멸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다. 운문종의 자각 종색도 〈좌선의〉 서문에서 "무릇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마땅히 대비심을 일으켜 큰 서원을 세우고, 정교하게 삼매를 닦되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요, 자기 한 몸만을 위해 홀로 해탈을 구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고려의 보조 지눌(1158~1210)은 수선사에서 결사를 하면서 승려들의 청규인 〈계초심학입문〉에서도 환도중생(還度衆生)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 장원심 스님도 굶주린 백성에게 밥을 주었고, 걸인들에게 옷을 주며, 잠잘 곳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환자를 보살피는 일을 하였다.

승려들이 자신의 해탈만을 지향하여 중생들의 삶을 외면했다고 하지만, 수백년 전에도 공감능력이 뛰어난 전법 승려들이 존재했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에서 전법을 강조하는 점도 바로 이 시대, 공감능력의 승려를 키우고자 함이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제1기

불교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불교대학원에서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각단 불교의식 과정(초급) | 6개월 | 범음범패 과정(중급) | 1년

교육안내 6개월 과정 수료 후 **수료증**, 1년 과정 졸업 후 **법사 호품수증서**를 수여해 드립니다.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초발심자경문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모집안내 문 의 : 055-342-3679 / 010-4940-8979 / 교육원 010-9326-6071

- 모집대상 : 스님 및 출가예정자, 재가자, 사찰운영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개강일시 : 2019년 3월 9일 (토) 오후 2시
- 수업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장 소 :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299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고즈넉한 산사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불모산 관음정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하세요.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합장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행하지 말라



新 불교사자성어

⑧ 제악막작(諸惡莫作)

'악을 행하지 말라' 는 뜻이다. 제악막작(諸惡莫作)은 〈법구경〉 등에 나오는데,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 의 첫 구이다. '악한 일은 일체 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이라는 뜻이다.

'악을 하지 말고 선을 하라' 는 것은 지고한 가르침이다. 특히 선은 모든 종교, 철학에서 추구하는 진리인 동시에 사회질서를 이끌어 가는 윤리,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환경적 요인이든 자의적, 타의적이든 선(善)보다는 악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은 악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짜뉴스나 모함, 악의적인 댓글, 원색적인 비난도 오늘날에는 남을 괴롭히는 큰 악이다. 그 피해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또 선행도 좀 하면서 살아가면 보람 있는 삶이 되는데,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내가 왜 해?' 라고 하면서 선(善)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악은 행동적, 언어적, 생각으로 짓는 3가지 악이 있다. 행동적인 악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사기 범죄 등이 있고, 언어적인 악은 모함, 비방, 폭언, 거짓말, 중상모략, 가짜뉴스 등이 있고, 생각으로 짓는 악은 증오심, 분노 등이 있는데, 분노, 증오심이 쌓이고 쌓이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 1위 국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사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범죄사건을 통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가운데 '사기 범죄 1등 국' 이라는 불영예를 안았다. 사기에 관해서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인터넷을 통한 경제사기, 금융사기가 극심했고, 부동산사기도 많았다. 윤리의식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세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牛) 도둑이 된다' 는 말이 있다. 작은 악도 반복하다 보면 도덕적 감각, 죄의식이 무너져서 악이 마음을 장악한다. 나중에는 제법 대범해져서 사회나 대중 등 서민들을 상대로 몇백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다. 사기는 악덕 경제 범죄로, 강도, 강간, 살인, 모함 등과 함께 5대 사회악의 하나이다. 부부 사기단 등 집단 사기단은 아마도 전생부터 맺은 깊고 깊은 인연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악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절대 하지 말라[諸惡莫作]고 말씀하셨다. '악화(惡貨)가 양화를 구축한다' 는 토머스 그레셤의 말과 같이 악은 선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악이 앞서는 한 선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악은 잡초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란다. 수시로 뽑아내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 죽는다. 잡초는 곡식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하다. 씨를 뿌리면 곡식보다 먼저 올라와서 밭을 장악한다. 귀찮다고 방치해 버리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농부는 매일 같이 밭에 나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의 악을 제거하고 선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악행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다. 때론 치명적이어서 한 인생이나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특히 사기, 강도, 강간, 살인 같은 경우는 한 가정을 슬픔에 빠지게 한다.

욕망, 욕심이 많고 게다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의식이 없으면 악에 빠진다. 자신의 마음에서 악이 싹트려고 할 때 과감히 잘라 버려야 한다. 악을 자르는 무기는 선악에 대한 명석한 분별력, 지혜, 현명함, 가치관 등이다.

선과 악은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낳았다. 맹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하려는 마음씨, 즉 도덕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는데, 성선(性善)을 표방해야만 우리의 인성이 악을 버리고 선(善)으로 가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악이라는 것이다. 순자의 '청출어람' 이라는 명구는 교육을 통하여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인성이 형성되는 사회적 조건에 주목했고 교육의 효과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설두 뜻 알면 안목 뛰어나게 돼"



격절록 강설

⑧ 제2칙 설봉보청(雪峯普請 · 설봉의 대중울력) 2

[評唱 2]

只如 雪峯普請處 踏倒這僧. 歸舉似長生 長生是箇活潑潑地漢 便道 "和尚也須替這僧 入涅槃堂始得" 只這雪峯老漢 也好當時便休去 到這裏 作麼生湊泊也. 須是三根椽下五尺單前 靜坐究取始得.

설봉이 대중울력 하던 곳(普請處)에서 이 스님을 밟아버렸다. 그리고는 돌아와 장생(長生)에게 (앞의 일을) 전했는데, 장생은 활발발(活潑潑)한 사람이라서 곧장 말하기를 "화상께서야말로 모름지기 이 스님 대신 열반당에 들어가셔야 합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때) 다만 이 설봉 노장이 당시에 바로 쉰 것(休去)도 괜찮았지만,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겠는가? 모름지기 삼근연하 오척단전(三根椽下 五尺單前, 선상)에 고요히 앉아 참구해야 한다.

看雪竇老婆 拈似與諸人. 到這裏見得去 自然打著南邊動北邊 纔拈起 便眼卓朔地. 雪竇拈掇 他這因緣 人多邪解 別生知見義路 只管解將去 殊不知雪竇意元不如此. 且道 他意在什麼處. 也好與一踏. 且莫錯會.

설두가 노파심으로 (이 공안을) 염해서 모두에게 보여 준 것을 보라! 여기에 이르러 (설두의 뜻을) 보았다면, 남쪽을 치니 저절로 북쪽이 움직여서 염하자마자 바로 안목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설두가 문제를 제기한(拈掇)이 인연을 사람들이 대부분 그릇되게 알고, 따로 지견(知見)과 의로(義路)를 일으켜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 설두의 뜻이 원래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 말해보라! 설두의 뜻(雪竇意)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다 이러쿵저러쿵하는 놈들은 모두 다) 한 번 밟아버려야 한다. 그러나 또 잘못 알지 말라.

✻장생교연의 활발발(活潑潑)에 관해 몇 가지를 소개한다(전등록 제 18권, 복주 장생산 교연 선사 편).

①설봉이 (장생에게) 물었다.

"경을 수지한 이는 능히 여래를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여래를 짊어지는 것인가?"

(그러자) 장생이 이내 설봉을 방망이로 치고는, 선상禪床 위에 놓았다.

②설봉이 (장생에게) 물었다.

"빛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면, 또 이것은 어떤 것(무슨 물건)인가?"

스님이 말했다.

"교연(皎然, 저)의 허물을 용서해주시면 감히 상량해보겠습니다."

설봉이 말했다.

"그대의 허물을 용서해주면 어떻게 상량하겠는가?"

스님이 말했다.

"교연 또한 화상의 허물을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설봉이 깊이 인정하고, 뒤이어 수기를 했다. (후에) 장생산에 머물면서 교화를 베풀었다.

✻남쪽을 치니 (저절로) 북쪽이 움직인다(打著南邊動北邊)는 표현은 진대(晉代)의 승려 배도화상(杯渡和尙, 322~400)의 일발가(一鉢歌)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략) 打著南邊動北邊 若覓法鷄足山中問迦葉 大士持衣在此中 本來不用求專甲 (중략)

남쪽을 치니 (저절로) 북쪽이 움직이는데 / 만약 법을 찾는다면 / 계족산 중의 가섭에게 물어라 / 대사는 옷을 가지고 이 속에 있지만 / 본래 한 벌의 옷도 구할 필요가 없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⑧ 믿음 편 8

정토신앙은 방편적 타력신앙

나는 수영을 못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수영장을 가본 적도 없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은 내게 자주 말씀하셨다. 내 사주에 물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런 때문인지 성인이 되어 어디를 놀러갈 때도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 는 아버님의 당부는 끊이지 않았다. 나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누군가 구해주지 않는 한 물에서 나올 수 없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도 수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 생로병사라는 고통의 바다(苦海)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존재다. 종교적 신앙은 바로 온갖 괴로움이 가득한 이곳(此岸)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저곳(彼岸)으로 건너가는 여정이다. 자력신앙은 우리 모두 수영을 해서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인간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의 은총에 의해서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 타력신앙이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교는 전형적인 유형의 자력신앙이다. 모두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수영을 못 하더라도 충분히 노력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면 고통의 바다에서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간은 스스로 수행을 통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붓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적어도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자력신앙과는 전혀 다른 유형을 보이기도 한다. 바로 아미타불(阿彌陀佛)이라는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에 의지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즉 정토(淨土)에 낳기를 바라는 신앙이 등장한 것이다. 정토신앙은 전형적인 유형의 타력신앙이다. 불교의 교조인 붓다의 교설과는 다른 입장이다.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라는 서로 이질적인 두 입장이 불교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붓다의 가르침과 타력신앙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깨달음을 본질로 하는 불교의 정체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대승불교에서는 붓다의 가르침과는 다른 정토신앙을 제시한 것일까? 여기에는 죄가 너무 깊어서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마저 모두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서원(誓願)이 담겨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모두 건지겠다는 것과 같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괴로움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존재다. 붓다는 누구나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영을 못해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충분히 수영해서 나올 수 있으니 힘을 내라고 할 것인가? 수영을 배우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는 말은 큰 용기와 격려가 되지만,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바다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구조대원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나처럼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진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특수 구조대를 파견하였다. 그들은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손을 내미는 존재를 방편으로 설정하였다. 그 구조대장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든든하면서도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가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정토신앙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정토에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타력신앙을 방편적으로 설정했다. 다양한 방편을 포용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얼마 전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위아래 모두를 발치하는 큰 공사를 했다. 발치를 할 때 물론 마취를 했지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나무아미타불' 을 염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문화관광부허가 제 2017-10호 법인등록 171321-0004642)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①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③ 차량등록 ④ 사암행정서식
⑤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일체서식
⑥ 민원에 도움 되는 서류 및 서식

입종구비서류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敎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송천동) 천룡사 | 전화 054)823-6777 | HP 010-4053-2722



영암 지장사 주지를 지낸 정법 스님은 생전, 사후 모두 인재양성에 앞장서왔다.

모든 것 주고 떠난 '참' 수행자

故정법 스님, 동국대에 유사 · 법구 기부

최근 세상을 떠난 한 비구니 스님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전 유산을 기부하고 법구까지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전남 영암 지장사 주지를 지낸 정법 스님이 그 주인공으로 스님은 지난 2월 17일 병환으로 입적했다.

정법 스님은 지난 2014년 "불교의 발전은 인재불사에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훌륭한 불교인재를 양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후 시신을 기증하고,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스님은 2012년부터 약 6300만원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기부했다. 입적 후에는 유산 1억4000만원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기증하고 법구 또한 동국대 의과대학에 교육용으로 기증했다.

2월 24일 오전 7시 경남 하동군 봉화사에서는 정법 스님의 49재 초재가 봉행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관계자들은 일생을 불교 발전과 인재불사를 위해 노력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보시행을 실천한 스님을 기리기 위해 초재에 참석해 감사와 애도를 표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가시는 길에 모든 것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맡기신 스님의 메시지는 오직 '참사람 인재를 키워 달라' 는 것"이라며 "정법 스님을 비롯한 기부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김활선 제 14대 불자가수회장 취임



제14대 대한불자가수회 회장으로 원로가수 김활선 회장<사진>이 취임했다. 대한불자가수회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4대 회장 취임식 및 축하공연을 진행했다.

김활선 회장은 대한불자가수회 제8대 및 제11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불자가수들 중에서도 원로급인 만큼 많은 가수들이 참여해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식 및 창립28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불자가수회 회원들의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흥을 더했다.

숭산 스님으로부터 대광(大光)이라는 법명을 받은 김활선 회장은 1957년 '어머니의 얼굴' 로 데뷔한 후 '무정열차' 와 '하룻밤 첫사랑' 등을 대중에 선보였다. 대한불자가수회 창립과 전국불자노래자랑 개최를 주도했으며, 그동안 조계종 포교사로서 군부대와 교도소 등 전법 일선에서 음성공양을 해왔다.

김활선 회장은 "대한불자가수회 창립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면서 "어려운 불자가수들의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불자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불자가수회는 이날 후원회장으로 박현진 씨를 위촉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인 고민해결 불교상담 활성화"



Interview

불교상담개발원 신임원장 선업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월 26일 이사회에서 임명
명상과 상담 분야 전문가
개발원 이사로 교육 맡아와

"불교상담은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상담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을 겪는 시기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핵심 가르침인 부처님의 사성제법을 통해서 그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고민 타파에 힘쓰는 불교상담개발원의 새로운 수장이 탄생했다. 조계종 통담선원 주지 선업 스님<사진>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2월 26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열린 제44차 정기이사회에서 신임원장으로 선업 스님을 선임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에 임명된 선업 스님은 "전임원장이신 가섭 스님께서 불교상담개발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셨고, 집행부도 열심히 일을 했다. 지금까지의 안정적인 기조를 잘 이어서 불교 명상과 상담에 보탬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임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조계종 통담선원 주지, 통담아카데미아 평생교육원장,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사)한국차명상협회 상임이사 등을 맡아 활동했으며, 그동안 (사)자비의전화, 불교상담개발원 이사로서 불교상담 및 불교명상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불교상담개발원은 2017년 가섭 스님 원장 취임 이래 불교계를 대표해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예방사업의 초석을 다졌다. 가섭 스님 임기 동안 다져진 사업적 기반 아래 불교상담개발원은 상담분야 지도자 양성 등 인적 네트워크 확충과 불자 인식 개선 등에 역주한다는 방침이다.

전임원장 가섭 스님은 선업 스님에 대해 "그동안 불교상담개발원 지도법사로 대중을 잘 이끌어 왔다. 스님께서 앞으로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대중을 화합하여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업 스님은 "올 한 해는 불교상담심리사와 불교명상지도사 배출에 전력하고, 기존에 해오던 디지털 과의존 예방활동 및 자살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생명살림 대법회,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자비의전화 상담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불교상담개발원이 진행하는 각종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화될 예정이다. 선업 스님은 "불교상담이야말로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최고의 상담이다. 특히 지금 시대에 학업, 취업 등으로 갈등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상담법이 바로 불교상담"이라며 보다 많은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해 전국 26개의 사찰에서 5000여 명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2018 생명살림 대법회' 를 개최하는 등 자살예방을 비롯한 생명존중운동을 펼쳐왔다. 또 2018년 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불교계 내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 신임원장 취임식은 이달 중 열린다.

"불자 지성 모아 현안대책 제시"

제18대 교수불자연합회장
김성규 영남대 교수 선출



"처음 불교에 입문할 당시 불교와 민족중흥이라는 원력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후 불교 신행활동을 하면서 이를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맡겨 주신만큼 중흥의 원력을 다시 되새기겠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성규 영남대 의대 교수<사진>는 이 같이 선출 소감을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김 교수는 2월 27일 조계종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성규 신임회장은 역량 있는 젊은 교수들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로 교수들이 활동하는 장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요즘 젊은 교수들이 연합회에 입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모색하려 합니다. 또한 원로 교수들의 혜안과 역량을 펼쳐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학진 등재 후보지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학회지〉를 특색 있는 학술지로 발전시킬 것과 매년 열리는 교수불자대회를 시대 현안에 맞는 불교적 대안과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지역 교수 모임 활성화를 통해 대학생 포교에도 매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역 불자 교수들이 대학별로 모임을 갖고 함께 불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대학생 불교 동아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교수로 있는 영남대 불교 동아리는 매우 활성화돼 있습니다. 원력 있는 교수가 있으면 대학 불교 동아리는 금방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성규 회장은 1987년 영남대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주고등학교 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1985년 대구에서 관음사 수요법회를 통해 청년 불교활동을 펼쳤으며, 1988년 법륜불자교수회, 영남대학교의료원불교신행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 현재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이사장으로 월간지 통섭불교와 통섭불교강의를 통해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화두〉〈이것이 불교다〉〈우리말 유마경〉 등 20여 권이 있다. 신성민 기자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추모

광주영산보존회, 강제징용자 천도재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회장 월인)는 2월 27일 광주 서구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성노예제 피해할머니와 강제징용 사망자 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에는 광주시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이수자 월인 · 호산 · 혜령 스님 등 30여 스님과 서대석 서구청장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북 서북부 포교활성화 박차

직지사-자비명상, 지역포교 업무협약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법보)와 사단법인 자비명상(이사장 마가)은 2월 26일 직지사종무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수 강사 활용 및 소양교육 △홍보 확대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지사는 신도회 행사를 통해 본말사간 유대감을 높이고, 경상북도 서북부 포교활성화에 나선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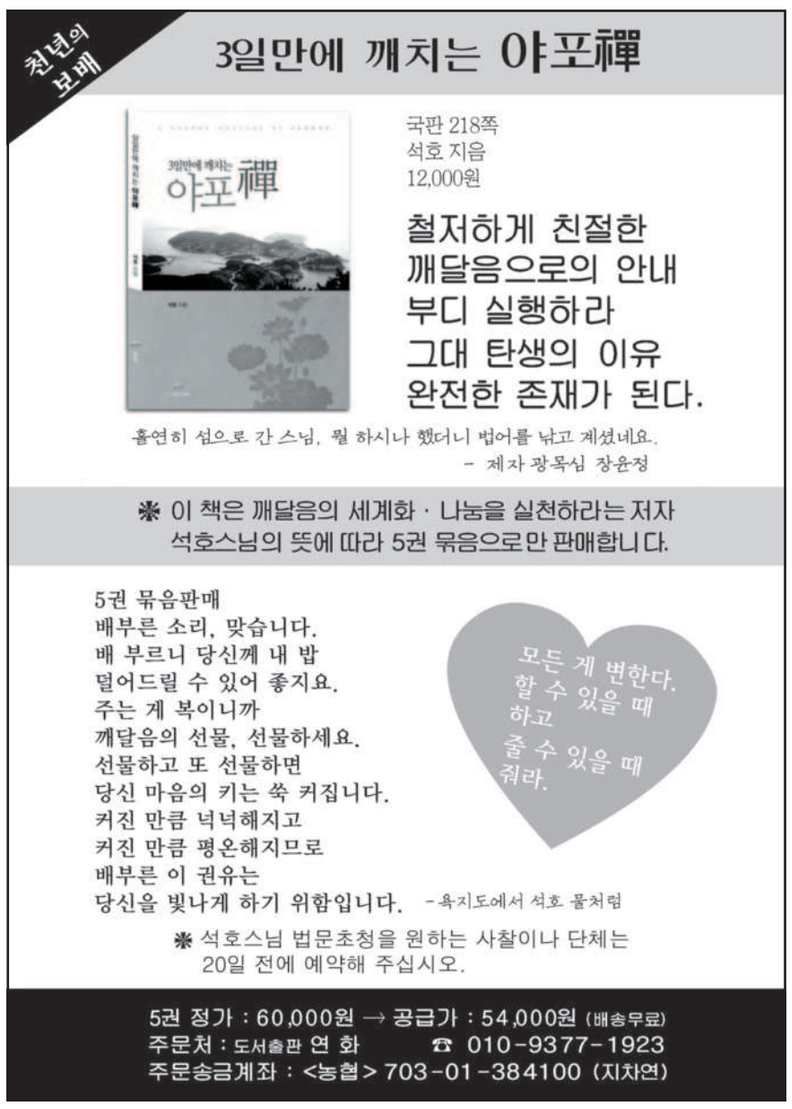
광주불교계 봉축준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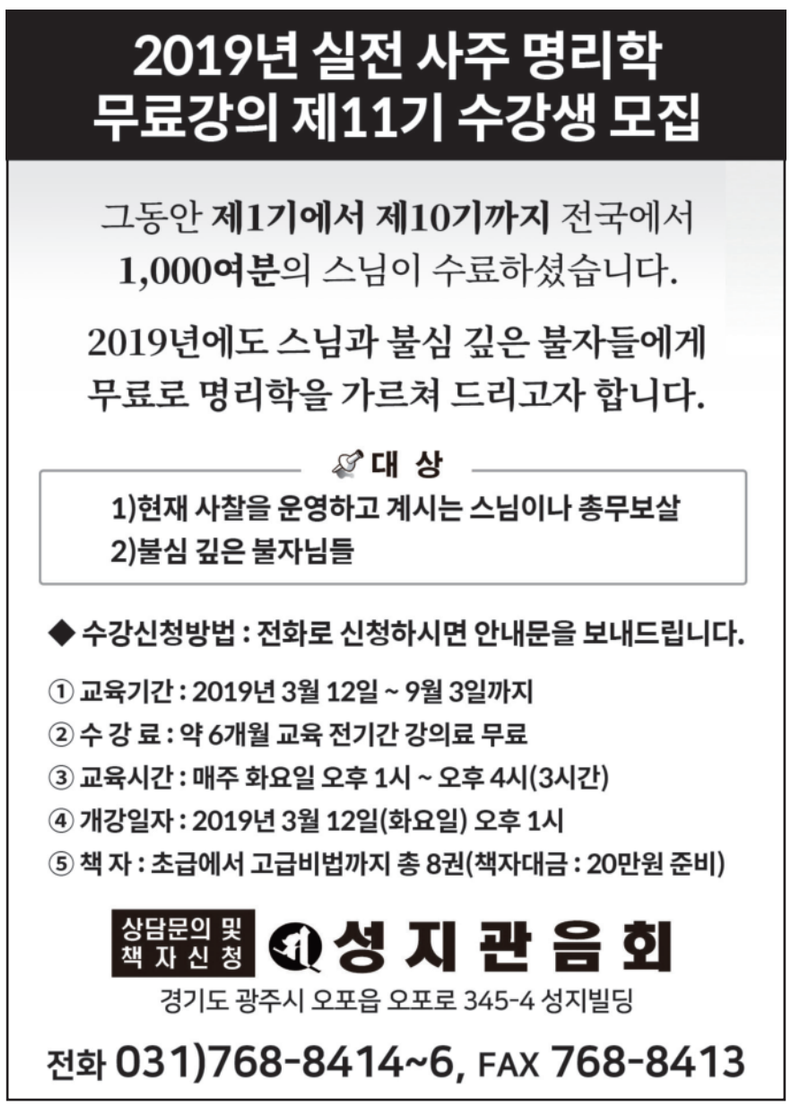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관등회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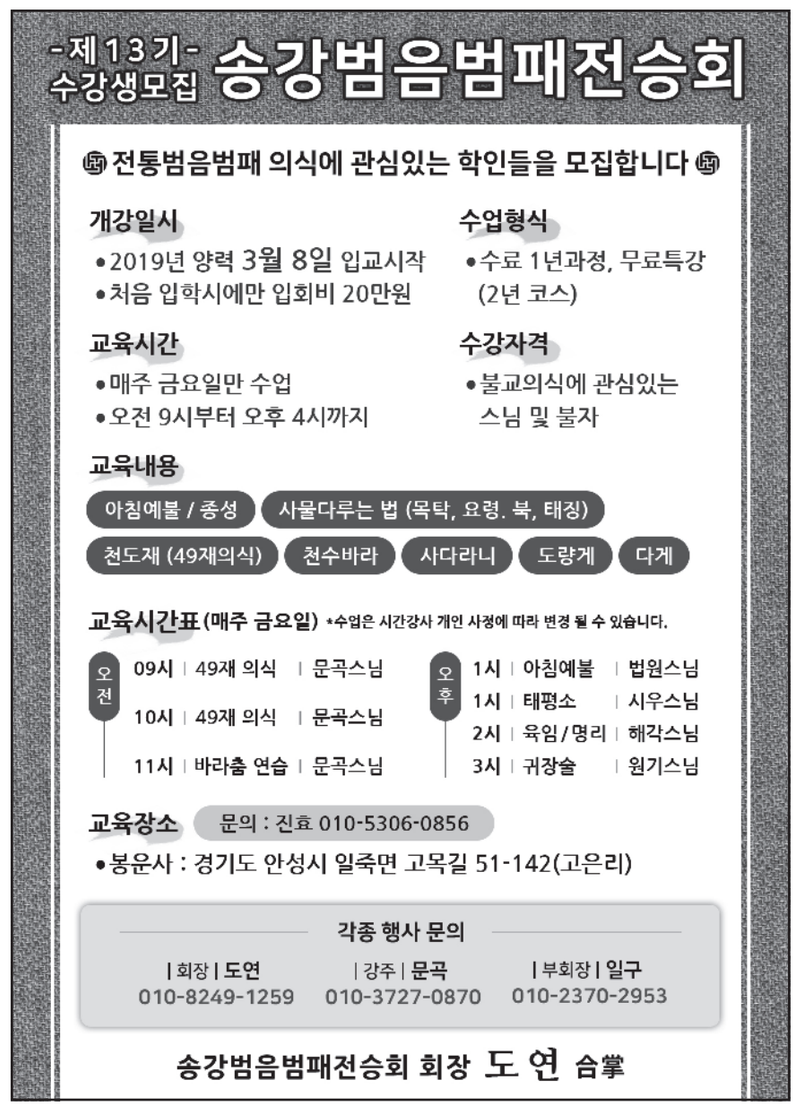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2월 25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강당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2019 빛고을관등회 워크숍' 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행사 의미, 행사일정, 점등식, 어울림한마당, 관등법요식, 제등행진, 대동한마당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설명과 올해에 변화되는 내용을 3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교토 고다이지에서 공개된 안드로이드 관음 '마인더'가 설법하는 모습.


마인더는 설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작도 가능해 참배객들의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산케이뉴스

관세음로봇 '마인더' 일본서 각광

교토 고다이지, 10억 원 들여 로봇 불상 제작

스님 · 안드로이드 교수 대담

'부처님 가까워질 방법' 고민

영상기술과 함께 법문 가능

중국어 · 영어자막도 표시돼

박영빈 객원기자

설법하는 안드로이드 로봇 불상이 탄생했다. 지난 2월 24일 일본의 '산케이 뉴스', '마이니치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은 이 특별한 불상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2월 23일 교토의 고찰 고다이지(高台寺)에서 공개된 관세음보살상은 '마인더'라고 이름 붙여진 로봇이다. 높이 195㎝, 무게 60㎏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됐다. 불상이 만들어진 계기는 고다이지의 고토 덴쇼 스님과 오사카대학의 이시쿠로 히로시 교수와의 대담에서 비롯됐다. 덴쇼 스님은 "이시카와 교수와 대담 중에 '부처님과 사람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불상 제작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담 끝에 덴쇼 스님은 최첨단 기술인 안드로이드 불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불상의 외형은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착안, 관세음보살이 로봇으로 화현한 모습을 이미지화 했다.

안드로이드 전문가인 이시카와 교수가 소프트웨어와 설계를 담당하고, 동체는 로봇전문회사 '에이랩'이 2017년 9월부터 제작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 1억엔(한화 약 10억원), 본체 제작비에만 2,500만엔(한화 약 2억5천만원)이 소요됐다.

완성된 로봇 관세음보살상은 실리콘으로 제작된 얼굴과 손을 제외하곤 안드로이드 골격이 그대로 노출되게 제작됐다. 고다이지 측은 "남은 부분은 참배자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다이지 대중스님들은 정식으로 점안의식을 봉행하고, 마인더 관음상의 첫 설법을 공개했다. 가상영상 기술인 프로젝션 맵핑을 배경으로 법문이 진행됐다. 프로젝션 맵핑 화면에는 법문과 관련된 이미지와 함께 법문내용이 중국어와 영어자막으로 표시됐다. 고다이지 측은 "절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불교를 전하고자 외국어 자막을 함께 표기했다"고 전했다.

마인더 관음상은 왼쪽 눈에 내장된 카메라로 참배자들을 확인한 후, 기계음으로 법문을 시작했다. 마인더 관음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해간다. 마음을 비우고 서로에게 의지하라"고 법문했다.

개발에 참여한 덴쇼 스님은 "마인더 관음은 어렵지 않은 평이한 말로 설법한다. 스스로 보고, 말하고, 움직이는 불상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다이지 측은 3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중학생 이상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마인더 관음상을 공개한다.

불교 두려운 중국의 '막행막식'

천으로 가리고, 佛頭 자르고… 도 넘은 훼불

중국의 종교 · 인권 잡지 '비터윈터(bitterwinter)'가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상 철거 · 훼손 자료를 입수해 2월 23일 공개했다.

비터윈터는 "중국 정부는 스님뿐만 아니라 불상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위협을 느끼지 않고서야 불상들의 철거, 훼손을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심지어 보호받아야 할 역사 문화 유적들에 대한 제재도 극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 동북 지방의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관내 현(县)급의 좡허(莊河)시에 위치한 천불동 명승지가 대표적인 피해 유적이다. 2018년 9월 당국이 "불상이 옥외에 설치돼 있고, 너무 커서 법에 위배된다"는 구실로 10m 넘는 불상의 철거를 명령했다는 것. 당국은 '아미타불' '중생제도' 등의 문구를 제거하고 불교기를 국기로 대체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중국의 대표적 불교 유적지인 천불동은 요나라와 금나라 때 형성됐지만 중국 정부가 '문화대혁명' 정책을 세운 후 대부분 훼손됐다. 2000년부터 불자들이 '천불동 재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화산 조사묘에서 나온 조사상 머리가 다수 잘린 모습. 사진출처=비터윈터

특히 당국은 고용한 철거 인력이 부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려워 공사를 꺼리자, 유적 관리인에게 직접 인력을 고용해 불상 철거를 종용했다는 게 비터윈터 측의 설명이다. 비터윈터는 "당국은 관리인이 이행할 때까지 감시했다"며 "다양한 크기의 옥외 불상들이 무더기로 강제 철거됐고, 붉은 천으로 감싸진 불상들도 있다. 같은 시기 주화산 관광지역 내 거대 불상들도 '무허가'라는 이유로 콘크리트 및 단열판 등으로 가려졌다"고 설명했다.

비터윈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 중부 후베이성 광수이시에서 나온 10여 명의 경찰들은 조사묘(祖師廟)에 들이닥쳐 대형 망치로 조사상을 부수고, 방해할 시 체포한다고 사찰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아일랜드 작가에 禪 알린 한국 스님은?

힐러리 퍼닌, 지역 언론에 혜민 스님과 인연 소개해



혜민 스님 덕분에 선(禪)에 대해 알게 됐다는 힐러리 퍼닌. 사진출처=아이리쉬타임즈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힐러리 퍼닌(Hilary Fannin)이 선불교를 처음 접한 일화를 아이리쉬타임즈와의 2월 22일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선(禪)'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던 퍼닌에게 미약하나마 '일상의 선'을 알게 한 것이 한국의 선 수행자라고 한다. 그를 선불교의 길로 안내한 수행자는 바로 혜민 스님이다.

그는 "어느 날 아침 하버드대에서 교육을 받은 한 선 수행자와 통화를 했다. 내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혜민 스님을 "트위터 팔로워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있는 스님"이자 "전 세계에서 약 4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로 표현했다.

퍼닌이 접한 혜민 스님의 저서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Love for Imperfect Things)이 대표적이다.

그는 "나는 사실 자기계발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평화'와 '만족'과 같은 (추상적인 것에 대한) 지침서는 더욱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대단히 미숙한 점이라는 걸 알지만 누군가가 내게 '긴장을 풀라'는 등의 말을 하자마자 펄쩍펄쩍 뛰고 싶다"면서도 "부처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한 혜민 스님의 책은 금방 선반 위에서 사라질 것(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직감했다"고 했다. 저서 내용 중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친구, 가족, 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등의 문구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그는 또 혜민 스님에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일을 알리는 것이 지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스님이 "피곤하지 않다. 항상 명상과 영적 수행을 위한 시간을 만들며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서 가르침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혜민 스님은 시차의 한계를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인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패닌은 혜민 스님과 '감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술회했다. "하루에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으라는 혜민 스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게 패닌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일상의 반복적인 고민들을 대하는 혜민 스님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패닌은 "스님에게 나처럼 (고민들로)밤에 잠을 설치는지, 수없이 반복하는 걱정들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물었다"며 "스님은 '우리가 모든 생각에 같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가 YFLO 회원들에게 법문하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계정 더 부디즘

"불자들, 여성 역할 제고 힘써야"

달라이라마, 뉴델리 여성단체 YFLO 강연서 강조

달라이라마가 여성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불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 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는 달라이라마가 2월 18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Young Ficci Ladies Organisation(YFLO) 단체서 온 75명의 여성 대표단과 가진 만남에 대해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인 인디라 간디 전 총리를 예로 들며 "정치 분야 등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자를 비롯한 인도인들은 공평한 성 역할은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에 설립된 YFLO는 전문적 · 기업가적 배경을 갖춘 젊은 여성들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 조직됐다. YFLO는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여성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자리서 한 청중은 티베트불교가 여성에게 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달라이라마는 "종교적인 이유와 사회적 관습의 결과에서 기인한 여성 차별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현재 게셰마(티베트 여성 출가자의 최고 학위)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독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國譯泰華禪學大辭典

1. 천안 평심사 淨圓和尙이 중국 · 대만 · 일본 · 한국 4국에서 발행한 근현대 불교사전류 20종을 대조 첨삭하고 여기에 대장경을 2회 열람하면서 수집한 禪學詞語를 增入하여 집대성한 초간본 사전의 증보판, 漢文 선학사전으론 세계 최다 최대.



2. 가로쓰기, 詞目의 가나다 순으로 원문을 수록하고 문단의 단락 따라 한글번역, 번역문 중 한자는 모두 한글 병기.

3. 범어와 파리어는 〈梵〉〈巴〉 표시와 함께 영문표기. 전체를 완역, 오류 1천여 곳을 訂正.

4. 네이버 · 다음 주 검색어 국역태화선학대사전 (1권 무료 다운로드)

총 10권 / 10,024쪽 / 詞目 42,235항 / 예문 34,068조 / 11pt / 4×6배판 / 하드 양장 / 정가 80만 원

· 구입문의 010-7566-7503 (정원) · 입금 우체국 311787-02-000518 (김호열)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강명희

〈2〉 1문–몸관찰

욕심이 몸 만든다… 관찰, 또 관찰하라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관(觀)입니다. 관은 위빠사나를 옮긴 말인데, 위는 가르다는 뜻이고, 빠사나는 가르고 갈라서 속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관은 우리 본연의 마음인 지혜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살피듯이,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직관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관을 꽂아서 집중하는 그 순간을 사띠(sati)라고 해요. 한자로는 염(念)이지요. 사띠해서 마음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사마타입니다. 한자로 번역하면 지(止)인데, 지식, 적정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 껍질을 벗겨서 마음이 드러난 상태가 위빠사나입니다. 마음은 느낌, 영상, 생각, 행위로 드러나요.

위빠사나하는 방법에는 몸을 관찰하는 것, 느낌이나 감정을 관찰하는 것, 마음을 관찰하는 것, 법을 관찰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은 대부분 몸을 관찰하는 것이지요. 관찰은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니, 몸관찰은 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몸을 본다고 해도 사실은 몸속의 마음을 보는 것이지요. 이걸 모르면 몇십 년, 몇백 년, 몇억 겁을 수행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나중에 지혜로 바뀌니 그렇지요. 업이 다 녹으면 마음이 관찰, 지혜라는 반야로 거듭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진짜를 모르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슨 현상이 일어나든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몸을 바라보고 있으면 통증이 생기는데, 통증은 마음이라는 것이 안에서 튀어나와 없어지거나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굴 기억하는 것도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지요. 이쪽저쪽 '관' 으로 파고 들어가면 마음이 드러나요. 아무것도 없으면 파고들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관쌍수라고 해요. 지와 관이 평행이 된 것이지요. 수행은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 끝납니다. 파고 들어가서 마음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뻥 뚫리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살면서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 맑고 투명했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지요. 젊을수록 경험이 적어서 공간이 많고 가볍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이 슬퍼지는 것은 마음에 쌓아 놓은 게 많아서 그렇지요.

몸이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몸에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눈이 달려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보는 것이지요. 마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새끼줄 보고 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맛을 봐도 마음에 따라 어떤 맛을 좋아하고 어떤 맛을 싫어하고 그래요.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샴푸 향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깔깔깔 웃음소리 때문에 부인이 좋아졌다고 해요. 이미 저장된 마음에 따라 어떤 소리가 좋고 어떤 소리가 싫은 것이지요. 마음이 다 조정해요. 마음은 기억이 차곡차곡 쌓인 것입니다. 먹었던 것, 사귀었던 것, 만났던 것, 살아온 환경이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 기억에 의해서 몸이 영향을 받아요. 몸과 마음이 불가분의 관계여서 첫 번째로 몸속에 있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수행 대부분, 몸 관찰하는 것
사실은 몸속 마음을 보는 일
관념에 묶이지 않게 관찰하며
놓을 줄 아는 게 첫 발걸음

몸은 죽어도 마음은 안 죽어요. 마음이 몸에서 떨어져 빠져나가는 게 사(死)고, 몸과 마음이 붙어 있는 게 생(生)입니다. 몸관찰을 하면 몸을 만드는 마음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초심자 수련에서 첫 번째로 몸관찰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몸관찰 수련이 제일 많았지요. 왜 마음을 관찰시키지 않고 몸을 많이 관찰했을까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공이요 공이 물질이다"라고 나와요. 몸이 물질이기 때문에 몸을 관찰하면서 물질을 만드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몸속엔 무엇이 있을까

초심자 수련에서는 욕심이 어떻게 몸을 만드는지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몸관찰을 합니다.

첫째, 내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몸의 부분인 머리관찰, 가슴관찰, 허리관찰, 엉덩이관찰, 팔관찰, 다리관찰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5관인 눈, 귀, 코, 입, 몸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없애거나 사라지게 합니다. 알아차려도 안 없어지면 지수화풍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라지게 합니다.

둘째, 몸과 관련된 욕심을 관찰합니다. 몸을 중시했던 경험과 사건, 기억들을 관찰해 봅니다. 기억이 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그 사람이 가볍게 때렸는데도 그전에 맞았던 기억들이 꾸역꾸역 올라와서 상대방 멱살을 잡지요. 몸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오는 과거의 기억들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을 욕심내면 몸도 딱딱해집니다. 그러니 물질을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로 대체됩니다. 물건, 사람, 일, 돈, 성욕이 다 같은 계통이지요. 관찰해서 털어내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관찰해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되는데, 안 사라지면 방편을 만들어서 없앱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야 대상을 없앨 수 있어요.

몸을 만드는 근본마음은 외로움과 두려움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몸이 반응해요. 외로움 때문에 늘 물질이나 사람으로 채우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외로움을 채워 줄 수는 없습니다. 몸을 관찰해서 나오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을 버립니다. 종교, 진리, 가치, 생명,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평등한 상태에서 여여한 마음이 드러나요.

셋째, 몸에 대한 관념을 관찰합니다. 몸과 관련된 관념들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돼, 병들면 안 돼, 살찌면 안 돼 등등. 병들었을 때 병든 걸 인정하는 것도 배워야지요. 아무리 죽기 싫어도 죽지 않을 방법은 없거든요. 죽으면 썩을 몸인데 뭘 소중히 하냐면서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게 몸을 쓰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관념들이 가짜 몸을 만듭니다. 몸을 중시하는 이유, 또는 경시하는 이유를 생각해 내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몸의 느낌을 없애면서 생각을 관찰해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은 허망하고 영혼을 묶는 오랏줄이라고 인식하고 철저히 없앱니다.

넷째, 몸으로 한 행위를 관찰합니다. 걷고 서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행위들이 몸을 만듭니다. 행위를 계속하면 그것에 따라 몸이 만들어져요. 망치질을 계속하면 어깨와 팔이 단단해지고 잘난 척을 계속하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나쁜 말, 나쁜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갇힌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폭력이 일어나요. 이 몸으로 한 나쁜 말과 나쁜 행동과 나쁜 생각을 떠올려 하나하나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다섯째, 몸속에 있는 욕심이 만드는 장애를 관찰합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 옷에 대한 욕심, 주거공간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성(性)과 가족과 연인에 대한 욕심들이 대표적으로 가짜 몸을 만들거든요. 짐승의 마음이 많으면 짐승의 몸을 받습니다. 몸에서 반응하는 곳에 욕심, 집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욕심은 지나친 의욕입니다. 의욕이 대표적인 욕심이지요. 의욕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태워야 욕심이 줄어들어요.

내 것을 밖으로 풀어내면 푸는 순간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음을 풀든 물질을 풀든 푸는 순간 가볍고 좋지요. 물질을 풀어야 마음을 풀 줄 아니까 불교에서 재물 보시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데 보시하다가 나중에는 멀리까지 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보시는 마음에 있는 집착들을 내려놓는 보시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보다 큰 보시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없어 봐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거든요.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다 아는 것이지요. 없으면 정말 못 사는지는 버려 봐야 알거든요.

관념에 묶여 있으면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님이 있어도 잘 살고 없어도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먹어도 잘 살고 안 먹어도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잘 살고 내려와도 잘 살아요. 그게 잘 사는 것이지요. 보통은 치우쳐 있습니다. 오르려고만 하고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부터 천상까지 6도 윤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마음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릴지 말지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별거겠어?' 생각하고 버렸는데, 자고 나면 아까워져요. 그런데 좀 있으면 마음이 또 달라져요. 수행은 그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 몸에 아교처럼 붙어 있습니다. 결합관계가 강해서 그래요. 몸관찰을 잘하면 욕심이 떨어집니다. 물질을 잡고 있는 욕심, 사람을 좋아하는 욕심, 관념을 잡고 있는 욕심들이 떨어져요. 마음속에 있는 기억을 관찰해서 욕심을 찾아내고 내려놔야 합니다. 잡고 있는 것이 뭔가 관찰하면서 내려놔야지요. 그 과정을 통해 버려도 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수행을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나를 한번 내려놓는 것까지는 해보세요. 진리를 찾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일단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는 쥘 줄만 알지 놓을 줄을 모릅니다. '쥐는 게 놓는 거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이것이 진리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대행 스님

모두가 나 하나로 뭉쳐서 나 하나도 세울 게 없다

마음이 부처라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게 이상야릇하게 생각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해 줄 수 없어서…. 생각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에 의해서 생각을 또 내게 되죠. 그래서 생각 내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나가는 데도 스스로 마음 가운데에서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생각을 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티끌 하나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의정도 없어지는 겁니다. 의정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날까지 역설을 했고 또 여러분 앞에 많은 말을 안 했다는 것은 했다는 거와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했대도 아니 되고 했대도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뭘로 증명을 할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것도 내일 할 거 걱정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을 위해서 한 가지 얘기해 주지. 공만 알았지 나투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 모두가 나 하나로 뭉쳐서 나 하나도 세울 게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금방 엄마하고 만났을 때, 금방 만났을 때에 둘이 되었는데 금방 나 혼자 있으니까 혼자가 됐단 말이야. 그래 또 비켜 놓고 또 이모를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 나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이 나투면서 같이 돌아가. 나투며 화하면서 창조하면서…. 그래서 그 뜻을 여러 귀종 성현들이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수좌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옛날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서천의 호자(胡子)는 어찌 수염이 없는고?" 하고서 수좌들한테 물은 바도 있거든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달마는 어째 수염이 없는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서천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인도를 서쪽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호인이라고 불렀으니 호자를 넣어서 자를 붙인 거죠. 그렇게 내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입담 좋게 그런 말들을 자꾸 건넸던가? 그래서 그것을 대답을 할 때 말이 없이 하지도 말고 말이 있이 하지도 말라. 사람도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묻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어떠한 차원에 있는 사람인가? 아리송한 사람인가?' 이거를 봐서 되받아서 질문할 수도 있는 거며 또는 거기에서 대답 없이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서로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이 마음으로 말없이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죠. 듣기 싫은 말은 남편에게도 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하지 말고 인의롭게 슬슬 돌려서 좀 거북하게 걸리지 않도록 말을 잘해 주면서 안으로 굴리라고요. 안으로 굴리는 그 마음은 절대적으로 그쪽 마음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왜? 내가 그쪽을 생각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선지식들도 부처님도 역대 조사들도 다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한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진리라고도 할 수 없고 또는 묘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역대의 조사들이 어찌 쓰러져 가면서, 불을 태우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공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가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승려 노릇을 하고 사는데 입산을 한 스님네들이나 입산을 안 한 여러분이나 생각을 가만히 해 보세요. 어떠한 것을, 공장을 하나 하든지 무슨 기술을 하나 배우든지 피나는 노력을 안 하고는 돈을 벌 수도 없거니와 기술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목이든지 어떠한 부분이든지 어떠한 기술이든지, 공장을 하든지 과학자든지 철학자든지 또 행정과목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흥청망청 흥청망청 해 나가다가 보면 그냥 흐지부지해 버리고 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이 망하는 거죠. 집안이 망하면 나라도 좋지 못해. 나라도 망해. 인군이 마음이 흔들리면 신하도 마음이 흔들리고 국민이 마음이 흔들리고 전부 안 돼. 그렇듯이 이 몸에도 지금 내 오장육부 속에 세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내 한생각이 흔들린다면 그것들이 다 흔들려서 내 집안은 망하게 되는 거지. 내 육신이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작든 크든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전체가 우리는 거기 환경에 따라서 나투면서야, 가정에 들어와선 내 가정, 몸으로 봐서는 내 몸, 또 사회에 나가선 국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 나툼이, 옮겨 다니면서 수없이 천차만별로 생각 생각 해 가면서 성품의 활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면…. "노력하는 것도 놔라" 하는 것이 그걸 놓고 노력을 하라 이겁니다. 노력하는 것마저도 놓고 노력하라. 하지 말되 하고 하되 하지 말라. 노력하고 하고 하고, 세 마디만 하면 벌써, "안 하고" 하면 부정이지만 또 "안 하고" 하면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되 하고, 하되 안 하라. 놔라. 놓되 해라. 이 모두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각자 내 마음은 내가 아는 거라. 그런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르니까 그 마음을 알자고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도리를, 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면 세세생생에 우리가, 했던 말 항상 하지마는, 야!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또 옷을 벗고 모르고 또 옷을 벗고, 그러면서 좌천돼서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끌려 다니면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사시면서 돈을 벌려고 또는 살 양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스님네들은 그것을 떠나서 노력을 또 해서, 똑같은 노력이라면 참으뜸나가는 노력이죠, 지름길이고.

그런데 '내가 그럼 지름길로 빨리 입산을 해야겠다.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욕심도 없어서는 아니 되지만, 앞에 있는 걸 버리고 내가 먼 데 있는 거 좋은 거 찾으려고 하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거든. 그런 인정, 도리, 의, 사랑 이런 걸 모르고서야 어찌 도를 이루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 다 팽개치고. 옛날에는 사명 대사나 그런 분들은 다 팽개치고 갔다지만 팽개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깐 팽개친 거지, 환경도 되질 않는 걸 억지로, 강제로 팽개치고선 내가 도를 이루겠다고 달아나가 봤자지.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어저께도, 그저껜가 그끄저껜가 얘기했지만, 말 한마디 잘못 대답해 가지고서 여우의 몸을 받아 가지고 오백 생을 지냈다는데, 왜 울고불고하면서 간절히 그 여우 몸을 벗으려고 무척 애를 썼을까? 어차피 여우 몸으로 바뀌었다면 여우로서 이 우주를 통치해서 그냥 집어삼킨다면, 여우의 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리를 모르는 것보다도 더 위세 있지 않을까? 내가 여우의 몸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고생이 되지, 여우의 몸으로 받아서 여우로서 지내는 그 삶도 자기가 착을 버리고 여우라는 그런 생각도 없었다면 아마도 여우로서 온 우주를 활보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스스로서 모습도 여우의 모습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무슨 모습이라고 할꼬?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꼬?' 이 세상에 구더기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구더긴들 어떠랴.' 이거야. 구더기면 똥통 안에 들어가서도 구더기기 때문에 그 구린내가 아주 좋은 요리 냄새로 되거든. 그러니 구더기도 구더기로 된다고 애타할 것도 없는 거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인과를 받아서 잘못될까? 좌천이 돼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나오면 어쩌나. 또 앞으로 고를 받으면 어쩌나.' 이런 것도 모든 걸 놔 버려야 해요. 순리적으로 물 흐르는 대로 흘러서 내가 뭐가 되든지 뭐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보자면 벌레를

☞ A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한마음에서 우주 전체가 나고, 들고 나고 들고 난다

☞ A17면에서 계속

봐도 '아유! 저거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러고, 파리를 봐도 '아유! 저거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아?' 이러지마는 파리는 파리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염두를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떠한 물건이 나에게 부닥치더라 할지라도 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서 나온 거, 그 그림자니까 모든 거를 거기다 놔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어떤 성현이든지.

지금 여러분이 오죽이나 공부하기 좋은 시댑니까? 텔레비전이 세계의 텔레비전이 나오죠. 우주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옛날 그 참, 뭡니까, 그거? 여러 가지로 인과에 대한 설법도 거기서 나오고 모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보지 않았으면 생각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거든.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다볼 수 있는 거고, 자기를 한번 돌아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그것이 자기에 따라서 그냥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든지 잘하는 거든지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어떠한 물건이 되든 어떠한 물질이 되든 그런 거를 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 공부입니다. 어떤 스님네들은 "야, 거기는 앉아서 좌선도 안 하고…." 접때 책을 모두 상 탄 것들이라고 누가 내놨기에 이렇게 들춰 보니까, 좌선을 해야만이 수행이 된다고, 그 한 줄을 이렇게 봤더니 그러더군요.

좌선을 해야만이 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모두, 일거일동이 다 참선이거든. 앉아서 좌선을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좌선을 해서 내 마음을 숙연히 하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리하게 이렇게 수행은 할 수 있을지언정 도는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크고 작고 악하고 선한 것을 한데 합친 눈물이 바로 자비라 그랬거든. 참선도 악하고 선하고 앉고 서고 눕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움죽거리는 거 하나하나, 티끌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놓는 것, 우리가 놓고 돌아가는 거,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쉽겠군요. "색즉시공" 이랬죠? 색으로부터 들어갔어요, 공으로. 공에서, "공즉시색", 색으로 다시 나왔거든. 그랬으니까 색으로 들어서 공을 돌아서 색으로 다시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참선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참선인가 말입니다. '동쪽의 샛별을 보고 깨쳤다' 부처님께서 그랬는데, 우리는 육신이 임신을 해서 이 세상에 이 육신이 났다. 육신이 나 가지고 성장을 하니까 마음을 깨쳐라. 우린 다시 마음이 나야지 육신과 더불어 실상이 된다.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것이 그때는 또 나오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도 가질 게 없고, 가질 게 없는 걸 알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나와. 그때 색으로 다시 나와. 그럴 때 하나하나에 소소영영하게 이것이 법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또는 물질 하나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라. 버릴 게 없다고 하는 그 도리를 알면, 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도 내가 가지고 다닐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를 깨쳤다면 이 관문법이라든가 예전의 성현들의 선문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내가 다 익혀서 성장이 될 때, 이 세상에 마음을 깨쳐서 다시 또 반복해서 보림을 해 가면서 성장이 됐을 때에 비로소 선문답이라든가 귀종의 말씀이라든가 관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쭈욱 훑어보는 거지. 이 종지를 그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부터 그대로 사람인 거라, 사람. 옛날부터 마음으로 마음이 전달돼서 화해서 계발해 가면서 우리는 성장이 된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변동을 하나 저 산은 그대로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산은 없으나 나는 있고 나는 없으나 산은 있구나. 이 세상에 어느 물 하나 버릴 것이 없노라." 하고 말입니다.

육조 스님이 그 모든 것을 "무(無)다" 이렇게 버린 그 자체, '무일물(無一物)'이라고 한 그 자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한 이론인 거라. 하지만 수좌들이나 학인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모두 한 게 아니거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양식이 되고, 우리의 마음 깨닫는 데에 큰 도움을 모두 줬기에 모든 게 고마운 거예요.

허구장창 날더러 이렇게 설법을 만날 해 주신다고 하는데, 난 해 준 게 없어요. 왜냐? 내가 이것을 만날 할 양으로 신경을 쓰고 이런다면 나 벌써 죽었게? 허허허….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거, 꽃 피고 사계절이 돌아가는 거, 물 없으면 못 살고 불 없으면 못 살고 길 없으면 걸어 다니지 못하고 야, 모두가 바람 없으면 또 못 살고 이 사계절이 없으면 못 사는 게 그대로 설법이고 그대로 법이라. 그대로 진리야.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 우주의 다른 동네도, 동네라는 뜻은 다른 혹성도 위성도 항성도 그런 도리를 전부 알게 돼. 왜, 자유자재하지? 왜 그런가 이거야. 아니, 내가 이 동네에서만 꼭 살아야 한다고 써 붙여 놨나? 내 마음대로지. 아, 저 동네로 이사 가려면 이사 가고 이 동네로 이사 가려면 이사 가고.

이 중세계, 이 지금 지구 안에서는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 여기에서는 아래로 좌천도 될 수 있고, 위로 고운 체로 걸러서 고운 가루를 해서 따로 놓는 것도 있거든. 체 치듯이. 체에 떡가루 치듯이. 다른 어떠한 혹성에는, 어떠한 동네에서는 마음으로만 살고 있다는데, 그래서 먹는 것도 생각해서 먹고, 생각이 떴다 하면 그대로야. 그런데 여기선 왜 이렇게 움죽거려야 먹느냐 이거야. 그리고 물건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놈의 게 바숴질 때까지 끼고 돌아야 하고, 얼마나 고초가 많으냐 이거야. 여기가 사람 되고 안 되고 교차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사람 잘 만들고 못 만들고 하는 공장 같아요, 내가 볼 때에.

가만히 보면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뭉쳐 가지고, 억겁 전으로 가서 본대도 현실과 똑같거든. 억겁 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년(年)자도 붙지 않지. 지수화풍으로 뭉쳐서 거기서 위력이 생겨서 별성이 생기고, 별성이 생겨서 바로 그 일심에 불성이 생겨서 삼세심이 됐고, 삼세심에 불성이 생겨서 북두칠성이 생겼고, 북두칠성이 생겨서 은하계를 이루었고 태양계를 이루었고, 그 많은 혹성들을 이루었고 위성들을 이루었다. 그 항성의 뜻이 그렇게 한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항성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겁니다, 음? 우리한테도 항성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항성이지 우리의 근본, 아주 자성이라고 합시다.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 씨라, 모두가!

그러니 거쳐 온 게 그거니 내가 하나를 알면 전체가 알아질 수밖에는 없지. 염주알 꿰어지듯 했으니까. 이게 따로따로 있어야, 구슬이 따로따로 붙었어야 이게 글쎄, 저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지. 삼천대천세계의 우주 전체가 한마음에 든 거라. 한마음에서 우주 전체가 나고, 들고 나고 들고 난다. 이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끄마해지려면 조끄마해지고 커지려면 커지고, 빛으로도, 빛이 제일 빨리…. (녹음 안됨)

… 생각하면 말로 이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이거는 어떻게 말로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글로 써야 되는 걸까? 이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우리 이 국민 수효만 하더라도, 태어나는 사람이 많고 죽는 사람은 적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못 낳게 하고 이렇게 하지마는 우리들 인간들뿐만 아니거든. 버러지까지, 미생물까지 이 얼마나 수효가 많으냔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요 손가락 끝의 요 티끌 같은 거라, 또. 요 지구 혹성 하나만 친다면 티끌 같은 거라, 또 이게.

그러니 야, 모습이 똑같으냐 하면 여기서도, 우리 이렇게 많은 중에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물며 다른 혹성에 있는 사람들 생명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지금 내 배 속에 있는, 오장육부에 있는 이 생명들이, 이거는 촌챙이 다르고 거위 다르고 전부 달라. 이 한동네가 요 한집안 속에서 있으면서도 고렇게 다를 수가 없어, 모습이. 그러면서도 모습은 다르지만 한 사람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운행을 하거든. 그건 그것대로 있어야 하고 저건 저것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습도 그래야만이 그 환경에 의해서 공장장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인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위 사장이 있는가 하면 위 공장장 또는 장 공장장, 직장 공장장, 허허허….

> **산은 없으나 나는 있고 나는 없으나 산은 있구나.**
> **이 세상에 어느 물 하나 버릴 것이 없노라.**

이 공장장들이 여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장 모습들이 전부 달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와 같이 다른 혹성, 다른 데도 그렇게 모습들이 전부 달라.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는 거라. 편리한 대로 그려 가지고 나온 거라.

우리가 왜 허리띠를 매게 됐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지만 딴 데서는 허리띠도 없습디다. 왜? 일을 안 하니까. 선신들의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허리띠 질끈 동여맨 그림 보셨습니까? 못 봤죠? 바로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중세계에서 골고루 잡숴 보기도 하고 골고루 보기도 하고, 이 공부의 도리를 잘 알아야, 봐야 생각이라도 해서 그걸 생각하면 내먹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한 건 생각조차도 안 나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 먹는 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국내에서나 세계에서나 어디든 다녀 보고, 보고 알고 듣고 이렇게, 요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안방에 앉아서 세계를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옛날 같으면 탁마를 하러 다녔지만 지금은 안방에서 탁마를 한다고. 왜 바깥으로 다니면서 얻으러 다니고 그래야만 합니까? 물으러 다니고. 안방에 앉아서 탁마를 하면서 다 익어지면 의정조차도 없어지는 거라. 그런데 뭘 물어?

옛날에는 무슨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유유히 이렇게 다니는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백 리 몇십 리를 걸어서 탁마를 하러 다녔죠. 그렇지만 예전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곤 다릅니다. 우리는 시대를 좇아서 물 흐르듯이 흘러야죠. 세상에, 하룻저녁에도 어디를 갔다 오고 이 국내 안에서도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춤추는 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또 세계 어디도 보고 뭐, 소련도 좀 잠깐 다녀오고, 어디 몇 군데를 다녀오십니까, 모두? 그러니 지금 시대가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너무도 좋은 시대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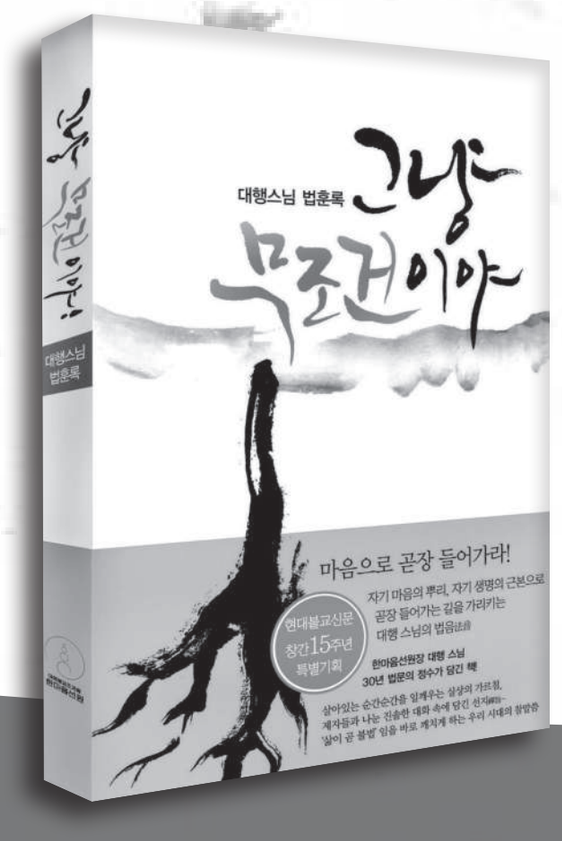
그러니 우리 신도님들은 의합하고 화목하고, 자기가 알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그저 안아 주고 키스해 주고, 허허허…. 서로 사랑하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는 전달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유유히, 뭐든지 한생각을 내지 않아도 내 부하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나가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바깥에선 바깥에대로 해 주고 안에는 안에대로 하고, 우주적인 일은 우주적인 일대로 그 자리에 모두 부하가 있고 내가 있는 거라.

여러분이 내가 저 목성이나 저 천왕성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그런 전체에 내가 다 있다고 그런다면 못 믿을 거예요, 아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달마 대사의 수염은 왜 없는고?" 해도 못 믿는데, 허허허…. "털이 많은데 왜 없다고 그래?" 이러고 못 믿는데, 허허허. 그 모습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마음과 마음을 서로 전달하는 표현을 어떻게, 알면 어떻게 하나 요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아주 사람 봐 가며 다양하게, '어떠한 사람으로서 나한테 물었나. 알쏭달쏭한 사람이 나에게 물었나. 모르는 사람이 이론만 가지고 나한테 물은 건가. 나를 근수를 달아 보려고 했던가.' 이런 걸 다 요렇게 파악해서 한마디 대답하고, 어떤 때는 대답하지 않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땐 되물어서 다시 한번 찌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깨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어!

오늘은 그만 일어날까요.

※위 법문은 1986년 2월 17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특집시론

다시 평화를 생각하라



그림 · 강병호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민족자주주의 입각한 비폭력 '3.1운동'
감복했던 타고르 '동방의 등불' 노래해
운동 계기로 임정 수립… 현재로 이어져
잊혀진 불교 인물 연구 · 발굴 노력해야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맞이하여 정부,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기념식과 행사, 학술회의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등 종교계 인사들이 주도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대한의 독립을 외친 거국적 항일운동이다.

당시의 기록과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국적으로 참여하였고 7,5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3.1운동 하면 흔히 유관순 열사가 먼저 떠오르지만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간 한용운, 백용성을 필두로 서울과 지방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거사에 참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3.1운동 이후 민족의식에 눈을 뜬 청년승려들은 일제의 사찰령을 비판하고 자주적 종단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비폭력투쟁으로 전개된 3.1운동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제국주의의 침탈과 강권에 맞서 분연히 들고일어난 민족자주운동이었고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두 달 뒤인 5월 4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주로 학생들이 항일과 반제국주의를 부르짖으며 일으킨 5.4운동도 3.1운동의 중국식 버전이었다. 또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가 10년이 지난 1929년에 일본에 와서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노래한 것도 3.1운동의 비폭력 평화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3.1운동에 화들짝 놀란 일제 당국이 1920년대부터 경찰과 헌병이 주도한 무단통치를 대신해 문화통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로 그 여파는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이 더욱 활기차게 펼쳐졌다. 바로 한 달 후인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3.1운동이 한민족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자각으로 다가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임시정부는 이후 항일운동의 거점이자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도 임시정부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군주제 국가인 대한제국에서 민(民)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의 전환과 그 상징성은 독립된 민족국가를 이루려는 모든 이들에게 벅찬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한국사에서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현재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요릿집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불교계를 대표해 참여한 이는 한용운과 백용성이었다.

한용운은 천도교의 최린이 제의하고 최남선이 초안을 만든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관여하였고, 전날인 2월 28일 밤 자신의 집에서 신상완, 김상헌, 정병헌, 백성욱, 김법린 등 중앙학림 학생들에게 거사 소식을 알리고 독립선언서 수천부의 배포를 당부하였다. 중앙학림은 1906년에 세워진 근대적 불교교육기관인 명진학교의 뒤를 이은 학교로 중앙학림 학생들은 3월 1일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나눠주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탑골공원에서 나와서 종로경찰서를 지나 남대문 쪽으로 향하다가 정동을 거쳐 서대문 쪽으로 가면서 독립을 외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연락으로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등 영남의 거찰을 중심으로 각지의 사찰에서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신상완, 백성욱, 김법린 등은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1919년 11월에는 상해에서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 선언서는 백초월, 신상완 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성월, 김구하, 김경산, 김상호 등 12명이 7천여 승려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였다. 여기에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해 조국이 독립할 때까지 혈전으로 싸울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앙학림의 학생대표와 유심회 회장을 지낸 신상완은 의용승군제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일제에 검거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승려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의 군관학교나 국외의 여러 항일단체에 가담하였고 또 국내 사찰에서 군자금을 모집해 보내는 등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었다.

3.1운동으로 촉발된 민족적 각성의 분위기는 1920년대에 불교계 혁신운동에 불을 지폈다. 1920년에 조선불교청년회, 1921년에 조선불교유신회가 조직되었고 이에 소속된 청년승려들은 사찰령의 철폐를 요구하고 일본 불교에서 연유한 본말사 체제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져 1929년 1월에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는 조선불교의 종헌과 종회를 만들고 자율적 교정을 추진하려 하였다. 또한 1931년에는 조선불교청년총동맹에서 종헌의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1921년에는 백용성, 송만공 등에 의해 선학원이 설립되어 선종 전통의 계승과 중흥을 촉구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1935년에는 선학원 측에서 주최한 전국 수좌대회가 열려 종규를 제정하고 조선불교선종을 종명으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3.1운동 이후 불교계에서는 자주와 혁신을 내세운 여러 목소리들이 분출되었다. 이영재는 〈조선불교혁신론〉에서 민주공화정 이념과 권력분립을 기조로 한 혁신교단의 수립을 주장했고, 백용성은 경전 번역의 현대화와 식산흥업, 대각교 운동을 벌이는 한편 선과 계율 전통의 수호를 꾀했다.

철저한 민족주의 불교운동가로 전향한 한용운도 사찰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에서 대중으로'라는 표어에 집약된 불교의 사회화, 대중화를 추진하였다. 비록 식민지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불교의 자율성 회복은 주권을 되찾은 해방 이후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3.1운동으로 불교계가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겨레를 이끄는 횃불을 높이 들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1962년 한용운과 백용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훈이 처음 이루어진 이래 2019년 현재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불교계 인사는 104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전체 독립유공자 15,180명 가운데 불교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는 불교가 정치와 무관하며 세속을 떠난 출세간 승단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다. 아니면 식민지 사찰령 체제 하에서도 사찰을 운영하고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야 했기에 보다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조국의 해방을 꿈꾸고 간접적으로나마 독립운동을 성원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역사의 기억에서 잊혀져간 이들과 관련된 사적을 조사, 발굴하고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 미래의 발걸음과 직결되어 있다. 3.1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길 때 불교는 민족의 화해와 소통, 남북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장도에 다시금 혜명을 비출 수 있다.

社說

3.1운동 100주년에 부쳐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1919년 3월 1일 오후 1시에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 첫 머리다.

당시 서울 종로 요릿집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과 공약삼장을 낭독하고 만세를 외치던 중 들이닥친 왜경에 의해 체포됐다. 선언 발표 직후 터져나온 "대한독립만세"는 전국 팔도로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만세운동은 1500여 집회에 200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당시 인구에 10%가 참여한 것으로 약 7000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3.1운동의 여파는 실로 대단했다. 운동 한 달만에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국내외 항일운동으로 퍼져 나갔다. 이들의 정신은 대한민국 정부로 계승됐다.

우리가 3.1운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3.1운동이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큰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는 자주독립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며 이는 곧 세계인의 자주독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100년이 지난 2019년 3월 1일 불교계는 선각자들의 기미독립선언을 기념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오늘날의 불교계가 발표한 선언이 강조하는 것도 100년 전 3.1운동의 평화주의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선언 실천강령에서 밝혔듯이 중도와 화쟁을 바탕으로 극단을 배격하고 자비를 증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분열한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는 방안을 온 겨레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3.1운동 정신의 시대적 발현이다.

템플스테이, 탈북민 포교 마중물되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2017년부터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온 '나눔 템플스테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제공될 전망이다. 나눔 템플스테이는 지난해에만 1만여 명이 참여하면서 대학생을 비롯해 소방대원, 도박중독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 심신의 안정을 지원했다. 향후 나눔 템플스테이의 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에게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관심이 부족했던 불교계의 북한이탈주민 포교에도 자극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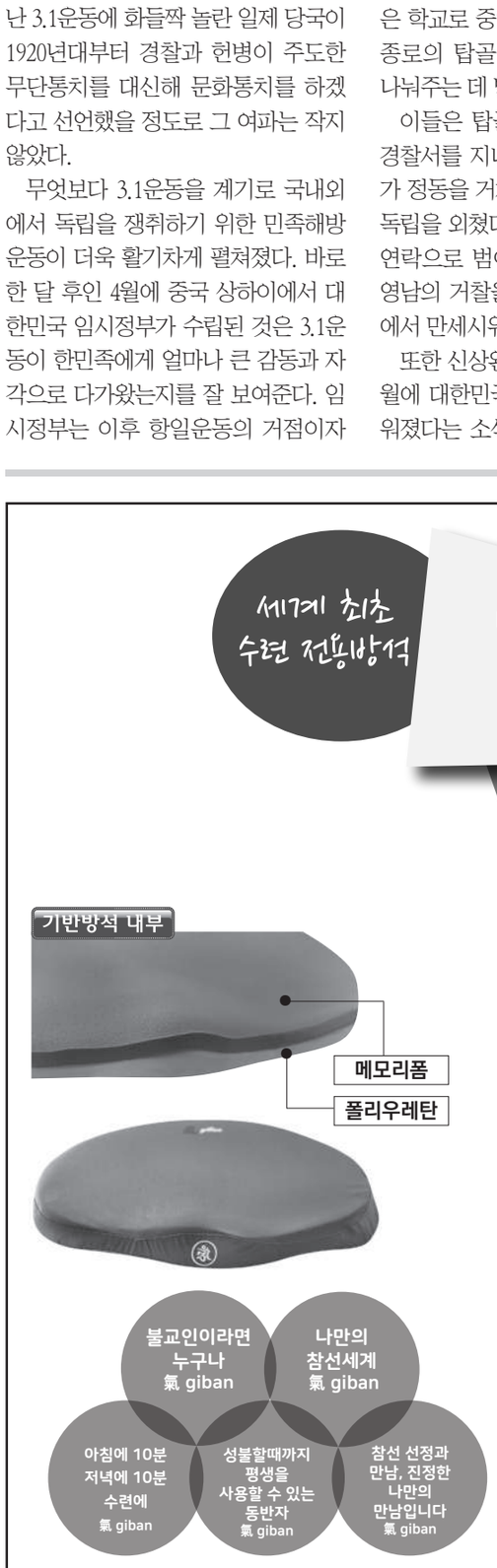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과정 중 조사시설과 하나원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60%가 넘는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불자는 10%에 불과하다. 무종교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불교계의 무관심'을 꼽는다. 실제 하나원에서 사회적응하기 전 1~3개월간 머무는 조사시설에서 포교하는 스님은 단 한 명도 없다. 이웃종교에서 목사와 신부, 수녀 등이 찾아와 전도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나마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머무는 안양 하나원에는 지역 스님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화천 제2하나원에는 스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방치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변한 건 없었다.

이 때문에 템플스테이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관련 활동이 알려질수록 사부대중의 관심은 늘어날 것이다. 부디 나눔 템플스테이 확대가 불교계의 북한이탈주민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이천십구년 삼월육일
일천이백삼십오호

현대불교

삼일운동 일백주년 기념 특집호

宣言書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并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ㅣ 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ㅣ며 全人類 共存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 何物이던지 此를 沮止 抑制치 못할지니라.

<중략>

吾等이 玆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并進하는도다. 男女老少 업시 陰鬱한 古巢로서 活潑히 起來하야 萬彙羣象으로 더부러 欣快한 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 祖靈이 吾等을 陰佑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을 外護하나니 着手가 곳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驀進할 ᄯᅮ름인뎌.

公約三章

一、今日 吾人의 此擧는 正義、人道、生存、尊榮을 爲하는 民族的 要求ㅣ니 오즉 自由的 精神을 發揮할 것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一、最後의 一人ᄭᅡ지 最後의 一刻ᄭᅡ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一、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야금 어대ᄭᅡ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그림 · 김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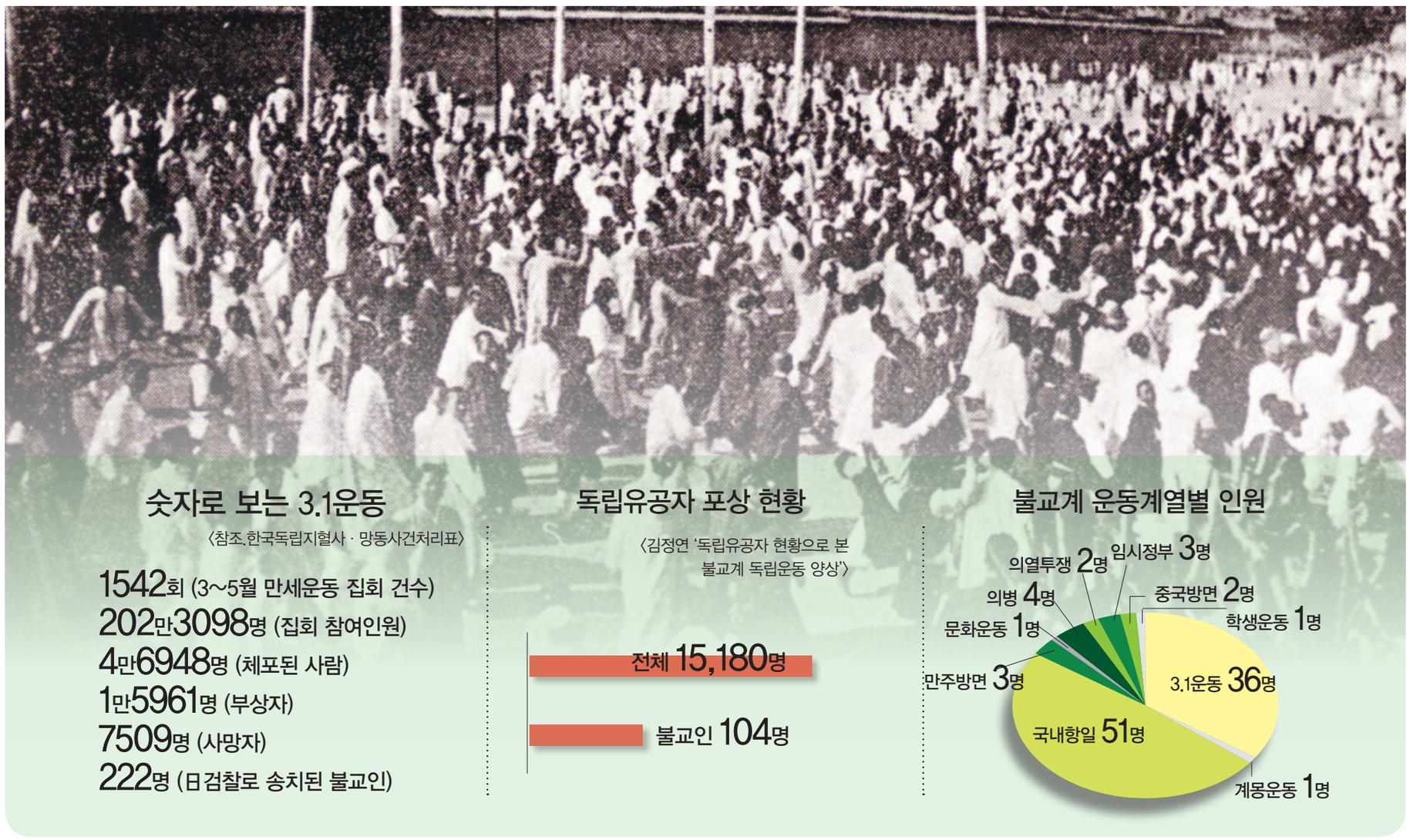
목차

二 삼일운동과 불교
三 새롭게 발굴된 불교 항일운동
四·五 삼일운동 사찰 만세 지도
六 삼일운동 일백주년 제언
七 볼만한 삼일운동 전시

불교계 독립유공자 104인 명단

강민수(1882~?)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강봉환(1867.9.8~1961.3.5)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강수오(?~1918.12.27)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강완수(1892.1.2~?) 봉선사 만세시위(선언문 작성 · 배포)
강재호(1901.8.16~1986.4.2) 양산읍 장날 만세시위 주도. 만당당원
강창규(1872.12.2~1963.10.20)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강춘근(1891~1919.1.6)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강태하(1897.4.5~1967.8.8)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고용석(1866.9.8~1928.9.25)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권청학(1899.4.15~1981.12.13) 동화사지방학림 학생. 남문장터 만세 주도
권태용(1920.4.23~1986.4.26) 불교전문학교 재학중 징병, 탈출 후 피체
김공식(1869(?)~1908(?)) 석왕사 승려. 의병 연합 활동 중 체포돼 총살
김관룡(1900.10.17~1975.6.20) 만세운동 후 피체. 출옥 후 출가
김기수(1888.12.28~1975.11.5)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김기출(1899.12.7~?) 용문사 승려. 임시정부 지원 위해 군자금 모집
김두삼(1893.3.3~1919.8.21)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옥중 순국
김말복(1909.6.25~1985.5.27) 통도중 교사. 학생들에게 민족교육.
김명규(1893.6.3~1977.2.10) 동래고보 독립만세운동 주동
김명돈(1878.4.10~?)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김무석(1887.1.20~1960.4.23)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김문옥(1898.2.10~1955.6.12) 동화사지방학림 학생. 남문장터 만세 주도
김법린(1899.8.23~1961.3.14) 3.1운동 때 범어사 만세운동 주도. 임시정부 참여. 만당 당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피체
김봉률(1897.6.23~1949.5.11) 해인사 만세시위 참가. 신흥무관학교 졸업
김봉화(1882.6.23~1919.12.1)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김삼만(1864~?)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김상기(1894.7.28~1953.9.5) 범어사 만세시위 주도
김상언(1873.2.16~1965.8.24)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김상헌(1893.2.1~1945.12.25) 중앙학림 학생. 만세시위 참여
김석윤(1877.8.23~1949.8.25) 장성 의병장 기우만과 연결.
김선문(1894.12.30~1953.6.30) 대한독립단 가입, 군자금 모집.
김성수(1901.7.8~1965.12.25)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김성숙(1898.3.10~1969.4.12) 봉선사 승려. 3.1운동 때 독립문서 제작 배포. 임시정부 활동(내무차장, 국무위원 등)
김연일(1871.1.17~1940.5.10)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지휘
김영규(1898.9.13~1952.7) 범어사 승려. 만세시위 주도
김용식(1885.9.10~1981.1.28) 신륵사 승려. 여주 만세시위 주도
김재호(1900.8.20~1969.9.3) 범어사 승려. 만세시위 참여
김한기(1897.12.27~1982.3.25) 범어사 만세시위 참여
문남규(1870.6.23~1932.2.28)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문남은(1875.6.28~1953.6.29)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박광(1882.6.16~1970.3.4)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에게 운동자금 제공
박달준(1894.1.10~1965.3.25) 해인사 승려. 만세시위 참여
박무(?~1921.1.17) 오봉사 주지. 독립군 은신처 제공. 일경에 피살
박무병(1887.9.22~1979.4.15) 조선민단 총무. 출옥 후 법주사 출가
박수남(?~1940.7.14) 일본 열차에 '조선독립만세' 낙서. 재판 중 병사
박영환(1896.4.18~1962.2.10) 범어사 승려. 범어사 만세시위 참여
박정국(1897.11.12~1972.1.12)범어사 지방학림 생도. 만세시위 참가
박주석(1864.2.17~1921.7.24)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옥중 순국
반봉갑(1888.1.18~1944.8.7) 표충사 승려. 만세시위 참가
반봉출(1891.2.8~1950.10.28) 표충사 승려. 만세시위 참가
방동화(1887.8.8~1970.12.28) 법정사 승려. 항일무력시위 주도.
백용성(1864.5.8~1940.2.24) 3 · 1운동 민족대표. 불경 한글 역경 사업.
백초월(1878.2.17~1944.6) 임시정부 및 독립군 지원 군자금 모집.
변극(1903.4.22~?) 재중단체 임원 역임하며 학생 독립운동을 이끔.
변진설(1909.11.13~1975.2.14) 광주학생운동. 맹휴중앙본부 조직.
손군호(1902.9.24~1976.5.3) 명정학교 학생. 범어사 만세시위 참가
송세호(1893.8.29~1970.6.13) 월정사 승려. 상해 망명,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 임시정부에 군자금 제공.
신상완(1891.5.6~1951.1.28) 중앙학림 학생 대표. 유심회 회장. 불교계 만세시위 주도. 임시정부에 참여. 승려의용군 조직 주도
신지찬(?~1922.6.11) 평북 양화사 승려. 독립군에게 군자금 제공
신철휴(1898.5.17~1980.1.23) 만주 길림성에서 의열단 결성에 참여.
양만우(1897.7.6~1968.2.28) 용주사 주지 강대련 명고축출 사건 주도
양수근(1898.6.27~1977.2.26) 범어사 지방학림 학생. 만세시위 참가
양태환(1885~?) 은선암 승려. 임실군 만세운동 참여.
오병윤(1901.11.20~1973.4.20)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오택언(1897.6.17~1970.2.20) 중앙학림 학생. 독립선언문 배포, 만세운동
오학성(1880.10.1~1925.6.9) 표충사 밀양 대용동 시장 만세운동 주도
유연건(1892.1.9~1953.3.15) 안동불교청년회 참여. 신간회안동지회 활동
윤상은(1895.5.10~1982.5.23) 범어사 지방학림 학생. 만세시위 참가.
이강률(1902.1.6~1944.1.28) 쌍계사 승려 주도 화개면 시장 만세 참여.
이강조(1890.12.21~1954.5.18) 표충사 승려들이 주도한 만세운동 참가.
이고경(1882.11.20~1943.1.21) 해인사 승려. 법보학원 강백으로 조선역사 강의죄 체포돼 순국.
이기윤(1898.9.9~1938.6.24) 동화사 지방학림 학생. 남문장터 만세 주도
이달생(1886.8.26~1960.12.20)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이만직(?~?) 1906년 민종식 의진의 소모관으로 활약.
이순재(1891.6.3~1944.6.3) 봉선사 승려. 양주 만세시위 참가
이승빈(1891.10.8~1927.9.16)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이시열(1892.2.25~1980.11.18) 광한단 단장. 출가 후 불교학인연맹 조직.
이윤평(1889.5.5~1980.7.15)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이장옥(1893.10.22~1926.1.18) 표충사 승려. 태룡리 장터서 만세 주도
이정수(1888.9.3~1953.2.15) 쌍계사 승려 주도한 화개면 시장 만세 참여
이종창(1880.9.9~1966.2.9)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이찰수(1902.11.12~1968.2.26) 표충사 승려. 태룡리 장터서 만세 주도
이춘삼(1855.6~1945.9.16)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임만규(1893.1.10~1958.7.13) 쌍계사 승려 주도한 화개면 시장 만세 참여
장만식(1874.10.5.~1944.9.20) 표충사 승려들이 주도한 만세운동에 참가
장인식(1879.7.7~1954.8.12) 표충사 승려들이 주도한 만세운동에 참가
장임호(1856~?)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정구용(1880.10.5~1941.5.5)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정남용(1896.11.21~1921.4.18) 건봉사 승려. 대동단에 가입 활동. 의친왕 상해 망명을 추진하다가 만주 안동서 피체. 옥중 순국
정맹일(1897.9.19~1956.12.29) 안정사 승려. 강대련 명고축출사건 주도.
정성언(1892.7.7~1952.2.3) 범어사 학생만세시위 참여
조경규(1902.11.26~1988.12.26) 광복단 입단, 자금조달 임무 수행.
조계성(1880.2.3~1949.3.20)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조병구(1907.10.15~2003.6.21) 통도중 교사. 학생들에게 민족교육
조소영(1920~?) 독립을 위해 대승적 불교개혁 주장. 민족의식 앙양을 위한 책자 편찬 배포. 옥중 순국
지용준(1894.5.7~1971.10.11) 범어사 지방학림 생도. 만세시위 참가
최범술(1904.5.26~1979.7.10) 해인사 중심 만세시위 주동. 만당 당원.
최수봉(1894.3.3~1921.7.8) 명정학교 졸업.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최승환(미상) 대한독립단 군자금 모집 활동. 함흥 해동불교청년회 조직.
최신일(1875.7.7~1925.2.22)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최종현(1879~?) 승려 출신. 정미의병에 투신. 의병활동 군자금 및 군수품 징수에 주력
최태유(1874~?) 법정사 항일투쟁 무력시위
한봉진(1872~?) 옥천사 승려. 경남 고성서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활동
한용운(1879.8.29~1944.6.29) 3.1운동 민족대표. 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 만당 당수.
황만우(1901.8.30~1952.11.29) 범어사 지방학림 학생. 만세시위 참가

(이상 가나다 순. 김성연 '독립유공자 현황으로 본 불교계 독립운동 양상' 참고)



숫자로 보는 3.1운동

〈참조.한국독립지혈사 · 망동사건처리표〉

1542회 (3~5월 만세운동 집회 건수)
202만3098명 (집회 참여인원)
4만6948명 (체포된 사람)
1만5961명 (부상자)
7509명 (사망자)
222명 (日검찰로 송치된 불교인)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김정연 '독립유공자 현황으로 본 불교계 독립운동 양상'〉

불교계 운동계열별 인원

'자유 · 평등' 외친 함성, 기억해야 이어진다

3.1운동 100주년 불교적 의미와 과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19년 3월 1일 오후 1시 태화관. 만해 한용운, 백용성 스님을 비롯한 33인의 종교인들이 모였다.

33인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담당한 이종일이 가지고 온 선언서를 돌려 읽고, 만해 스님의 식사(式辭)를 들었다. 식사는 최린이 만해 스님에게 부탁했다.

"우리는 신명을 바쳐 자주 독립국이 될 것을 기약하고자 여기 모인 것이니 정정당당히 최후의 일인까지 독립 쟁취를 위해 싸웁시다."

독립선언 시각인 오후 2시에 맞춰 만해 스님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가 제창됐다. 이내 첩보를 듣고 태화관으로 달려온 일본경찰대 80여 명이 민족대표 33인을 체포했다. 그와 동시에 탑골공원에서는 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민족대표들이 일본경찰에 압송될 때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몰려나와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이는 한반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불교, 3.1운동 촉발 · 확산 주역

이렇듯 3.1운동이라는 거국적인 평화 저항운동에는 종교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민족대표 33인에는 불교 2인을 비롯해 천도교 15인, 기독교 16인이 참여했다. 당시 신도 300만 명으로 최대 교세를 자랑한 천도교는 자체적으로 민족자결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 역시 1918년 제주 법정사 투쟁을 비롯해 전국 사찰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으로 나아가는 역량이 갖춰져 있었다.

여기에 만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이 독립선언을 위한 민족대표 33인에 참가하며, 불교계의 항일운동 동참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실제 만해 스님은 3월 1일 하루 전 자신의 종로 계동 유심사로 자신을 따르던 중앙학림(동국대 전신) 학생 승려들을 불렀다. 유심사에 모인 10여 명의 학인들에게 만해 스님은 비밀리에 추진 중인 3.1만세운동 준비 소식을 알렸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법린은 잡지 〈신생〉 창간호(1946)에 만해 스님이 발언을 이 같이 소개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을 중외에서 선언함은 당연한 일이다. 군 등은 우리 뜻을 동포 제위에게 널리 알려 독립 완성에 매진하라. 특히 군 등은 서산, 사명의 법손임을 굳게 기억해 불교청년의 역량을 잘 발휘하라."

이렇게 당부한 만해 스님은 천도교 측으로부터 가져온 선언서 3000매를 학인 스님들에게 전했고, 서울 시내와 전국 사찰에 배포토록 했다. 이들은 현재 인사동 소재 범어사 포교당에서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고,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 직후 시가행진하며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불교계 운동 조직체 결성과 사찰을 중심으로 거족적 독립만세운동 전개, 동지 규합 등을 결의했다.

중앙학림 학인 스님들의 결의는 자연스럽게 전국 사찰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만세 운동의 기반이 됐다. 이들은 자신의 연고 사찰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독려했고, 지방학림에서 수학하고 있던 학인들과 사찰 대중들도 긴밀히 호응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
5월까지 전국서 들불처럼 번져
만해 따르던 중앙학림 학인들
지방 내려가 사찰만세운동 주도
3.1운동, 임정거쳐 현재로 계승

불교 독립유공자 서훈 104명뿐
근현대사 연구 통해 발굴 필요

실제 현재 만세운동이 확인되는 14곳의 사찰들 중 적지 않은 사찰이 중앙학림과 지방학림 학인 스님들의 연계로 이뤄졌다.

해인사의 경우 도진호 · 김봉신 · 김용기 등이 해인사 학승들에게 선언서를 보냈고, 중앙학림 학생인 김봉신은 시위를 권유키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학림 30여 명은 선언서 수천 매를 인쇄하는 등 사위를 준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31일 해인사 홍하문 만세 시위가 진행됐다. 당시 시위에는 해인사 승려 200여 명과 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범어사 만세운동은 김법린과 김상헌이 내려와 권유하며 이뤄졌다. 현재 3월 18일 동래장터서 만세운동이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기는 논쟁 여지가 있다. 분명한 것은 학승 및 지방학림, 명정학교 학생 3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했고, 태극기 수백여 개와 격문 · 선언서를 배포하며 만세운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100명의 학인이 체포됐고, 이들 중 34명이 실형을 받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4월 4일 표충사 입구 단장면 장날 만세운동도 주목할만 하다. 표충사 만세운동은 통도사 학승 5명이 3월 20일 표충사를 방문해 운동을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이장옥 · 구연운 · 오학성 · 손영식 · 김성흡 · 이찰수 등 표충사 사중 승려가 운동을 주도했다. 표충사 만세운동에는 승려 50명과 주민 1500명이 참가했다. 이중 364명이 검거돼 71명이 일본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학림 학인들의 적극적인 만세운동 참여에 대해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3.1운동의 불교적 전개와 성과'에서 "중앙학림 승려들의 시위 촉구 영향이 컸으며, 이에 지방학림 청년 승려들의 자생적 결단도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주지 계층의 참여는 미비했다"며 "지방 사찰의 만세 시위는 불교의 만세운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만세운동으로도 파급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불교계 인사들의 옥중 항쟁이다. 만해 스님은 선언식 당일 대표들에게 변호 · 사식 · 보석 금지라는 3대 옥중 원칙을 제시했고 이를 철저하게 솔선수범해 지켰다. 또한 일제가 주관하는 재판정에서 독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는 1919년 7월 10일 제출한 '조선독립의 서'에서 잘 알 수 있다. 만해 스님은 한국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 독립운동의 당위성,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시인 조지훈은 이를 최고의 명논설로 꼽기도 했다.

백용성 스님은 옥중에서 불교 혁신 및 대중화의 서원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조선어로 된 경전 번역 불사를 다짐했는데 당시를 백용성 스님은 이렇게 회고했다.

"(옥중에서) 각각 자기들의 신앙하는 종교 서적을 청구해 공부하며 기도하더라. 그때에 내가 열람해보니 모두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오. 한문 서적은 별로 없더라. 그것을 보고 즉시 통탄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큰 원력을 세운 것이다."

1921년 3월 출옥한 백용성 스님은 삼장역회를 구성해 민중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전 한글화 불사를 이어갔고 10종의 경전을 한글화 했다.

김광식 교수는 이 같은 불교 근대화 · 자주화와 현실 인식 제고 등이 불교계에 거시적 성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3.1운동 이전부터 성장한 불교 청년층은 3.1운동을 주도하고 조선불교청년회 등을 조직해 불교 제반 문제를 민족의식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했다"면서 "교단적으로는 종단 건설 운동을 추진해 자주적 자생적 종단이 부재한 현실을 극복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3.1운동 임정 그리고 불교

대한민국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한 백암 박은식의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1919년 3~5월까지 3개월 간의 독립만세운동 집회는 1542회가 이뤄졌으며, 참가인원 202만 3098명에 달한다. 이중 4만6948명이 왜경에 붙잡혔으며, 부상자는 1만5961명, 사망자는 7509명에 이른다. 거족적 민중 만세운동에 대해 일제는 폭력 등을 동원해 억압했다.

불교를 비롯한 독립운동지도자들은 3.1운동 직후 입헌민주공화제 국가를 표방한 임시정부 수립을 노력했고, 그 성과는 1919년 9월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임시정부에는 적지 않은 불교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3.1운동에 참여했던 중앙학림 출신 승려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백성욱 · 김법린 · 신상완 · 김대용이다. 또한 월정사 승려 이종욱 · 송세호도 상하이로 망명했다. 이들은 국내 불교계와 연계해 독립자금을 지원 · 연계하는 데 일임을 담당했고, 〈혁신공보〉라는 비밀 항일신문을 만들어 국외 항일 소식을 국내 각처에 전했다. 봉선사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운암 김성숙은 사회주의 운동과 항일운동에 매진해오다가 1942년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독립운동 자금 지원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백초월 스님이다. 스님은 3.1운동 직후 서울로 와서 중앙학림에 민단본부를 결성하고 중앙학림 학인들을 승려들에게 보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게 했다. 백초월 스님은 이를 불교계 루트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보냈다.

또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사들은 '의용승군제'를 추진하기도 했으며, 이를 위해 대한승려연합회가 구성돼 1919년 11월에는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가 발표됐다.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은 "대한승려연합회의 선언서는 1919년 10~11월 중국으로 망명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승려들의 주도하에 작성됐다. 이에 따라 3.1운동에 참여한 불교사상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다"며 "3.1운동 이후 불교계의 민족의식은 한층 고양됐다. 운동을 경험하면서 사회 전반에 파급된 민족의식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숨은 역할 불교 인물들 발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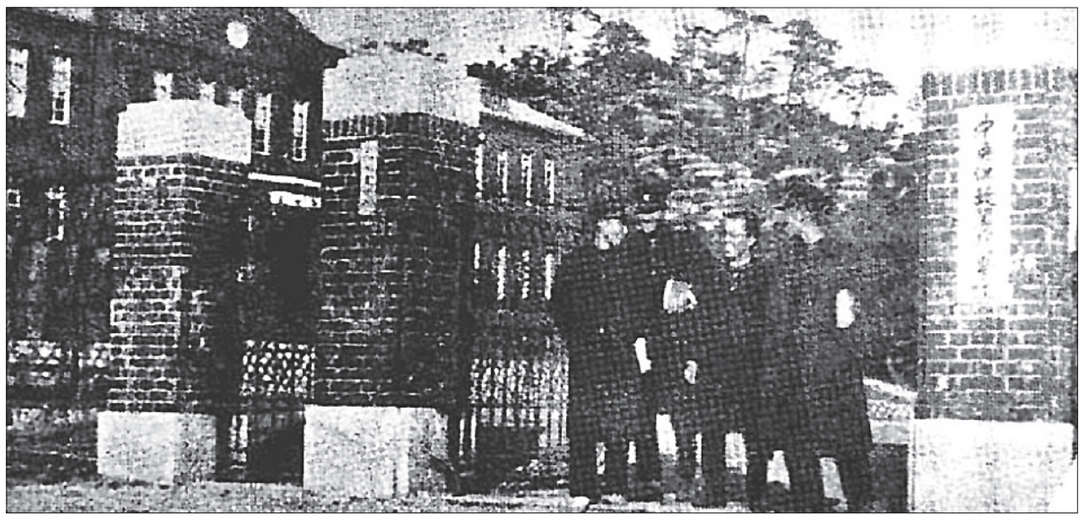
3.1운동 직후부터 해방까지 민족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한 스님들과 불교계 인물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불교계 항일인물은 만해 스님, 백용성 스님 등 몇몇 스님들에 집중돼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사람은 1만 5000여 명으로 이중 불교 인사는 104명이다.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의 '독립유공자 현황으로 본 불교계 독립운동 양상'에 따르면 현재 불교계에서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는 사례는 2015년 우봉 스님과 석전 박한영 · 오성월 스님 정도다.

이에 대해 김성연 연구원은 "불교계 독립유공자들은 국가 공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조계종단 건립의 일등공신으로 칭송할만 하며,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발굴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적 자료의 수집과 구술 자료의 검증을 철저히 보완해 불교계 독립운동의 실상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잊혀진 항일사, 연구로 되살리다

새롭게 발굴된 불교 항일운동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가 건립한 중앙학림 전경. 중앙학림과 지방학림 · 사찰이 연계된 불교계 만세운동이 최근 연구를 통해 조명됐다. 아래 사진은 조계종 불교사의 연구소가 2017년부터 내놓은 3.1운동 관련 연구 · 자료집.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관련 논문집 · 자료집 발간

기독교 주도 철원애국단
철원 도피안사서 결성돼
신상완 등 승려들도 참여

숨겨진 항일인사들 발굴돼
지방학림 만세운동 재조명

불교계의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만해 한용운 · 백용성 · 백초월 등 명망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이 그간의 상황이다. 당시 불교의 종합적 상황이나 운동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지난 2017년부터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신문 · 잡지 · 판결문을 망라한 자료집과 종합적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집들을 발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수 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발간한 연구논문집에는 새롭게 조명해야할 역사적 사실들과 인물들이 기록됐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철원애국단 사건과 불교계 항일운동' 을 발표하고 강원도 내 독립운동에서 불교계 인사가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를 살피고 있다.

철원애국단은 독립운동단체 중 규모나 활동 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연통제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독립애국단의 지방조직으로 결성부터 활동까지 대부분 기독교인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경순 학예사는 철원애국단이 도피안사에서 결성하게 된 이유와 철원애국단 사건에 연루된 승려들의 행적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도피안사는 철원 지역의 대표 고찰로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던 곳이었다. 특히 도피안사 중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신도 강대용이 일정 수준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경순 학예사는 "당시 지역 유지였던 강대용이 철원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애국단 활동에 관심을 안 기울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국의 의심을 피하면서도 거주지에서 멀지 않고 지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도피안사를 결성 장소로 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당시 주지 홍월운 스님의 묵인과 결단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경순 학예사는 철원애국단 사건과 관련된 불교 승려인 신상완, 김상헌의, 이석윤의 행적도 살폈다. 특히 신상완은 철원애국단이 10월 제2 만세시위를 계획 · 실행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이경순 학예사는 "신상완은 임시정부 내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내외를 오가며 상해 임시정부의 지시를 국내에서 실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철원애국단과 직접적으로 접촉해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헌과 이석윤 역시 3.1운동을 경험했고,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수행했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숨겨졌던 항일인물들이 새롭게 조명된 것은 큰 성과이다.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첫 한국인 박사가 통도사 승려 출신 박민오(朴玟悟, 1897~1976)임을 밝혔다. 그는 3.1운동 당시 학생 대표로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황인규 교수에 따르면 박민오의 속명은 박노용으로 1897년 경남 남해 섬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1살 때 집을 나와 양산 통도사로 출가했으며, 6년간 통도사에 머물렀다. '민오(旻悟)' 라는 법명도 이때 받았다.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이 서울 중앙학교(중앙중 · 고등학교 전신)를 인수해 교장을 맡고 있던 인촌 김성수에게 박민오를 추천해 입학하게 됐다.

서울 중앙학교 4학년 급장을 맡기도 한 박민오는 3.1운동 당시에는 행동대장 역할을 맡아 독립선언서 배포와 민중동원에 나섰다. 3.1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중앙학교 학생 등과 협력해 혁신단을 결성하고 '혁신공보' 를 매일 발행해 독립운동을 고취시키는 데 매진했다. 1919년 9월에는 혁신단 특파원의 임무를 띠고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때마침 국내에서 혁신단의 독립운동자금 모집 등이 탄로되면서 백초월, 백성욱 등이 체포됐고 박민오는 곧바로 수배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는 한동안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지만 그곳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1921년 뉴욕으로 건너갔다.

도미(渡美)한 박민오는 인쇄공, 행상, 접시 닦기로 일하면서도 에반스빌대학, 노스웨스턴대학을 거쳐 미네소타대학에서 학사학위를, 하버드대학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민오는 〈중국인의 기회〉 등 저서를 잇달아 출간해 호평을 받았으며, 동양학 분야에서 이름이 널리 알리기도 했다.

김광식 교수는 해인사 주지를 지낸 이고경 스님이 만당 당원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고경 스님은 해인사 주지 퇴임 이후 법보학원에서 민족교육을 하다가 1942년 12월 왜경에 체포됐고, 1943년 1월 고문 끝에 순국했다. 이런 업적으로 지난 2011년 이고경 스님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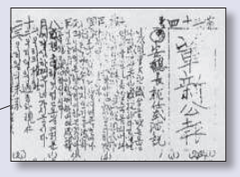
김광식 교수는 "고경 스님은 1920년대 전반기에 만해 한용운 스님을 만나고 그의 민족불교 노선을 따랐고, 1930년대 해인사에 복귀해서도 이런 노선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3.1운동 당시 이뤄진 해인사, 통도사, 표충사 등의 만세 운동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진 것도 연구의 성과다. 특히 중앙학림과 지방학림, 사찰이 연계되는 만세운동의 정황을 확인한 것이 주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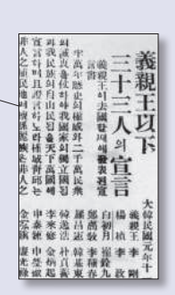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2회에 걸쳐 통도사 · 표충사 · 김룡사의 만세운동을 조명했다. 한상길 교수는 "불교계의 3.1운동은 청년 승려와 각 사찰의 학교인 지방학림과 보통학교 등의 학생들이 주축으로 참여했다"면서 "사찰은 만세운동을 기획하는 회합을 열기에 적합했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의 물품을 제작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용운과 유심사에 모여 만세운동을 기획했던 중앙학림 학생들은 대부분 각 사찰의 지방학림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본적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주동했다"며 "불교계 3.1운동의 시작과 끝은 지방학림"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계 항일운동 주요 보도일지











1919년 4월 3일 대구 승려 10명 만세운동(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 양산 통도사 만세운동 격화(매일신보)
1919년 4월 17일 불교청년들 '혁신공보' 창간
1919년 4월 22일 통도사서 시위 증거품 압수(매일신보)
1919년 7월 김용곡 스님 '경고법려' 기고(조선불교총보)
1919년 10월 7일 친일불교단체 '불교옹호회' 조직(독립신문)
1919년 11월 4일 한용운 스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독립신문)
1920년 1월 1일 의친왕 선언서 게재(독립신문)
1920년 3월 1일 대한승려연합회 불교선언서(독립신문)
1920년 4월 6일 임정 가담한 신상완 스님 체포(동아일보)
1920년 4월 10일 한성 불교강연회서 1,500명 만세 제창(독립신문)
1920년 6월 5일 밀양 표충사 인근 주민과 만세운동(독립신문)
1920년 9월 25일 한용운 공소공판기(동아일보)
1921년 4월 17일 해동불교청년회 군자금 모집 중 체포(동아일보)
1921년 8월 28일 불교 민중화운동 '삼장역회' 출현(동아일보)
1921년 12월 23일 한용운 스님 옥중 감상(동아일보)
1922년 4월 21일 '유신회' 일제 당국에 건백서 제출(동아일보)
1922년 4월 25일 유신회 '사찰령 폐지운동' 전개(동아일보)
1923년 7월 1일 양화사 신지찬 스님 체포 후 총살(독립신문)
1929년 3월 14일 민족해방 위한 불교 대계획 일본에 발각(중외일보)

일제 검속 · 친일조직 방해에도 '굳세어라!' 불교계 항일운동

당시 언론에 비친 불교계 항일운동

신문과 잡지는 당시의 시대상과 사건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언론에 기록된 불교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지난 2017년 1년간 불교 3.1운동 및 항일운동과 관련된 신문 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또한 민족사가 발간한 〈한국불교 100년〉의 사진 도판으로 실린 신문과 잡지 자료들도 당시 상황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당대 불교계 독립운동 기사를 통해 우리는 '3.1운동 발발 직후' 와 '통합 임정 출현' 을 기점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불교계 항일 움직임은 1919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싹텄다. 3.1운동 발발 직후 스님, 불자 등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만세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대구 동화사서 포교소에서 승려 10명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러 일제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며, 4월 22일에는 "밀양 표충사 승려가 농민들을 선동해 시위운동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사찰서 시위운동과 관련된 유력 증거품 등이 발견돼 경찰에 압수된 사건이나 만세운동을 펼치다 단속에 잡혀간 스님들에 대한 소식이 신문에 다수 실렸다.

이는 최근 연구 · 주목받고 있는 지방학림 스님들의 만세 유도 활동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다.

반대로 친일불교세력들도 활동한 정황도 확인된다. 김용곡 스님이 조선불교 30본산 기관지인 '조선불교총보' 에 기고한 '경고법려' 가 대표적인 보도 사례다. 그는 기고문서 불자 청년들의 항일운동 가담을 반대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듬해엔 불교계 인사가 참여한 선언서들이 나왔다. 1920년 1월 1일 독립신문에 게재된 의친왕 선언서 명단에는 백초월 스님의 이름이 포함됐다. 그해 3월 1일에는 대한승려연합회 명의로 작성된 불교선언서가 독립신문에 게재됐다. 일명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 는 1919년 11월 상하이에서 작성 · 발표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당해 파리강화회의 참석하는 세계 각국 외교관에게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당대 언론은 민족대표 33인 만해 한용운 · 백용성 스님이 수감 중과 출옥 후 보인 행보도 집중 조명했다.

동아일보는 1921년 8월 28일자 사설서 백용성 스님의 역경사업 조직체인 '삼장역회' 출범 의의를 보도했다. 스님은 삼장역회를 바탕으로 최초로 역경한 순한글 금강경 〈신역대장경〉 등을 펴낸다. 1921년 12월 23일, 동아일보는 한용운 스님이 출옥한 당시 모습과 발언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스님이 밝힌 "지옥에서 극락을 구하라"는 감상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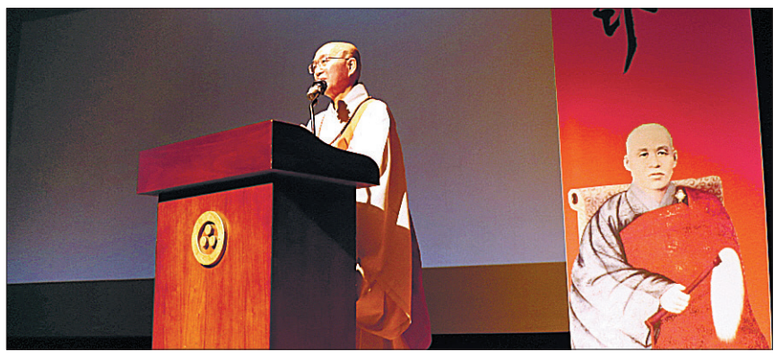
일본 당국의 탄압은 점점 심해졌지만 불교계는 항일운동의 조직 규모와 활동범위를 넓히는 일을 계속해나갔다. 군자금을 마련하다 적발돼 체포된 뒤 총살당한 신지찬 스님의 기사를 비롯해 식민지 불교정책에 반발한 '사찰령 폐지운동', 교계가 합심해 민족해방을 위한 대규모 계획을 세웠지만 발각돼 실현하지 못한 사건 등을 기록한 기사들은 이를 짐작케 한다.

김지원 기자

"'民'의 나라… 대한민국 수립" 발원한 용성 스님

구술사로 본 용성 스님 일대기
법륜 스님, 기념 토론회서 발제
도문 스님 구술 증언 바탕으로
용성 스님 항일운동 사실 밝혀

3.1운동 · 33인 등 논의 이끌어
출옥 후 임정 자금 지원활동
"종단 차원 관심 갖길 기대해"



(사)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독립운동가 백용성:잊혀진 100년의 진실' 을 주제 발제를 했다.

독립운동가이자 근대불교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1864~1940)이 3.1운동을 계획하고 '대한민국 수립' 을 처음으로 발원했다는 구술 증언들이 잇달아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백용성 스님이야말로 3.1운동과 항일운동의 숨은 주역이었다는 것이다.

(사)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간과할 수 없는 도문 스님의 구술

'독립운동가 백용성:잊혀진 100년의 진실' 을 주제로 열린 이날 발제에서 법륜 스님은 그간 부각되지 못했던 백용성 스님의 항일 사실들을 풀어놓았다.

법륜 스님이 제기한 백용성 스님의 항일 사실들은 대부분 용성 스님의 법손인 도문 스님의 구술에 의한 것이다. 구술사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피해 사실 등이 분명한 특정 사실들에 대해서는 구술도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다.

백용성 스님의 손상좌인 도문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후원자인 만석꾼 임동수의 증손자이기도 하다. 증조부, 조부부터은사 등에게 백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일화를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3.1운동 계획… 숨겨진 주역

법륜 스님이 밝힌 백용성 스님의 항일 운동은 △3.1 운동 계획과 종교간 통합 △대한민국 수립 발원과 태극기 사용 △임정 등에 독립운동 자금 지원 △윤봉길 대한민국임정 파견 △만주에 독립운동 근거지인 용정 대각교당 농장 선농당 설립 △조 · 중 연합국 창설 구상(1만 의병 참여 총사령관 홍범도) △항일 불교운동 등 7가지다.

법륜 스님에 따르면 3.1운동 계획은 손병희 천도교 교주와 논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1910년 한일합방이후 백용성 스님은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적극 나설 것' 이라는 기대를 갖고 3정승, 6판서, 팔도감사, 360고을수령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외면했다. 도리어 항일 운동에 나선 것은 못 배우고 못 살던 민중들이었음을 확인하고 독립선언거사를 계획하게 됐다. 1918년 손병희 교주를 찾아 독립선언 거사를 논의하며 33천의 하느님이 우리를 보우하시어야 우리나라가 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제언했고, 손병희 교주는 이를 받아들였다.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인도 이렇게 해서 인원 수가 정해진 것이다.

이 같은 백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의지는 대한제국의 부흥이 아닌 대한민국의 수립이 있었다는 게 법륜 스님의 설명이다.

법륜 스님은 "나라의 관리들은 독립운동 참여를 외면하는데 민중들은 도처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것을 백용성 스님은 전국을 유랑하며 확인했고, 이제 '민(民)의 시대' 가 왔음을 알았던 것"이라며 "이에 기초해서 3.1운동에 동참한 민족대표들에게도 대한민국 수립운동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상해 임시정부에 이어지고 현재 대한민국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륜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지원 사실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용성 스님은 후원자이자 동지인 임동수와 함께 금광업, 인삼무역, 농장 운영 등의 사업을 한다. 이중 눈여겨 살펴볼 부분은 백용성 스님이 출옥 후 1년 뒤인 1922년 만주 명월촌과 봉녕촌에 각각 210만평 부지의 과수 농장을 설립한 것이다. 1927년에는 중국 만주 용정에도 대각교당을 세웠다.

법륜 스님은 "1921년 자유시참변으로 궤멸된 독립군과 그의 가족들에게 터전이 필요했다"면서 "백용성 스님은 농장을 건립해서 유랑하는 동포들이 머물 수 있게 만들었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생계 지원과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3.1 사찰 만세운동 지도

사찰에서도 그날의 함성을…

3.1운동은 한국 근대민족운동사의 정점으로 근대민족운동의 상징이다. 이런 3.1운동에서 불교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불교계의 3.1운동은 그 이면에 역사적으로 흘러온 호국불교, 대승불교, 민족불교의 정신이 바탕이 됐다. 불교계의 3.1운동을 성찰, 그 의미를 재인식하여 오늘날 불교 정신의 재정립과 계승의 근간으로 삼는 것은 후학들의 과제다. 다양한 사료 등을 바탕으로 불교계의 당시 운동을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김용사 4월 13일 독립만세 운동

1919년 3월 25일 문경 김용사 공비생(출가 교역자가 되기 위해 교단의 육영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는 학생)으로 불교중앙학림에 유학 중이던 전장한이 구두 밑창에 독립선언문 한 장을 숨겨 김용사에 와서 전해주고 다음날 급히 상경했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 4월 11일 오후 7시쯤 김용사 지방학림 기숙사에서 송인수, 성도환 등 두 명이 만세시위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생들을 촉구해 괄기를 준비했다. 당시 기숙사에는 최덕찰 외 10여 명이 있었고, 13일 일제 식민통치관인 헌병주재소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로 했다.

김용사 부설 지방학림 학생들 18명은 13일 오후 3시 수업을 마친 후 독립시위를 위해 각자 태극기 4매를 준비해 일제 헌병경찰주재소가 있는 대하리에 가서 만세를 부르고자 산문을 나섰다. 산문 앞에서는 김용사 주지인 혜옹 스님이 앞을 가로막았다.

김철, 민동선의 증언에 따르면 만세운동 당시 김용사 지방학림에는 본 · 말사에서 파견된 공비생과 신교육을 갈망하던 상주, 문경, 예천 등지 불교신도 가정의 자제들을 합해 학생 수가 80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수업 연한이 2년이었으니 당시 1개 학년은 40여 명이었다. 학생들은 30명이 1개의 단을 구성해 태극기와 독립선언문, 또 경고문까지 감춰 길을 나섰지만 주지스님의 저지로 귀사하게 됐다. 14일 헌병들이 들이닥쳐 학생들을 교실에 몰아넣고 문전에서 차례로 결박해 27명을 문경 헌병대로 잡아갔다. 헌병대에 10여 일 구치돼 호된 심문을 받은 뒤 24명은 가까스로 풀려나오고 송인수, 성도환, 김훈영 등 3명은 상주지청에서 재판에 넘겨져 형을 받았다. 송인수, 성도환 두 사람은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재판을 받기까지 한 달여 동안 모진 고초를 당해야만 했다.



봉선사

3월 29일 광릉천 만세시위

김성숙(1898~1969)은 1919년 3월 3 · 1운동이 일어날 당시 봉선사의 스님으로 있었다. 만세시위 소식을 들은 김성숙은 1919년 3월 29일 봉선사 스님인 이순재(李淳載), 김석로(金錫魯), 강완주(姜完珠) 등과 함께 진접면 부평리 인근의 동리 주민들을 모아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시위의 전개와 방침을 알리는 문건을 비밀리에 제작 · 배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이들은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 임시사무소(臨時事務所)라는 명의로 동료들과 함께 격문을 만들었다. 이 격문의 취지는 '파리강화회의에서 12개국이 독립국이 될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조선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는 것으로써 그들은 약 200매 정도를 작성하여 인근 동리에 배포하였다. 봉선사 승려들의 만세시위를 선도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3월 31일 부평리 만세시위에 직 ·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독립문서의 배포 사건으로 김성숙은 동료 승려들과 함께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성숙은 출옥한 후 봉선사로 잠시 되돌아 갔으나, 곧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1923년에는 불교 유학생으로 중국의 베이징[北京]으로 건너간 뒤,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42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차장으로 활동하였고, 광복 후에는 혁신정당을 조직하여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1969년 4월 12일 사망하였다.



신륵사 4월 3일 신륵사 만세운동

1919년 3월 26일과 27일 여주 주내면 상동리의 조병하와 심흥훈이 보통학교 학생들과 독립만세 시위를 준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4월 1일 이포에서 2000여 대중이 일본헌병대와 충돌했으며, 4월 2일 여주읍내서 1000여 명과 북내면 장암리에서 경성농업학교 학생과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펼쳤다. 신륵사 김용식 스님은 4월 3일 신륵사 인근 백사장에서 200여 대중을 모아 만세운동을 펼쳤다. 4.3만세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스님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으며 옥고를 치른다. 스님은 이후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만주로 갔지만 밀고로 도망을 다니다 신륵사로 돌아왔다.



쌍계사 4월 6일 화계장터 만세운동

쌍계사 스님 김주석(金周錫)과 학생 양봉원(梁鳳源), 정상근(鄭相根), 이강률(李康律), 이정수(李汀秀), 임만규(林萬圭), 이정철(李正哲) 등은 4월 6일 화계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300명 수준으로 실제 참석 인원은 300명을 웃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찰들은 만세를 외치는 청년과 주민을 닥치는 대로 연행했으며, 김주석 스님을 비롯한 학생과 청년 등 주동자들이 검거됐다. 주동자들은 검거됐지만 화개장터 만세운동의 여파는 이어졌다. 이튿날인 4월 7일 하동보통학교 4학년 박문화 등 160여 명의 학생들이 소풍을 가는 길에 화개장터에서 만세를 불렀으며, 4월 6일 거사에서 검거를 피한 이강률, 이정수, 이정철, 임만규 등이 4월 11일 제2차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4월 11일 화개장터에서 4명이 검거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후 이들은 보안법 위반 죄목으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과 마산지청에서 재판을 받아 쌍계사 김주석 스님은 징역 6개월, 이정수 징역 10개월, 이강률 · 이정철 · 임만규 징역 8개월 등의 형을 받았다.



대흥사 불교전문강원 만세운동 추동

만해 한용운으로부터의 부탁으로 서울지역 연락책 등으로 활동한 응송 박영희는 광주를 거쳐 대흥사에 도착하여, 그 곳 승려인 정재성(鄭在成), 정흥창(鄭興昌), 김재선(金在善) 등에게 해남지역 만세운동을 추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완도로 들어가서는 오석균(吳錫均)을 만나서 선언서와 태극기를 주고 만세운동을 부탁하였다. 그 후에는 화엄사로 나와서, 중앙학림 출신으로 만세운동을 권유하려고 와 있던 정병헌을 만나서 구례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하도록 조언을 하였다. 이렇게 해남의 대흥사, 완도, 구례의 화엄사 등에 3.1운동의 과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응송은 상경하였다.



동화사 3월 30일 동화사 포교당 독립만세 시위

대구지역 3 · 1운동은 크게 세 차례 일어났다. 제1차는 1919년 3월 8일 서문시장에서, 제2차는 3월 10일 덕산정 시장에서 일어났다. 제3차는 3월 30일 동화사 지방학림 스님들이 덕산정 시장에서 일으켰다.

제3차 3 · 1운동을 위해 서울 불교중앙학교 학생 윤학조(尹學祚)는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가한 후 고향으로 내려와 권청학(權淸學) · 김문옥(金文玉) 등 후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화사 지방학림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모두 대구 덕산정 시장(남문밖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합의하였다. 3월 28일 동화사 지방학림 학생 전원은 동화사 심검당(尋劍堂)에 모여 3월 30일에 거사를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태극기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3월 29일 9명의 학승(學僧) 대표들이 동화사를 떠나 대구부 덕산정에 있는 동화사 출장소 김상의(金尙儀)의 집에서 시위를 준비하였다. 이 출장소는 당시 동화사의 포교당이었다. 이튿은 3월 30일 오후 2시 남문밖 시장에서 수많은 장꾼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일으켰으나 일본 경찰들의 출동으로 시위는 제지를 당하였고 주도자들은 붙잡혔다. 지방학림 스님 권청학 · 이문옥 등 9명은 재판에서 10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표충사 4월 4일 태용리장터 독립만세 시위

1919년 2월 말경 벌어사 스님 대표 7명은 만해 한용운의 지시로 상경하여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에 참가한 뒤 귀향하여 시위운동을 주도했다. 3월 20일 통도사 승려 50명이 밀양군 단장면 표충사에서 표충사 스님들과 비밀회합을 갖고 만세시위를 협의했다. 이들은 거사일을 4월 4일 태용리장날로 정하였다.

드디어 4월 4일 태극기를 가지고 온 장석준(張碩俊) 등을 비롯한 표충학원 학생들은 재빨리 이를 스님들과 모여드는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후 12시 30분 이장옥(李章玉), 이창수(李利修), 오학성(吳學成), 손영식(孫永植), 김성흡(金性洽), 구연운(具蓮運), 오응석(吳應石) 등 표충사 스님들은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높이 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여 만세를 불렀다. 시위대는 곧 헌병주재소로 몰려갔고 주재소는 군중들의 투석으로 유리창, 지붕, 벽등이 전파되었다. 이에 밀양 헌병분견대로부터 일본군 헌병이 급파되어 이들의 발포로 오후 1시 30분 군중들은 해산하였다.



해인사

3월 31일 해인사지방학림 학생 독립만세 운동

황해도 해주군 출신으로 당시 해인사 부속 지방학림 학생인 홍태현(洪泰賢)은 그곳 학생인 백성원(白聖元), 김경환(金景煥), 김성구(金聖九) 등과 더불어 해인사 내 지방학림 기숙사에서 의거를 모의하였다. 1919년 3월 31일 오전 11시경 해인사 홍하문(紅霞門) 밖에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먼저 독립만세를 불렀다.

학생들은 오후 1시 해인사경찰관주재소로 몰려가 시위를 하였으나 경찰들이 총을 발사하여 일단 해산하였다. 그날 밤 11시경 150여 명의 군중들이 다시 봉기하여 해인사 앞 도로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학생들은 이들과 합류하여 독립만세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곧 일제 경찰들에 의해 강제해산을 당하고 말았다. 시위에 앞장 선 홍태현은 검거되어 1919년 6월 11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6월형을 언도 받고 대구형무소에 투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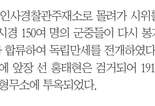


통도사

3월 13일 신평장터 독립만세 시위

서울의 3 · 1운동에 참여한 경성 중앙학림 학생인 오택언(吳澤彦)은 한용운(韓龍雲)의 지시에 따라 독립선언서를 휴대하고 1919년 3월 4일 통도사에 도착한 후, 통도사 지방학림의 학생대표 김상문(金祥文) 및 통도사 강원 승려 등과 함께 3월 13일 신평 장날에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밀고자에 의해 계획이 탄로나고 오택언이 체포되었으나, 3월 13일 신평장터에서는 하복면 줄다리기 대회를 빙자하여 군중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통도사 부속 보통학림 및 지방학림 학생 수십 명과 불교 전수부 학생 10여 명, 승려 10여 명 등이 신평장터에서 군중들과 합세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출동한 헌병과 경찰에 의해 군중들은 강제 해산되었으며, 시위 주모자인 김진오(金鎭五, 이명 金鎭玉)가 체포되었다. 이외 다른 시위 주모자인 김상문은 피신한 후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특파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하북면사무소에 근무하며 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박세문(朴世文, 이명 朴世玟)은 면서기직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피신하였다가 체포되었다.



범어사 3월 18일 범어사 학생 만세운동

1919년 3.1운동을 앞둔 2월 하순 만해 한용운이 범어사로 내려와 오성월(吳惺月)을 비롯해 이담해(李湛海), 오이산(吳梨山) 등을 만나 만세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범어사 주지 오성월, 이담해 등은 김법린(金法麟), 김영규(金永奎), 차상명(車相明), 김상현(金祥賢), 김상기(金相琦), 김한기, 김봉한 등 범어사 스님과 명정학교 및 범어사 지방학림 학생 7명을 범어사 대표로 하여 서울 3 · 1운동에 참가하게 했다. 이들은 3월 4일 독립 선언서 등 문건과 만세 시위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범어사로 돌아왔다.

이 무렵 서울의 만세시위 소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부산에서도 3.1운동의 열기가 달아올랐다. 이에 부산에서는 3월 11일 부산진일신여학교(동래여자고등학교의 전신) 학생들과 기독교도의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3월 13일 동래고보(현 동래고등학교)의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범어사 관계자들은 3월 8일 동래 장날에 맞추어 만세시위를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범어사의 승려와 학생들은 새로운 거사일을 역시 동래 장날인 3월 18일로 잡고 동래 장터 일대를 중심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마침 하루 전날인 3월 17일은 범어사 명정학교와 범어사 지방학림의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날 밤 개최된 졸업생 송별회 자리에서 김영규가 축사 도중에 만세시위를 독려했다.

시위의 주동자들은 어둠을 틈타 두 편으로 나누어, 18일 새벽 동래 복천동에 있는 범어사 동래포교당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사전 누설로 일본 헌병과 경찰에 의해 김영규, 차상명, 김상기, 김한기 등이 연행되고 나머지는 강제 해산됐다. 이에 검거를 피한 이근우, 김해관, 김재호, 윤상은 등 40여 명의 명정학교와 범어사 지방학림 학생들과 함께 동래읍성 서문 부근에서 동래 시장을 거쳐 남문까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19일 오전 허영호가 주도하여 다시 한 차례 더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그 후 각각 두 차례의 시위를 더 감행했다.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 제언



"근현대 탐구로 현재 대안 모색"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3.1운동은 불교의 이념을 구현한 거국적인 평화시위입니다. 한국불교의 이념인 호국불교, 대승불교를 실천한 것이죠. 이런 이념은 인류의 자유와 평등, 평화를 염원한 보편적 가치와 연결됩니다. 3.1운동이 불교의 가치관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불교계는 미진한 근현대사 탐구를 바탕으로 현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3.1운동에 담긴 정신이 곧 불교정신과 맞닿아 있어 불교계가 이를 조명하고 선양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사찰별로 각 사찰을 빛낸 스님 발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불교계의 많은 독립운동가 조명이 선양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선양차원을 벗어나 근현대 불교사 전체에 대한 연구 진작, 불교정화운동, 개혁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불교 근대화와 근현대 고승 탐구 등도 연구 소재로 삼아야 한다. 불교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이 과정 속에서 고승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피며 현재 불교 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지방승가대 교육과정에 근현대사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단과 연구소 등이 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진정한 불교계 3.1운동 조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1만5천여 독립유공자 중 불교인사가 100여 명에 불과한 것은, 그간 자료수집을 방치하고 연구활동을 하지 않아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한 뒤 "만해와 용성 스님 등 일부 스님들에게만 연구가 치우침에 따라 많은 불교계 인사들에 대한 조명이 미처 이뤄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대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높이는 일은 연구자들만의 노력으로 역부족이다. 최근 연구자가 늘어나고 관련 사업도 활성화됐지만 아직도 미진한 수준"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연구기금을 마련하거나 각 사찰 출신 승려들의 업적을 찾아 연고가 있는 학자들이 연구하도록 맡기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3.1운동 조명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자료수집과 인물연구 선행돼야"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

"3.1운동, 항일운동 등 근현대사에서 불교계가 연구할 것은 많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얼마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가' 인데요. 현재 미진한 불교계 연구가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체계적인 자료발굴과 연구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의미 깊은 시기에 맞춰 관련 연구 등이 이뤄진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같은 동력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소장은 만해와 용성 스님이 대표적인 불교계 항일인사로 꼽히지만 전국 각지 사찰을 중심으로 전개된 청년승려들의 풀뿌리 항일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지원과 신진학자 발굴에 불교계가 힘쓸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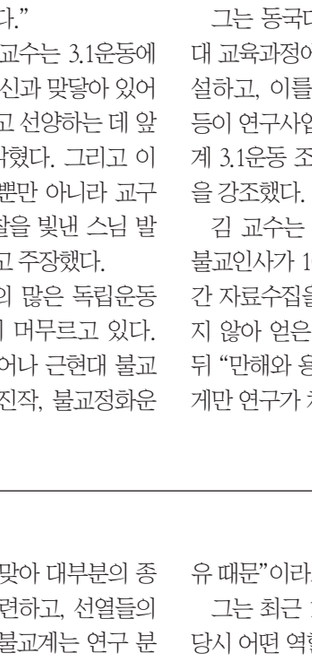
이 소장은 "독립운동유공자 발굴은 자료수집과 인물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당시 활동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재소자 신분카드, 범죄인명부, 당시 기관지, 신문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해외에 산재한 관련자료 수집도 절실하다. 연구자의 몫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교계가 △지방사찰의 3.1 만세시위 △사찰간의 연계활동 △불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 등 다양한 근대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 · 천도교 · 기독교의 3.1운동 비교연구와 연계활동 연구, 인물별 상호연계 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특히 한민족독립운동사 내에서 불교계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만큼 꾸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소장은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통치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로 뭉쳐 항거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바로 3.1운동이다. 무엇보다 불교를 비롯해 천도교와 기독교 등 주요 종교 교단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폭력 평화운동이 추진된 것"이라며 3.1운동의 의미를 짚은 뒤 "불교사상의 근본인 자비에 자유와 평등사상이 흐르고 있어 3.1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계는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인류평등을 추구한 3.1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세미나와 전시가 불교계서 마련됐지만 이 같은 활동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그간 불교계는 근현대사 연구에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숭유억불로 대변되는 조선시대를 거쳐 왜색불교를 피하지 못한 근대사는 한국불교의 어두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불교 근현대사 전문가들에게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근대불교 강좌 마련 시급"

김경집 진각대 교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부분의 종교계가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선열들의 업적을 기리지만 한국불교계는 연구 분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근현대사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선양사업이나 독립운동을 펼친 스님들을 조명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죠. 근현대불교 전문강좌를 마련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는 현재 불교계에 근현대불교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불교계가 전문가 양성에 매진할 것을 이 같이 주문했다.

김 교수는 "동국대의 경우 학부과정에 한국 근대불교와 관련된 강좌가 없다. 결국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으면 근대불교를 배울 기회조차 없다"며 "불교학과 졸업생들이 근대 불교인보다 고대와 중세 인물을 더 잘 아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1년 사이에 불교가 3.1운동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만해와 용성 스님만을 인지하는 현상에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조사되고 추서된 독립유공자들은 신문이나 잡지 등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록이 없으면 정황과 구술을 들어 유공자 지정을 의뢰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교계가 국가기관의 결정적 증거 요구를 맞추려면 스스로 자료를 찾아야 한다. 기존자료 외에 연관성이 있는 추가 자료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3.1운동이 세계사에서 평화 · 자존운동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는 데 공감하면서 3.1정신을 불교계가 '모든 존재의 가치가 소중하다' 는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불교계의 3.1운동 참여는 일제라는 적을 격퇴하는 의미보다 민족의 자존감을 일깨워 참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3.1운동에 참여한 만해와 용성 스님 역시 출옥 후 이런 불교의 모습이 사회에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어느 시대이건 대중을 힘들게 하는 요소를 척결하는 것이 불교의 본분이자 파사현정"이라고 불교의 가치를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자발적 관심은 투자로부터"

오경후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불교계는 그동안 3.1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최근의 연구와 선양사업이 공교롭게도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3.1운동을 조명한 적은 드뭅니다. 관심사로 떠오르지 못했으니까요. 자발적인 관심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됩니다."

오경후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와 전시들이 시기에 맞아서일 뿐 불교계 내부적으로 3.1운동을 조명한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행사들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시의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3.1운동은 불교계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오 연구원은 "불교계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대부분 문중차원에서 이뤄졌을 뿐 조계종 등 각 종단서 공식적으로 관심을 두진 않았다"며 "3.1운동이 과연 불교에게 무엇이었고, 어떤 존재였고, 무엇을 제공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국불교가 지닌 가치와 정체성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근현대 불교사 조명이 취약한 원인 중 하나로 불교가 꽃을 피운 삼국 · 고려시대와 숭유억불로 대변되는 조선시대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한국불교 연구에서 조선시대는 사상 측면의 연구 등이 미천할 수밖에 없었다. 탄압과 소외로 인해 명맥 유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불교계 관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바둑의 '복기' 의미를 불교계가 이해해 어두운 과거를 조명하고, 학문뿐만이 아닌 현실차원에서 근현대 불교사에 관심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바둑에서 복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놓친 부분을 다잡고, 앞으로의 경기에서 잘하기 위함이다. 근현대 불교사가 어둡고, 부끄러운 민낯이 있다고 해서 묻어두기만 한다면 발전은 없다"면서 "암울한 시대의 역사라도 우리가 분명히 규명해 되풀이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 그때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불교만이 갖고 있는 3.1운동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성민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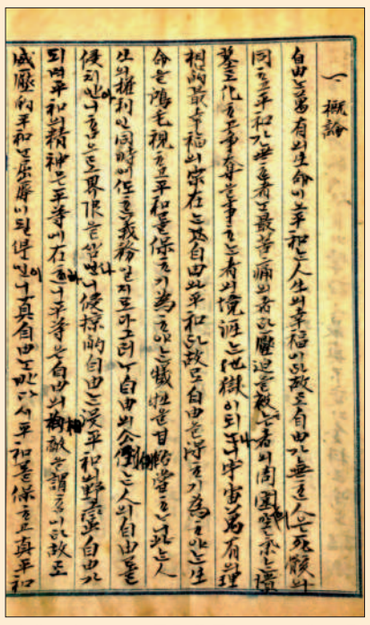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유물로 되살아난 독립운동가 '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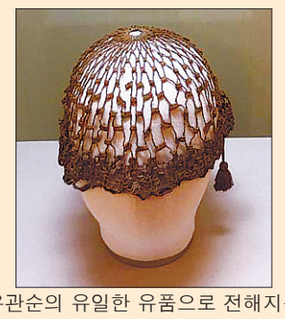
만해 스님이 3.1독립운동으로 인해 수감 중일 때 일본인 검사의 요구에 답한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육필원고.
예술의전당 제공



1947년 세워진 범어사 갑오갑보사단비. 논 70마지기와 돈 5000원을 헌납한 갑오갑계(甲午甲契) 명단에는 범어사 3.1운동을 주도한 애국지사 15명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범어사 제공**



1919년 해인사 만세운동의 중심지 홍하문의 옛 사진. 홍태현 스님 등 200여 명의 군중이 동참했다. **해인사 제공**



유관순의 유일한 유품으로 전해지는 삼색 뜨개모자. **국립공주박물관 제공**

볼만한 3.1운동 기념전시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이를 기념하는 각종 전시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조선 독립의 서〉로 알려진 만해 한용운 스님의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육필원고를 비롯해 대형사찰 스님들의 대대적인 만세운동 근거자료, 독립운동가들이 후손에게 남긴 각종 유물까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펼친 선조들의 기개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기념전시가 다채롭게 마련됐다. 수많은 행사 중 불자들이 가볼만한 전시를 추려봤다.

예술의전당(서울)

예술의전당은 4월 21일까지 서울서예박물관에서 3.1독립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서화미술특별전 '자화상(自畵像)-나를 보다'를 개최한다. 이 전시에는 등록문화재 제664-1호로 지정된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를 비롯해 독립운동가와 근대 인물들의 친필,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서화미술 작품들이 다수 공개된다.

무엇보다 불자들이 눈여겨볼 부분은 3.1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친필 원고가 일반에 최초 공개된다는 점이다. 전시에는 만해 스님이 3.1독립운동으로 인해 수감 중일 때 일본인 검사의 요구에 답한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육필원고와 같은 시기 민족대표들의 소회를 받아 남긴 〈3.1독립운동 민족대표들의 옥중시(諸位在獄中吟)〉가 최초로 공개된다.

그간 만해 스님의 육필원고는 〈조선 독립의 서〉라는 제목으로 출간돼 내용은 잘 알려졌지만 육필 공개는 처음이다. 당시 마흔 살이던 만해 스님이 작성한 이 글은 한자와 한글을 혼용, 총 53장 분량에 걸쳐 조국 독립의 의미를 담았다. 만해 스님은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로 시작하는 이 글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확신했다.

민족대표들의 시 모음글인 〈제위재옥중음〉 또한 3.1독립운동으로 감옥에 갇혔던 민족대표, 출소 후 다양한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이들의 옥중소회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글 역시 만해 스님이 민족대표들의 한시를 받아 옮겨 적은 것으로, 만해뿐만 아니라 길선주 · 김선두 · 백용성 · 최남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전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8월 15일 백범 김구가 경교장에서 남긴 친필 '한운야학(閒雲野鶴)'이 최초 공개된다. 이 유물은 백범의 주치의이자 미술컬렉터였던 수정 박병래(1903~1974) 선생이 보관하던 것을 성베네딕도 수도원이 이어받아 이번 전시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한가로운 구름 속 들판 위의 학'이란 뜻의 한운야학은 남북 통합정부 수립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백범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입장료는 성인 5천원, 청소년 · 어린이 3천원이며,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네이버 등에서 예매 가능하다. 전시기간 중 매일 2회(오후 2시 · 5시) 도슨트가 진행되며, 전시기획자가 직접 설명하는 큐레이터 도슨트도 주 1회 운영된다. 3월 9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02)580-1300

범어사(부산)

부산 범어사성보박물관은 부산근대역사관과 함께 공동기획 특별전 '저항×2 범어사 3.1운동과 명정학교'를 6월 9일까지 100일간 범어사성보박물관 전시실과 부산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부산지역의 대표적 만세운동인 범어사 만세운동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제1부 민족교육의 산실, 명정학교 △제2부 범어사 만세운동의 주역들 △제3부 범어사 만세운동의 후원자들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범어사 만세운동과 만세운동의 주역을 배출한 명정학교, 지방학림에 대해 소개한다. 범어사 조사에 따르면 범어사 만세운동을 함께한 명정학교와 지방학림 학생들은 당시 16~27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였다. 이들은 6개월에서 2년의 옥고를 치르고, 일제총독부는 학교를 폐교하며 보복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야학과 유치원을 개설해 민족교육을 이어왔으며, 광복 이후 기금을 모아 1947년 현재의 금정중학교 명칭으로 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2부에서는 김법린(법산당 법린), 김영규(석우당 영규) 등 범어사 만세운동의 주역을 소개한다. 이들은 옥고를 치른 이후에도 1922년 범어사 3.1동지회를 결성하는 등 광복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제3부는 만세운동을 뒷받침한 후원자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오성월 스님을 비롯해 한흔해(흔해당 찬윤), 이담해(담해당 덕기), 김경주(영담당 경주) 등은 범어사 수선결사운동을 강화해 일본불교의 침투를 저지했다. 이와 함께 범어사 지도부는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을 세워 근대민족교육과 불교개혁운동을 이끌었다.

이번 전시는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범어사 3.1만세운동의 제1차 시위 일자에 관한 자료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법린의 회고록을 비롯한 각종 사료를 통해 부산 최초 만세운동이 3월 11일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가 아닌 3월 7일 범어사라는 점을 대중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051)508-6139

해인사(합천)

합천 해인사성보박물관은 6월 30일까지 기념특별전 '號國호국,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사명대사의 항일 구국사상을 계승한 해인사 스님들의 독립운동과 민족대표 백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전통불교 수호활동, 해인사 인근 3.1운동을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일본의 만행인 '해인사사건' 이후 새로 세워진 사명대사비를 비롯해 해인사 지방학림 스님들이 독립선언서를 출가사찰에 배포한 사실, 해인사 홍하문 앞에서의 3.1만세운동, 기사로 본 스님들의 독립활동, 백용성 스님의 업적 등이 담긴 자료가 공개된다.

해인사사건은 1942년 12월 합천경찰서장이 친일 승려 변설호의 밀고에 해인사 스님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고경 스님과 환경 스님이 학인들에게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이었던 사명대사와 왜장 가등청정 간의 애국적 일화를 가르쳤다는 것을 빌미로 사명대사의 진영을 훼손하고, 비문의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사명대사비를 네 조각으로 파손했다. 스님들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으며, 고경 스님은 모진 고문 끝에 입적했다. 이에 해인사는 1947년 환경 스님 발의로 사명대사비를 새로 세웠으며, 방치돼 있던 사명대사비는 1958년 접합했다.

전시에서는 해인사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활동을 엿볼 수 있다. 해인사 스님들은 서울의 3.1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등사판을 모아 독립선언서 3100벌을 인쇄, 각 출가사찰을 중심으로 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홍하문 밖에서는 3월 31일, 홍태현 스님과 지방학림 스님 등 200여 명의 군중이 봉기해 독립만세시위를 펼쳤다. 특별전에는 홍태현 스님 등 해인사 스님들에 대한 판결문 등이 전시된다. (055)934-3150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은 4월 1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집전 '충남의 독립정신'을 개최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충남지역 독립운동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광복 이후 백범 김구가 충남의 독립운동가들을 추도 · 참배했던 일정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전시에는 윤봉길 선서문(보물568-1호), 윤봉길 회중시계(보물568-2호), 유관순의 유일한 유품인 삼색 뜨개모자 등 독립운동 관련 사료와 유물 32점을 선보이며, 이외에 임시정부 관련 각종 사진자료들도 전시된다.

전시는 △제1부 충忠 · 의義를 기리며 △제2부 3.1운동을 기리며 △제3부 다양한 항일투쟁과 통합이라는 3개의 주제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한말 충 · 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선의 복국을 위해 힘쓴 김복한(1860~1924)과 최익현(1833~1906)으로 대표되는 호서지역 유림의 항일의병 활동을 조명한다. 최근 충남 도지정문화재로 고시된 채용신(1850~1941)의 '최익현 초상화'와 '최익현 유배도' 등이 전시된다.

2부에서는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16세 유관순과 호서지역 · 영남지역 유림들이 함께 추진한 파리장서운동을 조명한다. 또한 충남지역 3.1운동 전개양상과 봉화만세운동의 특징을 살핀다. 백범 김구의 '유관순 추도사'를 직접 볼 수 있다.

3부에서는 윤봉길(1908~1942), 김좌진(1889~1929), 이동녕(1869~1940) 등의 의열활동, 무장투쟁, 임시정부 활동에 몸담은 인물들을 살피고, 독립정신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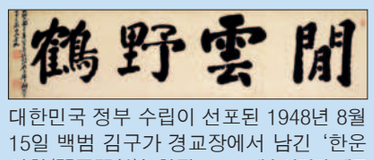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국립공주박물관은 '나만의 태극기 만들기' '횃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전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041)850-6363



윤봉길이 1932년 상해 훙커우공원서 의거할 때 소지한 회중시계. 의거 직전 김구와 작별하며 서로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공주박물관**



일본 경찰에 의해 파괴됐다가 광복 이후 접합된 해인사 사명대사 석장비(보물 제1301호). **해인사 제공**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8월 15일 백범 김구가 경교장에서 남긴 '한운야학(閒雲野鶴)' 친필. **예술의전당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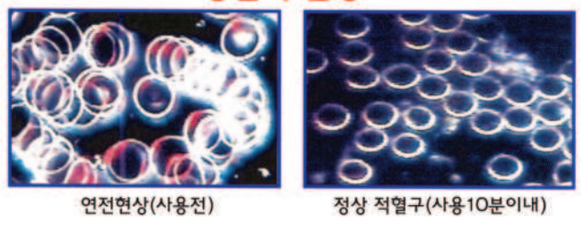
만해 스님이 1937년 후학 김재선의 부탁을 받아 남긴 친필과 수인(手印). 이 글의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예술의전당 제공**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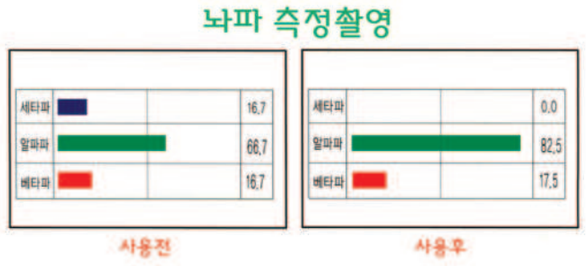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뇌파 측정촬영



검버섯 제거 현상

